

제2부

이목동 배나무골 공동체와 주민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제1장 이목동 문중 공동체의 형성과 가계 계승
- 제2장 문서 이데올로기와 이목동 '산지기 문서의 주인 찾기'
- 제3장 근현대 이목리의 사회·경제적 변화
- 제4장 4H구락부에서 이목동애향회까지
- 제5장 자매애로 집안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여성들
- 제6장 변화하는 마을, 남겨진 눈과 발을 일구다





이목동 문중 공동체의 형성과 가계 계승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이목동은 수원시 북쪽 경계부에 자리하며, 수원의 진산인 광교산 서쪽 말단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수원의 시가지는 주로 광교산 남사면에 형성되었지만, 이목동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을 갖춘다. 마을 앞에는 파장저수지에서 발원한 서호천이 흘러 천천동을 지나 서호로 이어지며, 하천 주변 저지대에는 농경지가 조성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목동 주변의 산지는 고도가 높지 않지만 마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며 각 봉우리에 이름을 붙여 불려왔다. 화산, 최장군봉, 옥녀봉, 삼선봉, 덕성산, 망치봉 등이 그 예로, 이는 지역 공동체가 산지를 공유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산지는 1972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임야 개발이 제한되었고, 오늘날에도 비교적 온전한 산세를 유지한다.

이목동 동쪽의 광교산은 해발 582m로 한남금북정맥의 주봉이자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을 비롯해 여러 하천의 발원지이다. 광교산은 오래전부터 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이목동은 산줄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골짜기를 품고 있다. 곡산골, 작은골, 갯골, 푸무골, 정골, 안죽골, 함박골 등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생활과 농경의 터전이였다. 이 골짜기들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계단식 논을 만들기에 적합했고, 오늘날에도 벼농사와 시설재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곡산골은 이목동의 발원지로, 소규모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이목동은 산과 물, 골짜기와 논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서 형성된 마을로,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자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다. 배산임수의 입지와 풍요로운 농경



이목동 문중의 주요 묘역 분포

지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 주며, 오늘날에도 그 생활상이 이어지고 있다.

1. 남양 홍씨의 입향과 정착

이목동에 처음 터를 잡은 문중은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判中樞公派)로, 입향조는 '이현(梨軒) 홍수득(洪守得)이다. 남양 홍씨는 본래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온 당홍(唐洪) 계열과 토착화된 토홍(土洪) 계열로 나뉘는데, 이목동에 입향한 계열은 당홍 계열에 해당한다. 당홍 계열은 홍은열(洪殷悅)을 시조로 하며, 고려 말기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다수의 재상과 부마와 공신, 청백리들을 배출하며 성장해 나갔다.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는 고려 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와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를 역임한 홍언수(洪彦修, ?~1415)를 파시조(派始祖)로 한다. 그는 고려 말 증추원과 문하부(門下府)에서 활동했으며,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1395년(태조 4)에 조선개국원종공신으로 책록되기도 하였다. 1415년(태종 15) 그가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곡식 30석을 하사하고, 경기관찰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예우를 다하였다. 홍언수는 홍약(洪約)·



이목재(이목동 23-7번지)와 남양 홍씨 묘역(이목동 산5번지)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이목동 입향조 도정공 홍수득 묘역(<https://dldm12xhd.tistory.com/15920369>)



남양홍씨묘역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적(洪夏績)이다.⁴ 반면 홍유도와 홍하관은 아들이 없었고, 홍유원은 두 아들 홍하상과 홍하신을 두었다. 이에 홍유량의 둘째 아들 홍하성이 홍유관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홍유도도 후손이 없으나 양자를 들이지 않은 것은 일찍 사망한 탓인 것 같다.

그런데 홍유량의 장자인 홍하창도 아들이 없자, 동생 홍하성의 둘째 아들 홍우평을 양자로 들였다. 홍유관에게는 본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홍우재(洪夏績), 홍우평(洪禹平), 홍우부(洪禹敷)이다. 이 중 둘째 아들인 홍우평을 장손으로 홍하창에게 입양을 보낸 것이다. 홍하성의 둘째 아들 홍우평은 홍하창의 장자로 입적되었으며, 이후 슬하에 홍처인(洪處仁)·홍택인(洪宅仁)·홍수인(洪壽仁)·홍대인(洪大仁)·홍득인(洪得仁) 다섯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홍하성의 장자인 홍우재에게 아들이 없자, 홍우평의 둘째 아들인 홍택인을 홍우재의 양자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홍하명의 아들 홍우택의 아들 홍이인도 홍하명의 셋째 아들 홍우구(洪禹龜)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어 홍우평의 장자인 홍처인에게 아들이 없자, 양자로 간 홍택인의 두 아들 중 장자인 홍범오(洪範五)를 홍처인의 양자로 보냈다.

이처럼 홍택인의 아들 4형제 중 손이 없는 홍유도를 제외하면, 서로 자손을 양자로 주



남양홍씨묘역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수원시정공문중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받으면서 가계를 이어갔다. 그 결과 장자인 홍유량 계열은 용인에, 셋째 홍유관과 넷째 홍유원 계열은 이목동에 묘역을 마련하였다.

도정공, 시정공 문중은 판중추공세천비, 시정공문중납골묘비를 세우고, 이목동의 이목재와 동백동의 승천재를 나란히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시정공 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5일과 10일에 향사(享祀)를 봉행하며, 이목재에서는 10월 5일, 승천재는 10월 10일에 각각 제향을 올린다. 남양 홍씨 이목동 묘역은 산5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정공 문중은 묘역 정비와 사적 관리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묘역 정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94년 이목동과 1995년 동백동에서 묘비, 호석, 장명등, 망주석 등을 세우고 묘비의 음기(陰記)를 새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1996년, 2001년, 2003년에 단계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1997년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동백동 사패지 하단 일부가 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선영을 정리하고 일부는 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손이 있는 경우는 이장 사유를 기록한 면봉고유비(緘奉



수원시 수원학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이목재(<https://dldml2xhd.tistory.com/15920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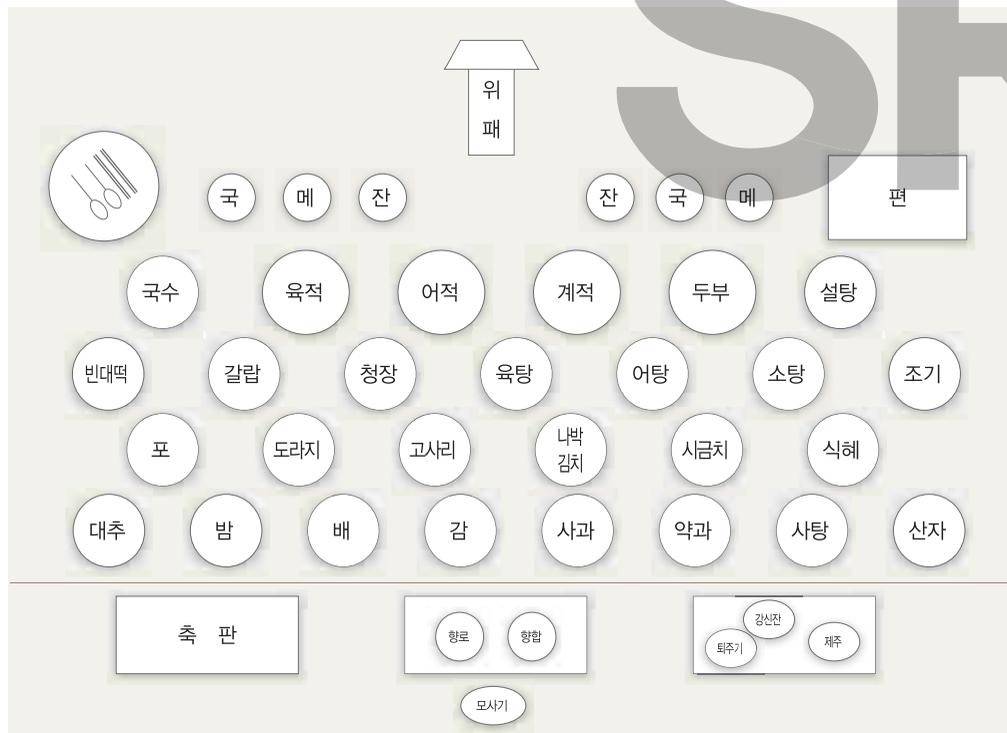
이목재(告由碑)를 세웠으며 후손이 없는 경우는 납골묘에 합봉하여 무사방계열조추모비(無嗣傍系烈祖追慕碑)를 건립하였다. 이후 2003년에 납골묘비와 2006년에는 판중추공세천비와 이목재·송천재가 건립되었다. 아울러 판중추공파는 1834년 간행한 『남양홍씨세보』(갑오보)를 시작으로 1920년 경신보, 1964년 갑진보, 2001년 신사보를 차례로 발간하여 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문중 계승의식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왔다.

시정공 문중의 묘역 조성과 양자 관계, 그리고 재실 운영과 제향은 단순한 선산 관리 차원을 넘어 문중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목동과 용인을 오가며 조성된 묘역은 후손들의 생활 근거지와 함께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양자 제도는 가계의 단절을 막으며 한 집안, 한 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나아가 묘역 정비와 기념비 건립, 재실에서의 향사는 후손들이 조상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공동체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시정공 문중의 이러한 활동은 홍수득의 입향 후 그를 시조로 하는 문중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으며, 후손들에게 뿌리 의식을 일깨우며 문중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



남양 홍씨 시제 제집사 위치도



남양 홍씨 시제 잔설도

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문중의 전통을 계승하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 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 후손 중 이목동에 세거한 후손들은 크게 번창하지는 못하였는데, 20세기 초반에 이목동에 거주한 남양 홍씨는 2가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주 김씨의 입향과 정착

이목동 경주 김씨는 신라 김알지의 후손이자 경순왕의 후예로, 여러 분파가 존재하는데 그중 계림군 김균(金紆)을 파조로 하는 계림군파에 속한다. 이목동 경주 김씨는 계림군파 가운데 10세손인 갈천공 김원립(金元立)을 중시조로 하는 갈천공파의 후손들이다. 갈천(葛川)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대의 옛 지명이다. 용인에는 경주 김씨 상촌공파 계열의 공평공파와 문간공파, 그리고 계림군파 계열의 갈천공파가 크게 문중을 이루고 있다.⁵

갈천공파 시조인 김원립은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광해군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자,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상소를 올려 맞섰다가, 미움을 받아 하옥되었다. 10년 만인 1623년 풀려나 의금부도사에 임명되고, 1627년 전주정시(全州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30년 지평이 되고 1635년 반숙마(半熟馬) 1필을 하사받고 헌납이 되었다. 이후 직강(直講)·예조정랑·호조정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해운판관(海運判官)·부안현감(扶安縣監)·능주목사(綾州牧使) 등을 지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바로 군사를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하지만, 1647년 함경도 종성부사(鐘城府使)로 있을 때, 국경 백성들이 몰래 청나라 땅에 사냥하러 들어갔다가 청군에게 붙잡히자, 조정에서는 그의 죄를 물어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후 경기도 용인에 낙향하여 제자를 기르며 노후를 보냈다. 병자호란 의병의 공이 있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고, 홍문관과 명예문관의 양관제학(兩館提學)과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갈곡마을에 갈천공 병자호란창의근국기념비(葛川公丙子胡亂倡義勤國紀念碑)라 칭하는 김원립창의비(金元立倡義碑)가 있다.

김원립의 현손인 14세 김록(金祿)은 이목동에 처음 터를 잡아 경주 김씨의 세거지를 조성한 인물이다.⁶ 김록은 성균관 진사와 장릉(莊陵, 영월 단종의 능) 참봉을 지내기도 했다. 이목동 각곡(角谷)에 김록과 부인 영광 김씨와 합장 묘역이 마련되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목동과 파장동 일대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문중의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15세 김낙추(金



경주 김씨 묘역(이목동 산3번지)



경주 김씨 묘역(이목동 산53번지)



SUWON RESEARCH INSTITUTE 2007년 경주 김씨 이목 문중 시제

수원학연구원

樂樞)는 돈녕도정(敦寧都正), 16세 김성열이 문과급제를 하였으며,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하였다. 현재도 김록의 후손은 주로 이목동과 파장동 일대에서 문중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주하고 있다.

문중 묘역의 분포 현황을 통해서 이들의 정착과 확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목동 묘역의 위치는 각곡(角谷), 여수악(如水岳), 화산봉(花山峰), 오십곡(五十谷), 산곡(山谷), 산53번지, 산3번지, 능곡(陵谷), 첩성곡(帖星谷), 첩정곡(帖呈谷), 하촌(下村)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장동에는 파장곡, 파랑곡, 미륵동, 사근곡, 용두산, 점목점 등지에 경주 김씨 묘역이 분포하고 있다.

14세 김록이 이목동에 입향한 지 약 4대(100년)가 지난 시점에 현손인 김길상과 그의 아들은 모두 파주로 이전하였다. 이후 문중의 분포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金蠅里)와 축현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서신면 백미리와 상안리, 군포시 산본리, 이천시 장면 사곡동, 후곡(後谷), 지천곡(知川谷)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목동에 거주하는 경주 김씨는 몇몇 본관과 반복적으로 혼인을 맺는데, 전주 이씨,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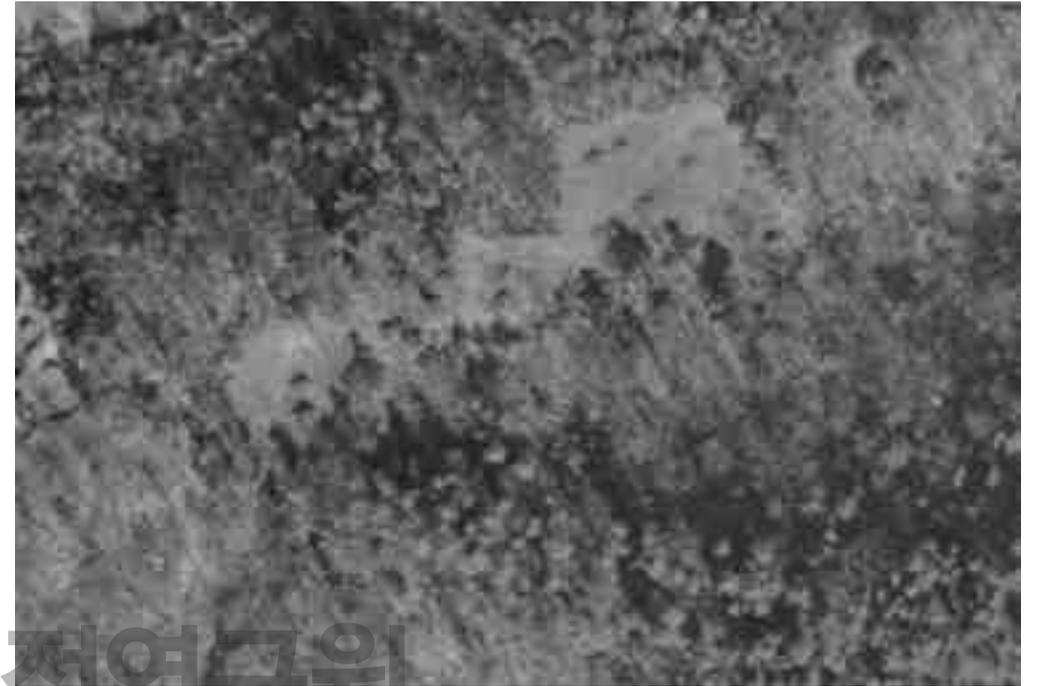
2007년 경주 김씨 이목문중 기제 진설

양 박씨, 안동 권씨, 나주 정씨, 하동 정씨, 파평 윤씨 등이었다. 김록의 후손 중 진(鎭)자 향렬 후손까지를 본다면 전주 이씨와 혼인이 제일 많았으며, 이목동에 세거하고 있는 강릉 유씨와 남양 홍씨와의 통혼 사례로 일부 확인이 된다.

경주 김씨 이목동 문중은 '시제(時祭)'를 고정일로 정해 두지 않고 있다. 세일사(歲一祀, 時享)는 해마다 토요일 중에서 날짜를 택해 1년에 한 번 시행하며, 기일제사와 달리 후손은 누구나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강릉 유씨의 입향과 정착

강릉 유씨는 17세기 중후반에 이목동으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화성시 우정읍이나 봉담읍 하가등리에서 이주해 왔다. 강릉 유씨는 고려시대 유전(劉鋹)을 시조로 하고, 거창계와 강릉계로 구분된다. 이중 강릉계 일부가 경기도 양주군과 화성시 우정읍을 거쳐 일부가 수원시 이목동에 정착하였다.



강릉 유씨 묘역(이목동 산59번지, 1995년)

수원시정역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화성시 우정읍으로 이주한 이들은 강릉계 좌랑공 유계주(劉繼周)의 직계 후손들로 유현(劉賢)-유한명(劉漢明)-유관(劉寬)-유홍서(劉弘緒)-유찬선(劉纘先)-유만흥(劉晚興)-유만응(劉晚應)-유만기(劉晚寄)-유만희(劉晚喜)로 이어지는 계열이다. 이중 유만응이 화성시 봉담읍 건달산(乾達山) 세곡리로 이거하였고, 장자 유만흥의 아들 유상우(劉相愚)가 인근 우정읍 떡우리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확산과 묘역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중 유만응의 손자인 유태갑(劉太甲)과 유태방 형제가 수원시 이목동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유만응의 넷째 아들인 유상우(劉相佑)는 아들이 없어, 유태갑과 유태방 형제를 양자로 들였다. 그런데 양자로 온 유태갑도 아들이 없자, 유태방을 다시 양자로 들였고, 유태방의 장자 유석하에게 손(孫)을 잇게 하였다. 유석하는 두 아들을 두었으며, 유태방의 차자 유석진이 후손이 없자, 유석하의 둘째 아들을 유석진의 양자로 입적하여 파를 이어갔다. 유태갑과 유태방 형제가 이목동에 정착하면서, 조부 유만응의 묘역을 이목동으로 이장하였다. 유만응은 원래 봉담읍 건달산 세곡리에 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되어 있었는데, 그 묘역을 이목동 산59번지로 이전한 것이다. 이로써 이목동에 강릉 유씨 문중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강릉 유씨 묘역(이목동 산13번지, 이목동 산1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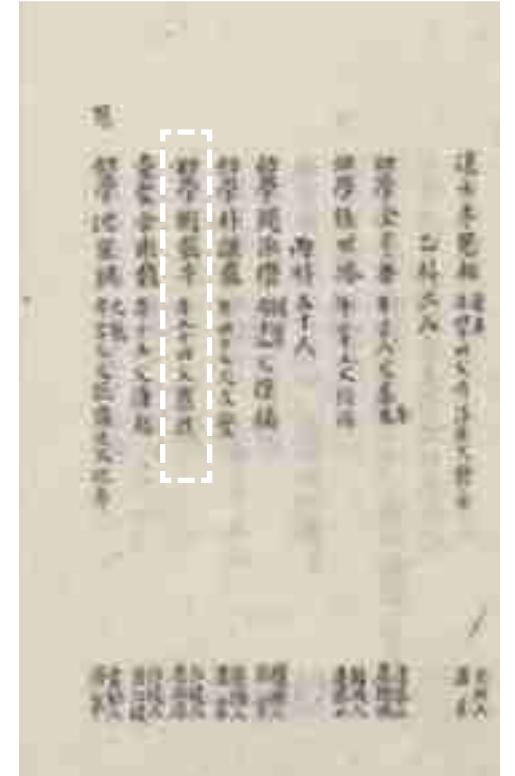


강릉 유씨 유재남의 묘역(이목동 산14번지, 유명식 제공)

SR

수원시 장안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강릉 유씨 주요 인물의 이력을 살펴보면 유병직(劉秉直, 1812~1895)이 통정대부행선공가감역가선대부돈녕부도정(通政大夫行繕工假監役嘉善大夫敦寧府都正)을 역임하였다. 유재두(劉載斗, 1856~1934)는 1889년(고종 2) 12월 18일에 실시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1895년 1월에 행사간원정언(行司諫院正言)에 올랐다. 이에 따라 유병직의 아버지 유이원(劉彝源, 1776~1857), 유재두의 아버지 유정렬(劉鼎烈, 1834~1887)이 수직통정대부(壽職通政大夫)로 가자(加資)되었다. 수직통정대부로 가자된 사례로는 유광렬(劉光烈, 1823~1899), 유재정(劉載鼎, 1848~1909)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 수직(壽職)은 조선시대 노인에게 제수하던 산직(散職)으로, 지방관의 부친으로 70세 이상 된 자에게 매년 초에 가자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유정렬의 경우 53세에 사망하였는데도 임명된 사례로 보아,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문과 급제자 명단을 기록한 「국조방목」(권13)에 기재된 유재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제공)

註

1.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1월 2일 임자. “대상왕의 공인 화의 응주의 사위 홍귀해를 우군 부사직에 제수하다.” 「홍씨 무관묘역, 홍하명(洪夏明)홍우택(洪禹澤)홍우구(洪禹龜)」(<https://oldml2xhd.tistory.com/15920372>).
2. 「무공(武功)으로 가문의 성세를 이룬 명가(名家)」, 『용인신문』 2007년 2월 1일.
3. 「무공(武功)으로 가문의 성세를 이룬 명가(名家)」, 『용인신문』 2007년 2월 1일.
4. 홍하업과 홍하서는 홍유량의 측실 소생으로 묘역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홍하업은 3형제를, 홍하서는 4형제를 낳았다.
5. 「죽전·신갈 일대 세거 지역사회 중심씨족 “경주 김씨”」, 『용인시민신문』 2021년 8월 11일(<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32>).
6. 「경주김씨갈천공파보(진)」.



문서 이데올로기와 이목동 '산지기 문서'의 주인 찾기

SRI

수원시정원박물관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 '무리한 청탁'

이 글은 본래 수원시 관내인 이목동(梨木洞)의 어느 집안에서 전해 오던 고문서 단 3점을 그 동네의 현실과 관련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원학연구센터에서 고문서 연구자인 내게 전화를 걸어 이목동에서 거주해 온 고 김인기 선생님 집안에서 120년 전쯤부터 소장해 왔던 성책 고문서 2점과 배지(牌旨) 1점이 있으니 이 문서들과 연관된 이 마을에 관한 일을 집필해 주겠느냐는 첫마디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다지 큰 부담은 없었다. 이전에 양반의 선산 경영과 관련된 논문 서너 편을 쓴 적이 있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믿었던 탓이다.¹ 이윽고 가볍게 이어지는 전화기 저쪽의 말에서 이 연구가 그저 조선시대 양반 신분 일반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영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도 아니라는 것(이것이 일반 시대사가 아니므로)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쪽에서의 관심은 순전히 이목동이라는 구체적인 현장(place)에 모여 있었고, 이 글이 실릴 책의 주제도 이목동에 관한 지역 연구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깊어져야 할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청탁받은 날로부터 이 문서들을 이해하기 위해 끙끙댄 지도 약간 과장하자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성과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짐작대로였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럼에도 어찌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문서들을 현실과 이어 붙이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 소장자가 누구인지 정도였다. 하지만 박물관에 이 유물을 기증한 그분은 정작 세상을 떠셨고, 이 집안도 이미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으며, 이웃 사람들의 말과 기억에만 남아 있었다. 정작 산지기

이야기를 기억하고 증언해 줄 마을의 어른은 아직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마을의 어느 누구도 이 문서에 쓰인 일들까지 기억에 보존한 일은 없었다. 심지어 이 문서들을 원래 소장하였던 집안에서조차 그런 역사에 대해 오히려 당황스럽고 의아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서들의 발급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오리무중이었다. 돌아볼수록 이 3점의 고문서만으로는 그 시대의 진실로 나아가야 할 길들이 모두 막혀 있는 듯이 보였다.

<표 1> 이목동 선산 경영 관련 문서 현황

연번	문서명	발급시기	발급자	수급자	내용	형태	크기 (세로×가로)
1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임진년 (1892) 1월	박판서택	이목동 묘직 산직들	묘직과 산직이 해야 할 일과 계전에 관한 내용	성책	33×28.5cm
2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건기	임진년 (1892) 1월	박판서택	이목동 묘직 산직들	제물과 제기의 내용과 개수 규정	성책	31.5×27.4cm
3	배지	정미년 (1907) 1월	박보국택	교관 김광식	교관 김광식에게 묘막의 가사와 춘모 5되지기 땅 허급	날장	

길이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이러한 ‘무리한 청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던졌던 그 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헤아려 보았다. 가장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보아도 어찌면 그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문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를 역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무리한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오해란 문서에 실린 텍스트의 내용만으로 당시의 현실을 직접 복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철썩 같은 믿음 말이다.

하기야 지금까지 고문서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그런 길을 좇아 왔다. 고문서에 기입된 문자들을 확실성의 원천으로 간주하려 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 확실성의 근거를 구성하여 그로부터 모든 해석을 출발시키려는 오늘날 과학 연구에서 실행하는 접근방식과 흡사하다. 이러한 확실성의 근거에서 출발하려는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고문서에 기입된 내용들을 사실을 판정하는 기준이자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고문서에 기입된 것은 결코 과거에 실재하였던 사실이 될 수 없을뿐더러 더욱이 1차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면 2차적, 3차적일 수 있는 가공품이다. 이를 이른바 때 묻지 않은 1차 사료로 간주하는 한, 이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미 구축된 추상적인 수준의 굳건한 정리를 그 문자의 위로 불러와서 위에서 덮어씌워서 동어반복의 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할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표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건기」 표지 (수원박물관 제공)



수 없다. 이는 결국 문서와 현실을 말과 사물에 각각 배당하여 분리시킨 뒤에 분리된 이것들을 다시 맞추어 가늘게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다.²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계기에 의해 이어 붙여진 연쇄로 이루어져 있는 각 문서의 내용들을 맥락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고문서도 그 지위 자체가 달라진다. 현실을 비추는 초월적인 거울이자 확실성의 근거라기보다는 이 역시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같은 사회관계의 현실에 참여하는 불완전한 구성물에 불과하다. 문서 역시 사람과 물품을 포함한 다른 것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물론 전화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적은 없지만 고문서를 통해 이목동에서의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고문서에 대한 지위부터 재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고문서들이 과거 문서로서 유통되었던 당시에 이목동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수행하고자 하였던 선영 관리를 위해 사람들과 물건들이 얽혀 있는 방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의 임무인 듯하다. 물론 이것은 고문서를 당시의 현행하는 문서로 번역하는 고난도의 일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한 문자 복원이나 문장 해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고문서는 관찰하고 입증하는 맥락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발급자는 이 고문서들을 통해 전에 없던 산지기 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자 하였고 제사 음식들을 생산하려 하였다. 무엇보다 이 고문서와 주어졌던 돈 100냥, 제기들, 제

사 음식들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한 것들이다. 이 명령을 받을 묘지기와 산지기들도 이 현상을 함께 만들어낼 요소들이다. 이 중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다.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만약 결여되어 있다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늘 위기에서 간신히 버텨 나간다.

2. 방법의 이상

이 과제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는 고문서의 일반 정의에 비추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비교적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발간한 한국의 고문서 개론서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한국고문서입문』에는 고문서의 성립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문서를 주고받는 쌍방(발급자와 수취자)이 존재해야 하고, 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명백히 과거에 생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명확히 고문서라고 칭할 수 있다.³

위의 글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쌍방이 존재해야 하고, 문서를 통해 표시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라고 한 것은 결국 발급자와 수급자 쌍방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각자의 해석체가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석체는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소쉬르와는 다른 계보의 기호학을 발전시킨 찰스 샌더스 퍼스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지만 퍼스에게 “기호는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가 결합한 3항 구조이다. 표상체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상이다. 그것은 반드시 상징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름은 비가 올 징조다. 대상체는 기호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이다. 해석체는 일종의 아이디어나 효과, 해석, 인간 또는 기타로 형성된 부호의 의미 또는 결과이다.”⁴

그에 앞서 발급자도 수취자도 문서에 포함된 수많은 기호들이 그런 기호임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신호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신호등이 기호로서 작동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문서의 발급자가 수급자에게 전달되어 발신과 수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 사이에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복잡해 보이는 신타래처럼 보이는 문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문서 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서 작용은 기호 작용(signification)의 일종으로 문서를 기호로 이

해한 것이다. 기호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찰스 샌더스 퍼스가 “기호가 기호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호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이 논의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⁵

이는 기호 물품의 일종인 문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문서에서 어떤 부분이 기호로 작동하는 것일까? 이것은 문서에 실린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판단하는 데 첫인상을 따지는 것과 유사하다. 물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교훈도 널리 퍼져있음에도 대개는 관행적으로 말을 섞어보기 전에 선입관에 의해 7할 이상을 결정하고 대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것이 외관상 정당한 문서로 인정받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문서가 문서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문서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문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호가 기호로서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미 망각된 문서가 작용하였을 당시의 작용을 연구해야 할 별도의 필요가 발생한다. 이것은 문서를 통한 문화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행하는 문서에 관한 것이지만 고문서 연구에 대한 조건은 아니다. 위의 고문서 조건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명백히 과거에 생성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거나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문서의 조건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고문서에서는 현행 문서와의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 시기가 과거라는 점만으로는 사실상 그 과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이 과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석체가 더는 작용하지 않아서 문서 작용이 멈추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 실재하였던 문서 작용이 멈추었을 뿐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망각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점이 고문서 연구에 대한 필요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어쩌서 고문서 연구가 문화 연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된다. 만약에 그 고문서를 오늘날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문자 번역 정도로 제시되면 그만이지 이것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문서 연구의 필요조건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미 생명력을 잃은 고문서를 그것이 문서로서 문서 작용을 하였던 살아있던 당시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 문서를 처음 생산하고 소비하였던 사람들이 이 문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의도나 현실적인 효과가 성공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문서는 다른 종류의 글들과는 달리 현실과의 연관성이 매우 직접적이다. 손에 들려 전달되던 그 문서는 망치나 톱과 같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 어떤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고문서를 그러한 번역 없이 사회문화적 의미에 접근하여 무매개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오히려 고문서는 연구자가 처한 환경에 오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문서를 한문이나 초서 등 문자상의 난점만을 번역의 문제로 거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그 번역이란 문서라는 물품 그 자체를 사회문화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고문서 텍스트의 번역은 결코 단일한 형태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사실 고문서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에서 '무릎 밑'이라는 말을 전한다고 해보자. 이 말은 성인 남자와 어린아이가 그 문구가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실재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 그 말이 가리키는 현실에서의 위상은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의 실제 길이가 현격히 다른 것과 같다. 이 고문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들은 현실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무하다면 그 기호는 현실과 격리되어 또 다른 기호를 가리킬 뿐이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인 제도나 통념을 가리킬 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산지기를 통제하여 선영을 운영하는 문서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유독 끄는 것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 이 문서가 매개가 되어 소장자 집안뿐만 아니라 이 문서들의 발급자인 박판서택(혹은 박보국택), 그리고 이목동 인근의 산지기 등의 사람 등과 무엇보다도 선영 그 자체와, 장소가 얽혀 들어간 시공간적 의미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문서 이해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너무 심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고문서에는 현행하는 문서와는 달리 선천적인 결여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망각을 운명이나 현실로 인정하면 훨씬 더 관용적이 된다. 마치 전혀 다른 문화에서 이방인으로 찾아온 어느 문화 인류학자가 다른 지방의 문서에서 흔히 느끼듯이, 자기 문화에서 문서에 대해 작동하는 해석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듯이 고문서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해석체가 망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역시 다른 문화권의 어떤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 경험 등 여러 요소가 필요로 하듯이 잊힌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서 그 자체에 적힌 문자의 해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출생의 한계 혹은 타고난 인간 능력인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어쩌면 문화 연구의 필요도 생기는 법이다. 그 인상이 잘 연결된 이야기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문서 이데올로기

고문서는 문자로 실린 텍스트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뿐 아니라 문서 그 자체를 구성하

는 물질로 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고문서의 표지만 해도 벌써부터 저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을 걸어오고 있지 않은가. 실은 이 고문서가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것은 아니다. 말을 알아들을 법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말을 건다. 교통신호등의 빨간·초록·노란 불이 기호로서 말을 거는 경우는 그것을 기호로 알아보는 특별한 사람에 한정된다. 사실 그는 언제 어디선가 교통신호등의 체계에 대해서 조건반사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 따라서 아마도 지금보다는 당시에 이 문서는 비할 수 없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거는 것을 기호효과 혹은 문서효과라고 말하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다름 아닌 해석체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석체는 어느 사람이 모든 기호를 체험하는 데에는 이전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호인 문서도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에 대한 선입견을 주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에 그다지 좋은 뜻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문서들의 형태나 형식, 내용에 이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서 이데올로기라는 명명이 그렇게 그릇된 것은 아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개념은 꽤 계보가 길다.

가장 먼저 미국의 언어학자인 실버스틴의 언어 이데올로기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⁶ 물론 그는 이 말에 어떠한 부정적인 뜻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를 기호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이는 웹 키인이다. 그는 “기호란 무엇이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전제”라는 개념으로 변모시켰다.⁷ 언어를 기호로 확장시킨 것이다.

다시 대상의 범주를 더 확대한 매튜 헬은 도상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도상이데올로기는 “사용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도상품에 대한 일련의 관념들로서 어떤 물건이 물질로서 갖는 특성이 유의미하게 기호로 여겨지는지, 어떤 행위자가 그 특성에 관여되어 있는지(또는 관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도와 물질적인 인과관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포함한다.”⁸ 다시 말해 매튜 헬은 기호에서 도상(graph)으로까지 이데올로기 개념을 확장시켰다. 기호 작용이 기입된 텍스트뿐 아니라 도상품(graphic artifacts) 전체가 된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꼼꼼히 읽거나 독해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형태에 대한 선입관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배곡히 적힌 보험약관을 읽고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드물며, 아스피린의 몇 페이지에 걸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복용한다. 이 모든 것이 문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서야말로 전형적인 도상품이며 여기서 문서 작용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기반을 문서 이

데올로기에서 찾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였다.

더욱이 이 문서의 생김새는 처음부터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통시대에 흔히 사용하는 고색창연한 종이에 한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정하게 당시에 썼을 것임에 틀림없는 글씨가 먹색이 투명하고 뚜렷하며 게다가 관인(官印)과 흡사한 정방형의 인기가 역시 관청문서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월과 일 사이에 찍혀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형식이나 규격이 관문서와 흡사하다. 하지만 정작 이 문서는 관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발급한 사문서이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인상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어쩌서 사적인 용도로 발급한 문서가 국가에서 발급한 것인 척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관문서가 아니므로 굳이 위조할 명분도 없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표 1〉에서 소개한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의 성책 고문서 안쪽에 있는 형태적인 혹은 심미적인 특징부터 알아보자. 이때 성책 고문서는 문서의 내용이 낱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면 십수 장 이상으로 나누어 적어 책 형태로 만든 문서를 말한다. 실제의 성책 고문서들은 사실상 이와 같은 기능적인 면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문서와 유사하다는 권위를 부여해 준다.

이 문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5장은 임진년(1892년)에 작성한 것이고, 그 뒤에 이후 계사년(1893)과 정유년(1897)에 작성한 것이 부록되어 함께 묶여 있다. 추가로 수록된 부분과 기존 절목은 이름도 ‘계사추절목(癸巳追節目)’, ‘정유추절목(丁酉追節目)’이라고 붙여 ‘계사년에 추가된 절목’, ‘정유년에 추가된 절목’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내용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며, 오히려 이와 같이 추가로 붙이는 관행은 성책 고문서가 갖는 특징이자 이용상의 장점이다.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와 같이 추가된 부분은 형식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임진년절목은 매장마다 3개 이상의 인서가 찍혀 있는 반면, 추가된 절목은 인서가 찍혀 있지 않고 종이의 재질과 색상도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성책 고문서는 ‘임진년절목’, ‘계사추절목’, ‘정유추절목’ 3개의 절목이 합쳐져 이루어진 문서이고, 형식상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었다. 이는 더는 규정상의 큰 변화가 없이 변경된 규정이 지속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절목의 규정들이 더는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문서에는 너무나 이상하면서도 중대한 특징이 있다. 문서는 발급자가 박판서택이고 이 문서를 수급받은 사람들이 이목동의 산지기나 묘지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문서 분류로 보자면 사인(私人)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형태는 얼핏 보면 관문서로 착각할 정도로 관문서의 형태와 형식을 띠고 있다. 관문서에서 주로 사용하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계전 절목」 제1면(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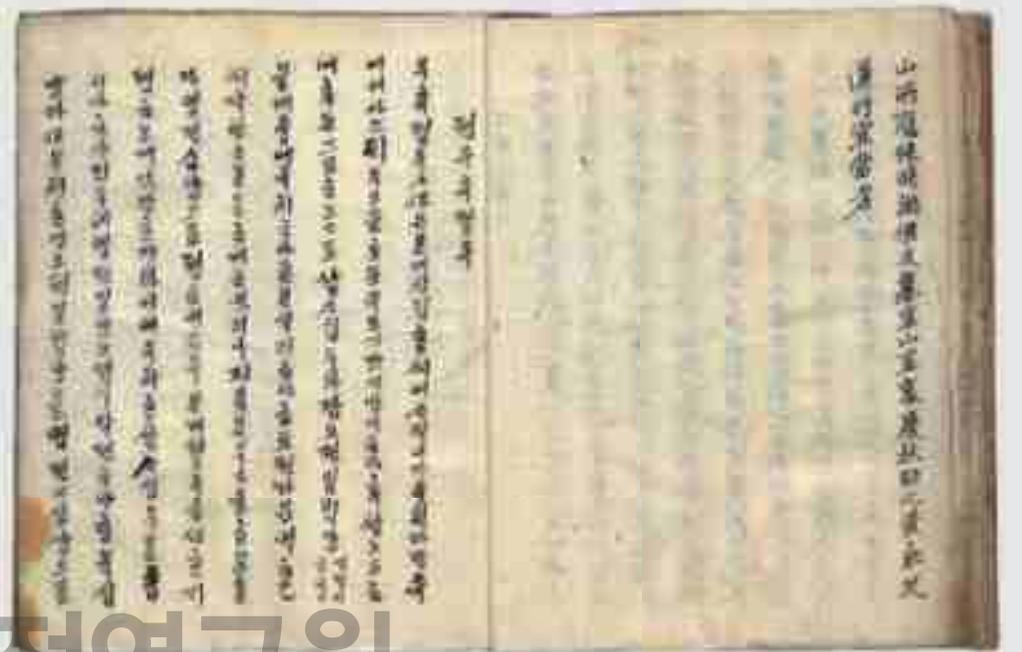


임진년절목(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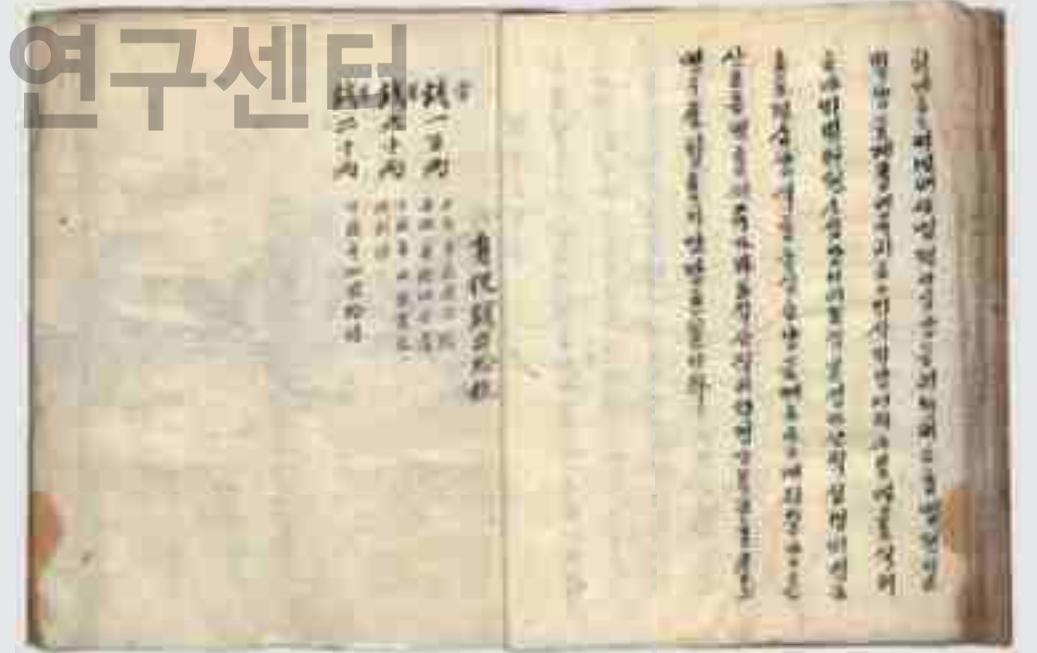
계사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정유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정유추절목(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곤 하는 노란색 표지, 정방형의 붉은 인기(印記)들이 문서에 몇 개씩 정렬되게 찍혀 있는데, 홀수 개로 찍혀야 한다는 규칙과 표지에 한 개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엄밀히 찍혀 있으며,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경우 줄을 바꾸어 가장 위칸에 배치하는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대두의 대상이 '산소(山所)'였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소가 존엄의 대상일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주로 대두법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례는 주로 왕을 포함한 존대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예외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다른 절목에서와 같이 한문 이외에도 언문으로 작성된 번역문을 그 뒤에 싣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볼 점인데, 이 번역문에서 '산소'는 역시 격자로 표기된다.

고문서 2점의 표지는 거의 같은 형식이라서 동시에 제작되었거나 개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문서의 제작 시기는 대한제국기라서 원칙으로 하자면 5침 장정이 맞을 터이지만 현재의 상태는 4침이므로 아마도 뒤에 개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인기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가 일제강점기 때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5침이었던 것을 훗날 4침으로 다시 묶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도 개장이 될 무렵 이 문서에는 원래 문서에 부여된 관문서인 척하는 요소는 사라지고 오직 기능적인 면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서에 기능적인 면 이외에도 권위를 보여 주는 심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심미적인 요소는 첫인상과 같은 것이어서 일단 권위로서 받아들여지고 나면 기능적인 면만이 남을 것이다.

반면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형식으로 생산된 또 하나의 성책 고문서인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에서는 앞의 절목과는 달리 임진년(1892년) 한 해만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묘제를 치를 때 사용되는 제물과 제기 등의 물품만 기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도 역시 매장마다 3개 이상의 인기가 찍혀 있다. 형식이 「수원 형석면 이목동 묘직산직 등 응역급제전 절목」과 흡사하다. 그 인기는 크기가 세로×가로=8×8(cm)의 정방형으로 '병조지인(兵曹之印)'이다. 이 역시 위격으로 병조가 아닌 사가에서 관문서의 형식을 흉내 낸 일종 가짜 문서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묘제를 지내는 대상이 되는 산소(山所)와 산신(山神)이 각각 1위임을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물품은 산소이다. 이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였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산소가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불과 120년 사이에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산소는 지금 어느 자리를 가리키는가? 확인된 것이 없다.

이 문서의 제목에서 수원 형석면 이목동이라고 이 문서의 수급처를 적고 있는 것으로 미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 속표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안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센터

루어 볼 때 이 문서의 발급자인 박판서대이 수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수원이었다면 굳이 수원을 쓸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그 대신 이 표지에는 '죽동(竹洞)'이라는 발급 지역과 '임진년'(1892, 고종 29) 정월이라는 발급 시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죽동은 "현재 중구 을지로2가·을지로3가·수표동·장교동·저동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대나무와 대그릇을 파는 죽전이 있어 대전골이라 하고 이를 한자명으로 죽동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⁹ 여기서 죽동이라는 지명은 배지(牌旨)에 '장교(長橋)'라고 쓰여 있는 것과 짝을 이룬다. '장교'는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명동이 관할한다. 청계천의 장통교와 삼일교 사이 구간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구 관철동과 마주하고, 동쪽으로는 수표동, 서쪽으로는 삼각동·수하동, 남쪽으로는 을지로2가와 접한다."¹⁰ 이 두 가지 지명은 거의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즉 서울이다.

교통신호등의 형태와 작동을 찬찬히 체계적으로 살피고 난 뒤에 그 불의 변화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색들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충 보는 듯하지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가차 없고 엄격한 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며 가끔은 교통신호 딱지를 집으로 통고받고 가슴 아

파하고 또는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그것을 어긴 형벌을 몸소 병원에서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이미 그것은 권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그 권위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채찍을 통해 깊이 길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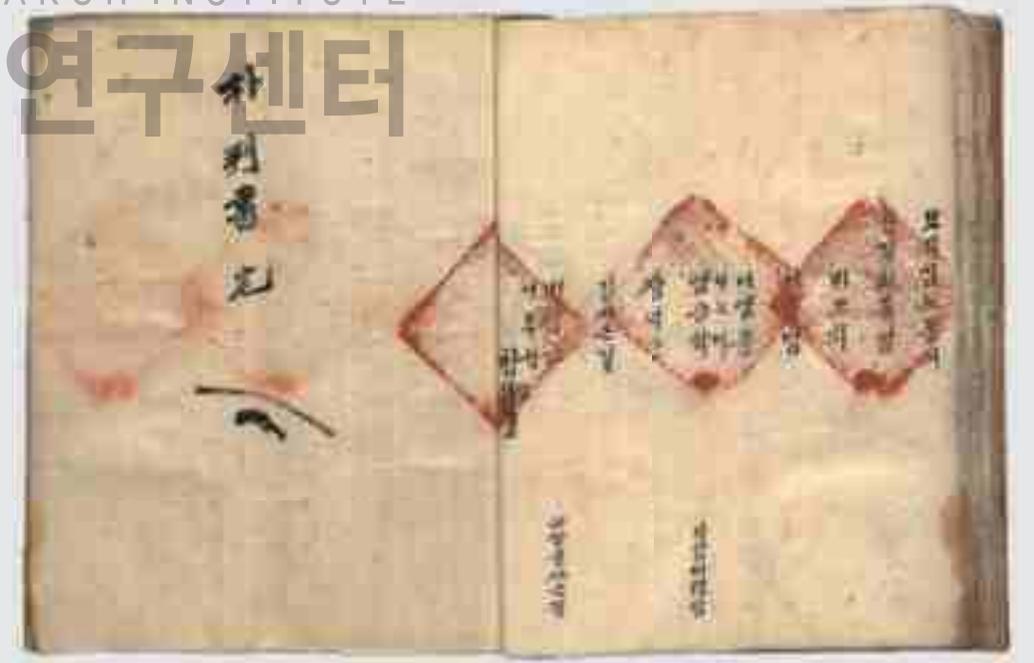
아마도 이 문서를 받은 수급자들은 이 문서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그 겉모습만 보고 우선 명령에 복종부터 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내용을 읽기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 문서들의 첫인상은 일단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명품을 손에 들고자 하고, 외모를 고치려 성형외과를 들락거리며 되도록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물품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4. 산지기의 계모임

앞서 소개한 3점의 문서 중에서 배지(牌旨)를 빼고 나머지 두 문서는 모두 2가지 언어로 쓰여 있다. 하나는 한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번역문인 언문이다. 언문은 한문을 돕는 글에서 시작하였다. 물론 오늘날 언문은 국한문 혼용을 거쳐 한글로 독립하였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보조적인 지위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한문과 번역어인 한글 두 가지 언어로 쓰는 전통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문서정책에서 기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배려한 것이다. 특히 언문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더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문과 언문의 병기는 두 언어 사용자 신분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언문은 처음에는 “어린 백성들” 위해 제정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류층 여성으로부터 그와 소통하기 위한 남성(남편이나 자식들)을 거쳐 하층민으로 퍼져 나갔을 것이다. 평민들이 언문을 어느 정도 익혔는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한문 사용자보다는 더 광범위한 신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이 문서의 제작자 측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이 문서가 노리는 언문 사용의 효과는 분명하다. 이 문서는 일차적으로 묘지기와 산지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문서의 수급자들이기 때문이다.

묘지기와 산지기는 크게 수원에 속하는 사람들과 광주(廣州) 곡사근평(谷肆覲坪)에 속하는 사람들로 나뉘는데 미륵당(彌勒堂)을 경계로 한다. 곡사근평은 광주군 왕륜면 사근평으로, 현재 의왕시 오전동 지역 쪽을 가리킨다. 수원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곧 이목동에 속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묘지기인 김노용기(金奴用己) 1명, 산지기인 최흥업(崔興業), 배도치(裴道致), 이춘명(李春明),李明俊(李明俊), 염성학(廉聖學) 등 5명이며, 이노미(李老味)는 부기



절목에 기록된 묘지기와 산지기 명단(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되어 있다. 곡사근평은 장억만(張億萬), 김자근길(金自斤吉), 배상근(裴尙根) 등 3명이며 이부성(李夫成)이 부기되어 있다. 이것은 뒤에 붙은 인원이다. 수원 쪽의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이목동 쪽의 산지가 상당 부분이고 곡사근평 쪽은 그보다 더 적은 영역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절목은 이들 인원을 조직하는 방식과, 이들을 통해 선영을 조성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 묘직은 주로 묘의 관리와 산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 시대의 선영 관리가 결코 무덤에 관련된 좁은 범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영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서원의 설립과 더불어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식적인 특권 중 하나였다. 이것은 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통용되던 관념이자 이념인 효(孝)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이것이 특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묘를 조성한다는 좁은 개념 때문만은 아니고, 묘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수되는 묘 주위의 이른바 송추권(松楸權, 소나무와 가래나무로 대표되는 토지와 결부된 조경권), 그것을 관리하는 묘지기, 산지기들의 탈역권(傾役權)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양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클수록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묘소 주위에 관할할 수 있는 영역도 커졌다. 그 영역은 조선 초기에 규정된 국조오례의에 원래 규정된 좁은 범위의 수호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풍수사상과 결합되어 좌청룡 우백호의 범주로 확대되고, 그뿐만 아니라 국(局) 내 중에서도 외청룡, 외백호의 범위까지, 급기야 그 안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장동 김씨와 같은 권세가의 경우 가묘(假墓)를 써서 어느 산 전체를 차지하는 집안도 있었다.

이러한 특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관리하는 산지기의 탈역자 수까지도 결정하는데 미쳤다. 따라서 탈역자 수도 예컨대 권별가의 경우 2~5명까지 고을 수령과의 겨루기를 통해 결정되고, 이황 종손가의 경우 10명, 송시열 집안의 경우 30명으로 각기 주장하는 수가 달랐다. 심지어는 묘촌을 형성하여 묘 아래의 고을민 전체를 군역이나 잡역의 탈역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일은 점차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라 대원군이 서원 철폐와 더불어 단행한 일이 묘촌의 탈역권 철폐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¹

그 결과 묘촌의 탈역권을 수령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게 된 유력한 양반들은 다른 방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도가 존본취식(存本取息)이다. 존본취식이란 양반가에서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이식행위를 하게 한 뒤에 본존을 보존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자들을 묘제나 선영의 관리에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장동 김씨의 경우 충청도 홍성군 성호리에 선영을 조성한 뒤에 존본취식의 방식을 택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수원의 이목동은 이와는 약간의 방법상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쓰는 데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문서이다. 문서 없이 이러한 일을 해 나가

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대개의 문서처럼 발급 목적 내지는 사유를 가장 앞장 첫머리에 제시하였다. 이것을 기두사라고 하는 데 이 문서에서는 조금 길다.

위의 절목을 작성하는 일은 묘직과 신직들이 산소에서 역에 응하는 것은 대단히 많고 번거로워서 순산(巡山)·제초(除草)·식목(植木)·산역(山役) 외에도 다른 허다한 일을 하여 일일이 거론할 수 없으니, 자신의 뜻을 보여 주는 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중략) 산소에서 응역할 때의 슬값이고, 또 묘직 산직의 애경 부조의 일을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¹²

이와 같이 이 문서는 처음 발급되었던 1892년에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을 묘지기 및 산지기에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절목을 통해서 박판서택과 묘지기 및 산지기들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취한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서의 발급자이자 명령자인 박판서택에서 특별히 당오전(當五錢)으로 100냥을 내는 한편 묘지기 1명과 산지기 8명으로 하여금 계를 설립하게 하여 본존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만 취하는 존본취식(存本取息)의 방식으로 얻은 이자를 계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다.
- 2) 구체적으로 하면 묘지기 및 산지기의 호포(戶布)와 제사에 쓰이는 각종 주가(酒價)와 노비(路費), 그리고 그들의 애사(哀事)와 경사(慶事) 시 부조금 등을 충당하도록 한다.
- 3) 한식(寒食)과 추석(秋夕)의 두 절사(節祀)를 여러 산지기가 새벽녘에 의관을 갖추고 모두 도착하여 거행하고 제사를 끝난 뒤에 돌아갈 것을 고한다.
- 4) 매일 산을 순시하며 여러 산직들은 순산패(巡山牌)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거행한다.
- 5) 처벌 규정은 계전(稷錢)을 분급할 때 반드시 세 명의 보증인을 받고, 흑시 기한을 넘기고 갚지 않으면 계임(契任)이 본택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려서 받아낸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직의 임무는 대체로 “순산(巡山)·제초(除草)·식목(植木)·산역(山役)” 등의 일이다. 순산은 하루에 한 번 돌아가면서 산을 순행하면서 감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때마다 순산패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이목동의 현실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누가 무덤에 제사를 지냈을까? 절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은 묘지기 및 산지기의 일이다. “한식과 추석 두 절사는 여러 산직이 새벽에 의관을 갖추고 모두 도착하여 거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지기들의 신분과 관련된다. 이들은 최소 의관을 갖추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우선 여기에 제시된 산지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수원박물관 제공)

묘직과 산직에 대한 응역 규정(수원박물관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물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기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제기 발기(수원박물관 제공)

의 인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명이다. 이 숫자는 산지기들을 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최소 호수이다. 다시 말해 상여를 질 수 있는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마을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기 때문이다.¹³

절목에 따르면 이들은 호포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애사와 경사를 치르는 주체이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만으로도 생활적인 자립을 전제로 한 자율적인 집단으로 구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판서택에서는 오늘날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 집안의 묘소 1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묘지기과 산지기의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영원히 대리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이 주제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관(官), 다시 말해 관할지역 수령의 개입 여부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서울에 있던 양반 집안이 그 지역에 부재할 경우 이와 같이 존본취식의 방식을 택하고 그 결산을 봄과 가을 2번의 계회에서 시행하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필요한 힘을 그 지역 수령의 공권력에 기대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존본취식에 필요한 강제력을 관에 고지하여 수령의 권력에 이용하는 대신, 계임(契任)이 본택인 박판서택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두드러진다.

이 제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수원 형석면 이목동 제물급제기 발기(件記)」에서 대충의 절차와 규모는 짐작해 볼 수 있다. 항목은 크게 제물과 제기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두 상을 차리는데 하나는 묘제상이고, 다른 하나는 산신상에 차린다. 제물(祭物)과 제기(祭器)는 <표 2>와 <표 3>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2> 제물(祭物) 발기

제물	내용
병(餅) 1그릇	쌀 5되, 적두대미 병입 송병(松餅) : 위의 떡은 약간 작게 만든다.
면(麵) 1그릇	
밥 1그릇	쌀 1되 산신의 경우 없다.
국 1그릇	소고기, 포태(泡太, 두부)
육탕 1그릇	소고기, 미역, 청근(菁根)
어탕 1그릇	한식에는 저합(芋蛤)을 쓰고 추석에는 북어 2마리
간남(干南) 1그릇	전유어(煎油魚) 2마리, 소고기, 계란 5개
육회(肉膾) 1그릇	콩팥 혹은 천엽
포 1그릇	3조
식해 1그릇	쌀 1되
해(醢) 1그릇	백하해(白蝦醢) 산신의 경우 없다.
좌반(佐飯) 1그릇	조기 2마리
적(炙) 1그릇	닭 1마리, 한식, 추석
침채(沈菜) 1그릇	청근(菁根), 근(芹) 숙채 소용
숙채(熟菜) 1그릇	청근, 초자근
산자(散子) 1그릇	20립
과(果) 4그릇	생울(生栗) 1그릇 30되 대조(大棗) 1그릇 1되 5홉 혹은 생리 10개 건시(乾柿) 1그릇 한식에는 건시 2곳, 추석에는 생리 10개, 생시 10개
청장(淸醬) 1그릇	
조장(醋醬) 1그릇	
술 1잔	대미(大米) 1되
참기름	
산소 1위	한식에는 백미 9되, 추석에는 백미 9되
산신 1위	한식에는 백미 8되, 추석에는 백미 8되
도합	한식에는 백미 1말 7되, 추석에는 백미 1말 7되 양 절기 합계 쌀 3말 4되

<표 3> 제기(祭器) 발기

제기	내 용
유발이(뒹개) 1좌	국그릇(뒹개) 1좌, 잔(대) 1좌, 대접 1좌, 시저 각 1건, 남저 1건
철석쇠 1건	
사향로 1좌	향합 1좌, 제주병 1좌, 잔(뒹개) 1좌, 탕기 4개(면기 1, 탕기 2, 곰탕기 1), 접시 17개(과접시 4, 해접시 1, 회접시 2, 소접시 2, 포접시 1, 공접시 7), 보아(浦兒) 2개, 종자 5개(청장종자 1, 초장종자 1, 계자종자, 1, 생청종자 1, 공종자 1)
목편기 1좌	계상 1좌, 가자 1좌, 목판 1건
제기축통 1건	
제물행담 1건	
배석 1위	
좌면유지 2장	
식지 2장	
유둔 1건	
백목최일 1건	
목두지 1좌	
자물쇠 1건	
제상수건 1건	
사도 2병	
순산패 1건	

이와 같은 상차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문제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게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산지기를 통해 대행하고 있는 절사가 매우 풍요롭게 차려지고 있다는 것은 박판서택의 신분이 높고 위세 있는 집안이라는 방증이다. 절사는 일반적으로 추석쯤에 1년에 한 번 세일제로 가늠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식까지 챙기는 것은 이 집안의 재력과 위세를 가늠하게 한다.

다시 이 문서를 통해 이와 같은 존본취식으로 산지기 계를 통해 선산 경영을 유지하는 체제가 실시된 이후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존본취식을 하는 기록장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을 뿐 매우 단기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역전출급전(身役錢出給狀)’에는 임진년(1892년)과 정유년(1897년) 단 2년의 기록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박판서택에서 다시 발급한 배지 1점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듯하다.

5. 고문서의 주인 찾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문서는 1907년에 생산된 「배지(牌旨)」이다.

배지(牌旨)

다름이 아니다. 수원 형석면 이목동에 있는

묘막의 가사 15칸과 가대(家垜) 춘모(春牟) 5되지기(升落只) 곳을

묘지기 김아(金雅)에게 영원히 주니, 일후에 만일 시비하는 폐단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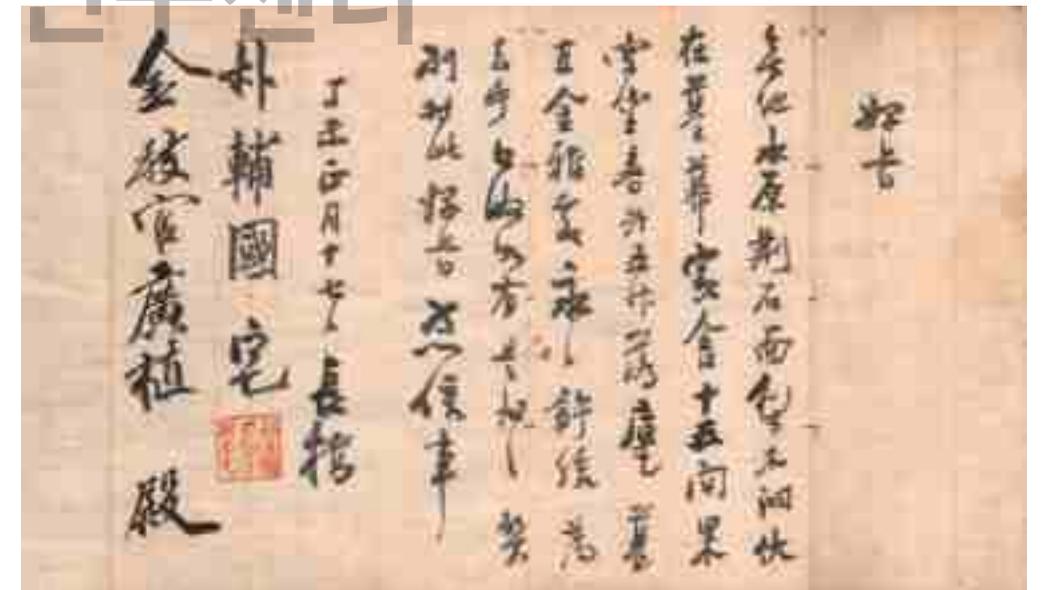
이 배지를 가지고 증빙할 것임

정미년 정월 17일 장교(長橋)

박보국택 [박보국택신(朴輔國宅信)]

김교관광식(金敎官廣植) 전(殿)

배지는 통상 양반이 토지 매매를 할 때 노비나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에는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 박보국택(朴輔國宅)에서 교관(敎官) 김광식(金廣植)



1907년 「배지」(수원박물관 제공)



박보국택신(朴輔國宅信) 인영

에게 묘막의 가사(家舍)와 매년 춘모(春牟) 5되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의 땅을 허급해 주고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대항 권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빙문서이다. 이 쯤 되면 배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 양반 집이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직접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대리자에게 보증하면서 발급한 일종 에이전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여한 물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할 목적으로 한 증빙문서라고 개정해야 한다.

이 문서의 존재는 형식에서 조선시대 문서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殿’이라는 일본식 표기를 쓴 것 이외에도 말미에 발급자와 수급자를 동시에 쓰고 있다. 이 문서를 통해 ‘위에서 묘지기와 산지기로 구성된 계를 결성하여 존본취식에 의존하는 체제가 그사이 와해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배지의 수급자인 김광식은 이 문서들의 기증자인 고 김인기(金麟基, 1915~2013) 어르신의 작은할아버지이다. 김인기의 본관은 경주이고, 선조 대부터 이목동에서 세거하였다. 한 마디로 이 마을 토박이 중의 토박이이다. 선조의 묘소들도 이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런데 박판서택의 선산 경영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역시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묘지기의 신분에 변화가 보이기 때문이다. 지면상으로 종(奴)의 신분이었던 묘지기가 여기서는 교관(敎官)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관은 대체로 향교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는 동몽교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현실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전에 ‘김노용기’로 표기된 사람과 김광식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것을 분명히 규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아 있지 않다. 김노용기가 김광식 집안 아래에 있던 사람일 수 있고 혹은 김노용기를 대신하여 김광식 집안이 새롭게 대신한 사람일 수 있다. 묘지기가 묘제를 거행하는 사람이므로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는 가능한 한 되도록 신분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오히려 김인기 선생의 습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습관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광식 묘막 추정지(“임야조사부”, 이목리 산19번지)

SR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김인기 응은 1930년 수원공립보통학교(신평초등학교의 전신)를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 농과대학 전신) 부설 실업보습학교에 진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원군 반월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이후 경기도 지방산림주사와 서울대 농과대학 임업기사로 근무하였다. 1970년 정년퇴임 후 20여 년간 고향 이목동에서 개인농장인 청은농원(靑隱農園)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아쉽게도 농원을 정리하고 정자동으로 이사하게 되었다.¹⁴

그의 일생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는 기록정신 혹은 문자정신이다. 본인이 기록하고 또 기록된 것을 모으는 습관이 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지만 강한 습관은 사실상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일종 집안 내력과 직업을 통해 생겨났을 것이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이 마을에 자기 선조들을 대대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집안이 유학(幼學)으로 자처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분적인 현실과는 별도로 자기 집안의 자존성을 별도로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문서에 표기된 ‘교관(敎官)’이라는 직명이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발급자도 그를 대우하여 ‘김아(金雅)’라는

다소 높은 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배지에서 형태상 눈에 띄는 것은 ‘박보국택(朴輔國宅)’이라는 택호와 그 아래에 찍힌 붉은색 인기(印記)일 것이다. 이 배지에도 다른 문서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권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기 집안을 나타내는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보국택이라는 택호 아래에 자기 집안만의 성함을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박보국택이 과연 어느 집을 가리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을 구명하느라 이 글이 늦어졌지만 아쉽게도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하였다. 보국이란 보국승록대부를 받은 집안을 가리키고, 보국승록대부는 문산계 중에서 정1품 하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1품의 벼슬을 받는 집안은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죽동에 사는 박보국택으로 한정한다면 이 집안을 지칭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였다.

박판서택이 현실적으로 어느 집안인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우연히 의왕시 오전동에 살았던 반남 박씨 집안의 사손인 분과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매우 신빙성 높은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박보국택이나 박판서택이 자기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어려서부터 보국택이라는 지칭은 가끔, 박판서택은 매우 익히 들으셨다고 한다.

덧붙여 자기 집의 경지가 이 문서에 표기되어 있듯이 죽동(竹洞)이었다는 증언도 아끼지 않으셨다. 자기 경지의 옆집이 대구 서씨인 서유구 집안이었다고 하며 자기 집안의 당색은 소론이었다는 말을 해 주었다. 박판서택이라는 택호는 어디서 유래했냐는 질문에 이때 박판서는 호조판서를 역임한 바 있는 박사수(朴師洙, 1686~1739)를 가리킨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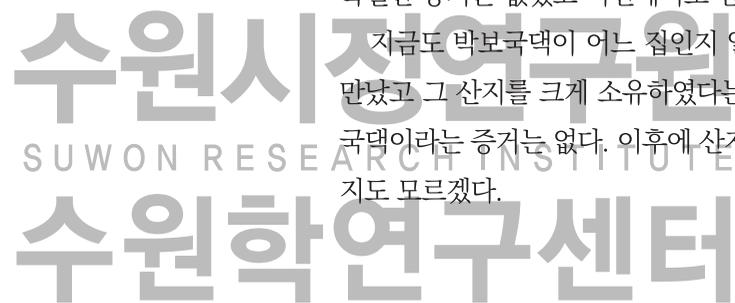
그런데 이 문서들을 메일로 보내어 보여 드리자 박 선생님은 매우 의아하다는 태도를 보이셨다. 자기 집안의 선산을 자신이 몰랐을 리 만무한데 오전동이나 이목동에 자기 집안의 선산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집의 묘역은 현재 의왕시 백운저수지 인근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증언이었다. 문서로도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문서들의 온 것은 모두 서울이었으므로 굳이 가까운 곳에 사는 주인이 그런 번거로움을 일삼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박 선생님 집안의 서자들이 본손을 참칭하여 이권을 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박 선생님은 말을 이으셨는데 아버님이 서자 집안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가르침을 따라 항상 잘 지냈다고 한다. 지금 그들의 소식을 묻자, 소식을 끊고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 절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고문서가 본손 모르게 박대감택을 사칭한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박 선생님 말씀은 이 문서의 글씨가 본손 집안사람들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목동을 포함한 인근이라면 박대감택의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망족(望族)이라면 이름만으로도 행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묘주가 굳이 누군지 밝히지 않더라도 서족(庶族)으로서 이윗한 본손인 박대감택을 무난히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코 이들이 자신을 이 집안사람이라고 자처한다 하여도 사실상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모자란 것도 아니다. 다만 본손 집안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서족 집안들이 자신의 선산을 자기 선산 그 너머 지역에 조성하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문서를 통해 알아차렸다는 사실에서 매우 당황스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반남 박씨 집안에서 박보국택으로 일컬을 수 있는 또 한 집안을 꼽았다. 박정양 집안이었다. 그 집안의 묘소가 과천에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토지조사부』에 등장한 일제강점기에 수원면장을 역임한 1865년생 박세양(朴世陽)에게 주목하여 박정양 집안과 한 집안으로 놓고 보고자 하였지만 이분이 박정양 집안에 속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지번에서도 산을 소유한 전력이 없었다.

지금도 박보국택이 어느 집인지 알 수 없다. 인근 산에 올라 함양 박씨의 어느 분 묘표를 만났고 그 산지를 크게 소유하였다는 말을 이웃한 주민에게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집이 박보국택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후에 산지 소유의 이력을 좀 더 조사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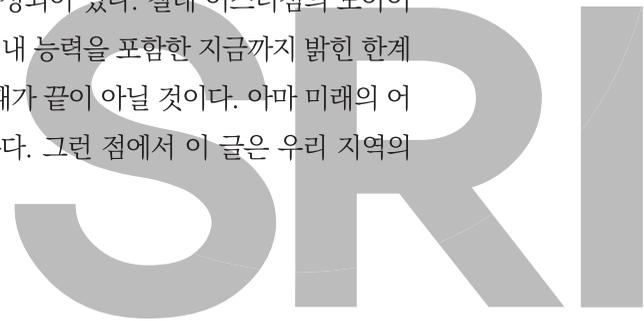
6. 맺음말

이 글의 청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처음부터 무리였다. 무엇보다 제시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적었다. 이 고문서 3점 외에 이를 이해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삼을 만한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증거로서의 글을 뜻하는 문(文)은 물론이거니와 증인을 뜻하는 헌(獻)도 남아 있지 않았다. 오늘날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 이목동 아랫마을 지나 아파트촌이 되는 것을 간신히 면하고 근대화의 풍상을 이겨내며 여전히 많은 토박이가 그대로 살고 있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윗말로 들어가 보더라도, 이런 곳에서 어떻게 불과 백 년 전에 이 같은 산지가 이야기가 생산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해 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 문서 외에 유물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삼봉산 어딘가에 이 고문서들을 존재하게 하였던 근원이 되는 그 묘소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사실 지금도 어쩌면 파묘된 터만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

사실상 이 묘소야말로 이 모든 현상의 연기를 가능하게 하였던 물질적 근원이다. 이 묘소가 없었다면 이 같은 고문서들도, 수많은 묘지기나 산지기도, 또 그 많은 제물과 제기도, 또 한 식이나 추석 제사도, 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존본취식의 행사를 하였던 그들의 계모임도, 또 뒤에는 산지기의 집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이미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었고 문서들만 남아 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곳을 박보국택이 적극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명당 자리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문서들에 들었던 최초의 의문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어째서 하필 이 3점인가 하는 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장자가 마지막까지 이 3점을 깊이 보존하였던 까닭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3점은 1900년 그 문서가 가리키는 대상뿐만 아니라 소장자 집안의 역사와 존재를 드러내는 소중한 물품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절묘하게도 이 3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이 신기루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들, 즉 묘소, 묘소의 제사와 경관의 보존에 필요한 사람들 및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 제기와 제물 등 제사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딱 사건의 골격만 남긴 이 3점의 고문서들은 내 능력을 포함한 지금까지 밝힌 한계 때문에 성공적인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가 끝이 아닐 것이다. 아마 미래의 어느 사람이 이 문제를 푸는 데에 다시 도전하리라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우리 지역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



수원시정인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註

1. 김혁, 「안동 李庭樞 집안 소장 '墓直頃役完文'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사족특권의 성격」, 『법사학연구』 31, 2005;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원문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김혁, 「19세기 사족층의 '先塋景觀' 조성과 그 의미」,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2007; 김혁, 「18-19세기 향약의 실천과 사회관계의 변화-충청도 결성현 포구 마을 성호리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문화』 6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위의 글들에서 필자는 선영을 둘러싼, 혹은 주위 경관의 조성에 대한 권리를 서원의 건립과 경영과 더불어 양반의 전형적인 특권의 하나로 해석한 바 있다.
2. 브뤼노 라투르, 장하원, 홍성욱 책임 번역, 「2장 순환하는 지시체 : 아마존 밀림에서 흙 표본을 추출하다」, 『판도라의 희망-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휴머니스트, 2018.
3. 박성호 외, 『한국고문서입문 1』, 국사편찬위원회, 2020, 14쪽.
4. Webb Keane, "Semiotics and the social analysis of material things", *Language & communication*, Vol. 23(3), 2003.
5. Webb Keane, "On Semiotic Ideology", *Signs and society*, Vol.6, 2018.
6. Michael Silverstein,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In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edited by Paul R. Clyne, William F. Hanks, and Carol L. Hofbauer.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9.
7. Webb Keane, "On Semiotic Ideology", *Signs and society*, Vol.6, 2018.
8. Matthew S. Hull, *Government of Paper: The Materiality of Bureaucracy in Urban Pakist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12.
9. 「죽동」, 『서울지명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722&docId=405280&categoryId=43722>).
10. 「장교동」, 『서울지명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722&docId=404974&categoryId=43722>).
11. 김혁, 『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원문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2008.
12. "右節目事段, 墓直·山直輩之應役於山所, 甚是浩繁, 巡山也·除草也·植木也·山役也外, 他許多事役, 不一其端, 則不可無示意之舉, 故特出一百兩錢, 使墓直·山直設立一契, 立本息利 …… 以爲山所應役時酒價是遣, 且墓直山直之哀慶扶助之節亦不可不念."
13. 정승모, 「장례와 관련된 동계의 변화와 '유학' 계: 19세기 후반 이후의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14. 김세영, 「수원토박이 김인기 옹의 자료수집과 기록정신」,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 수원박물관, 2010, 309쪽.



근현대 이목동의 사회·경제적 변화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 한말~일제 초기 이목리 거주 호수와 성씨¹⁾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민적부』를 토대로 이목리 거주 호수를 살펴보면, 당시 이목리에는 총 55호가 확인된다(표 1).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강릉 유씨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전체 55호 중 무려 22호가 강릉 유씨로, 이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이목리에서 강릉 유씨가 사실상 집성촌을 형성하며 마을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강릉 유씨 일가가 여러 갈래로 분가하여 마을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릉 유씨 다음으로는 경주 김씨와 전주 이씨가 각각 5호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의 9% 비중으로, 강릉 유씨에 비하면 소수지만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며 마을 내에서 존재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흥 민씨가 3호로 뒤를 잇고, 연안 김씨, 여산 송씨, 인동 장씨, 연안 차씨, 청주 한씨, 남양 홍씨 등이 각각 2호씩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김해 김씨, 안동 김씨, 밀양 박씨, 함양 박씨, 고창 오씨, 거창 유씨, 한양 조씨 등은 각 1호만을 차지하여 소수 성씨로 분류된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보면, 이목리의 성씨 구성은 특정 대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분포하는 구조이다. 특히 상위 세 성씨인 강릉 유씨(22호), 경주 김씨(5호), 전주 이씨(5호)를 합치면 총 32호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에 달한다. 이는 마을 내 세력 구도가 몇몇 성씨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목리는 20세기 초반에 강릉 유씨를 중심으로 경주 김씨와 전주 이씨가 보조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마을의 혈연적 결속이 매우 강하게 작동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강릉 유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이목리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표 1> 한말-일제 초기 이목리 호주 명단과 호수

성씨	호수	비율(%)	호주 성명
경주 김씨	5	9.09	김문기, 김춘식, 김학원, 김학정, 김학중
연안 김씨	2	3.63	김금연, 김학수
김해 김씨	1	1.82	김현수
안동 김씨	1	1.82	김훈경
여흥 민씨	3	5.45	민명호, 민영대, 민영조
밀양 박씨	1	1.82	박정학
함양 박씨	1	1.82	박수명
여산 송씨	2	3.63	송성호, 송주섭
순흥 안씨	1	1.82	안경해
고창 오씨	1	1.82	오은상
강릉 유씨	22	40.0	유경열, 유달종, 유영만, 유영현, 유원종, 유은순, 유임종, 유재남, 유재달, 유재덕, 유재두, 유재만, 유재삼, 유재성, 유재역, 유재영, 유재정, 유재택, 유태열, 유택중, 유학중, 유한중
거창 유씨	1	1.82	유응조
전주 이씨	5	9.09	이병규, 이사덕, 이양수, 이은정, 이익수
인동 장씨	2	3.63	장서호, 장순형
한양 조씨	1	1.82	조덕재
연안 차씨	2	3.63	차관식, 차면식
청주 한씨	2	3.63	한정이, 한종교
남양 홍씨	2	3.63	홍병목, 홍익순
계	55	100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였음을 알려 주는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1913년 건립된 이병규 선심비(善心碑)이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비는 1913년(대정 2)에 이장 김학원(1890~1941)이 세운 것이고 글은 정언 유재두(1856~1934)가 썼다.

<앞면>

里長 金學元 立
五衛將李公秉奎恤貧善心碑
正言 劉載斗 書

<뒷면>

大正 二年 癸丑 十月 日
水原郡 荊石面 梨木里



이병규선심비(수원박물관 제공)

조선 말기에 오위장 벼슬을 역임한 이병규(1849~1934)가 1890년 무렵, 흉작으로 기근이 있을 때 사재를 풀어 마을 주민들을 구휼하였고, 그 공적을 기려 1913년 당시 이장이었던 김학원과 주민들이 이목교 옆에 선심비를 세웠다고 한다. 이렇듯 마을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주 이씨인 이병규, 경주 김씨인 김학원, 강릉 유씨인 유재두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세기 초반 이목동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

연번	지번	거주자(호주)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이목리 45번지	유재남	이병운	파장리
	이목리 47번지	유원중, 유재억		
	이목리 55번지	유임중	이취래	파장리
	이목리 57번지	유태열	민의호	경성부
	이목리 59번지	유영만	유재형	이목리
	이목리 60번지	유재택	한익교	이목리
1	이목리 63번지	유태중, 박수명, 유재만, 한정이	한익교	이목리
	이목리 64번지	유재성	유재성	이목리
	이목리 67-1번지	유재두	유재덕	이목리
	이목리 70번지	유재영, 유재달, 유경열	한익교	이목리
	이목리 72번지	유학중	유학중	이목리
	이목리 73번지	유달중	유건중	이목리
	이목리 75번지	유재덕	유재덕	이목리
	이목리 124번지	김학수, 유은순	용덕원	송죽리
	이목리 136번지	김춘식	김학원	이목리
	이목리 139번지	김학원	김학원	이목리
2	이목리 140번지	유재삼	유재삼	이목리
	이목리 141번지	유한중	유재희	이목리
	이목리 191번지	김학중, 유영현	이병운	파장리
	이목리 193번지	김문기	김광식	이목리
	이목리 194번지	유재정	유재정	이목리
	이목리 245번지	한중교	한익교	이목리
3	이목리 265번지	홍병목, 홍익순	홍병목	이목리
	이목리 270번지	차관식	이창래	파장리
	이목리 279번지	오은상	박덕경	이목리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세기 초반 이목동 거주지 분포(1966년 항공사진)

연번	지번	거주자(호주) 성명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이목리 283번지	이병규	이병규	이목리
	이목리 284-2번지	박정학		
3	이목리 286번지	김학정	조준규	정자리
	이목리 295번지	장서호	장서호	이목리
	이목리 301번지	장순형	장재응	이목리
	이목리 323번지	김현수, 최백흥	안양리	이덕회
	이목리 383번지	송주섭, 유응조, 이양수	유윤구	황해도
4	이목리 392번지	민영대, 이익수	이병구	파장리
	이목리 393번지	송성호, 민영호, 조덕재, 최순봉	이병구	파장리
	이목리 403번지	이은정	조익현	정자리
5	이목리 426번지	안경해, 이사덕	이사덕	이목리
	이목리 427번지	김공연, 김훈경	정인소	목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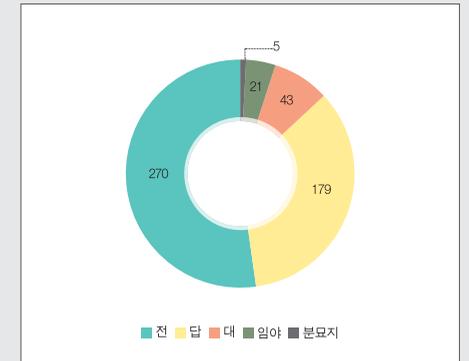
『민적부』와 『토지조사부』를 비교하면, 이목리에서는 거주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가 병존한다.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가 일치하는 사례는 유재성(64번지), 유학중(72번지), 유재덕(75번지), 김학원(139번지), 유재삼(140번지), 유재정(194번지), 장서호(295번지), 이병규(283번지), 이사덕(426번지), 홍병목(265번지) 등이다. 이에 비해 거주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례는 45번지 유재남(거주)-소유자 이병운(파장리), 57번지 유태열(거주)-소유자 민의호(경성부), 60번지 유재택(거주)-소유자 한익교(이목리), 124번지 김학수-유은순(거주)-소유자 용덕원(송죽리), 270번지 차관식(거주)-소유자 이창래(파장리), 286번지 김학정(거주)-소유자 조준규(정자리), 427번지 김공연·김훈경(거주)-소유자 정인소(목감리) 등이다.

2. 일제 초기 이목리 토지 이용 및 소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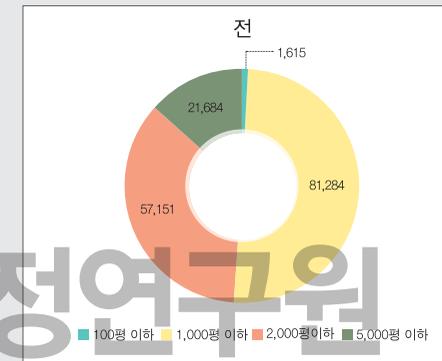
〈표 3〉은 1911년 조사된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이목리 지목별 및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과 비율을 정리한 것으로, 각 토지는 전(田), 답(沓), 대(垓),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로 구성되어 있다. 이목리 전체 토지 면적은 32만 3,115평으로, 이 가운데 전이 16만 1,734평(50.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목리의 토지 이용이 밭 중심의 농업임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답이 12만 3,971평(38.3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과 답을 합치면 전체의 약 88%에 달한다. 즉, 이목리는 논과 밭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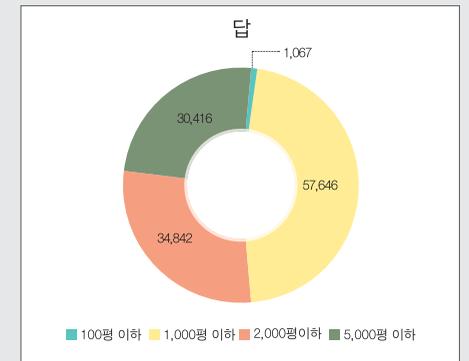
이목리 지목별 토지 면적



이목리 지목별 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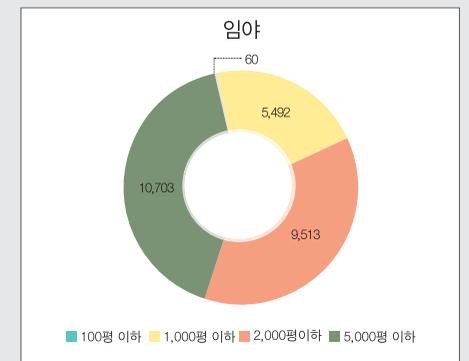
전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답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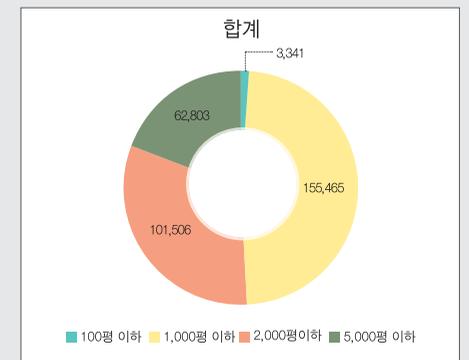
대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임야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이목리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단위 : 평)



면모를 갖추고 있다. 반면 대는 1만 1,041평(3.42%), 분묘지는 601평(0.19%)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불과하다. 단 임야는 1911년 토지조사에서 확인된 면적만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이목리의 임야 면적은 『임야조사부』에 기록된 면적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목리는 국공유지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임야 4필지(이목리 201번지와 310번지, 313번지, 369번지)는 이목리 소유였다. 마을 주민들은 한말에 이병규의 기부로 이 임야가 마을재산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표 3> 이목리 지목별 및 필지 규모별 토지 면적 구성

구분	전		답		대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100평 이하	1,615	1.00	1,067	0.86	385	3.49
1,000평 이하	81,284	50.26	57,646	46.50	10,656	96.51
2,000평 이하	57,151	35.33	34,842	28.10		
5,000평 이하	21,684	13.41	30,416	24.54		
합계	161,734	100.0	123,971	100.0	11,0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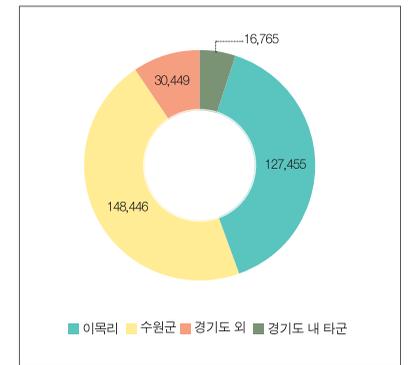
구분	임야		분묘지		합계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100평 이하	60	0.23	214	35.61	3,341	1.03
1,000평 이하	5,492	21.31	387	64.39	155,465	48.11
2,000평 이하	9,513	36.92			101,506	31.41
5,000평 이하	10,703	41.54			62,803	19.44
합계	25,768	100.0	601	100.0	323,115	100.0

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000평 이하 규모가 15만 5,465평(48.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2,000평 이하가 10만 1,506평(31.41%), 5,000평 이하가 6만 2,803평(19.44%), 100평 이하가 3,341평(1.03%)으로 나타난다. 즉, 소규모보다는 중소 규모 필지가 주를 이루며, 1,000~2,000평 규모의 농지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은 1,000평 이하 규모가 50.26%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2,000평 이하가 35.34%, 5,000평 이하가 13.41%를 차지한다. 즉, 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되,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필지가 주를 이룬다. 답은 1,000평 이하가 46.50%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00평 이하(28.10%), 5,000평 이하(24.54%)가 뒤를 이었다. 이는 논이 밭보다 조금 더 대규모 단위로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대는 특이하게도 1,000평 이하가 96.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주거지 중심의 특성상 소규모 필지 단위로 나누어져 있음을 반영한다. 임야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필지 비중이 높다. 5,000평 이하가 41.54%, 2,000평 이하가 36.92%, 1,000평 이하가 21.31%로 분포해 있어, 다른 지목에 비해 큰 단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분묘지는 100평 이하(35.61%)와 1,000평 이하(64.39%)로 전부 소규모 단위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족가문의 묘역 단위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이목리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는 주로 지역 내부와 인근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토지 32만 3,115평 가운데 수원군 거주자가 14만 8,446평(45.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목리 거주자 역시 12만 7,455평(39.45%)을 소유해 두 집단이 합쳐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기도 외 거주자는 3만 449평(9.42%), 경기도 내 타군 거주자는 1만 6,765평(5.19%)에 불과하여 외지인의 소유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목리 토지가 기본적으로 수원군과 이목리 주민들의 생활 기반 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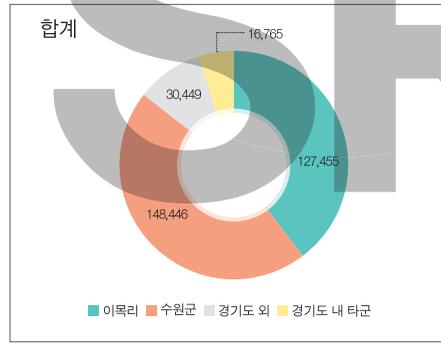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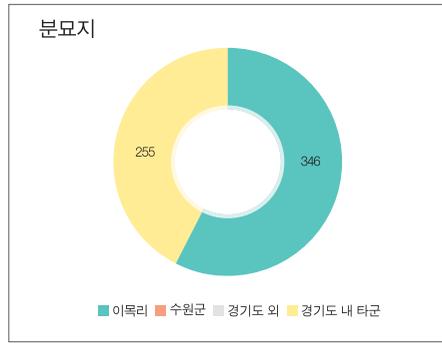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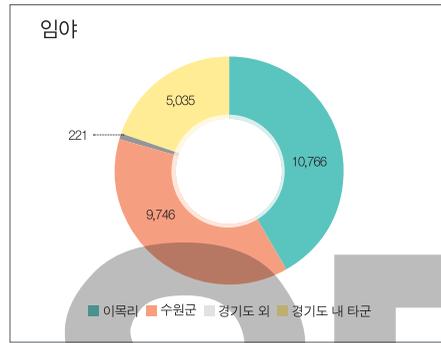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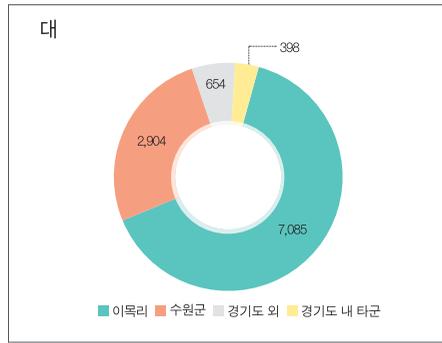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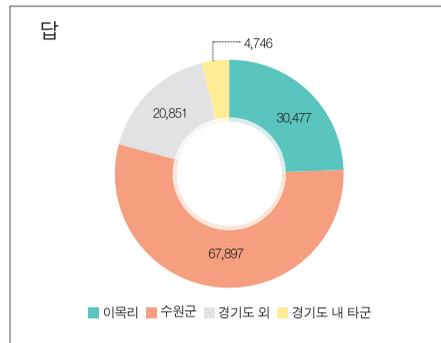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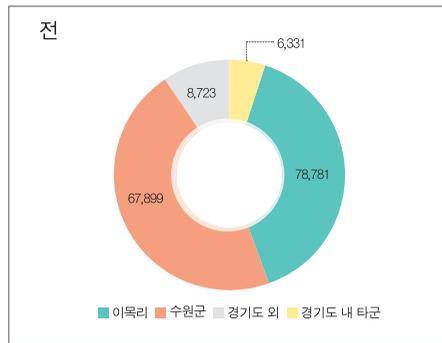


이목리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단위 : 평)

<표 4> 이목리 지목별 토지 소유자 거주지

거주지	전		답		대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이목리	78,781	48.71	30,477	24.58	7,085	64.17
수원군	67,899	41.98	67,897	54.77	2,904	26.30
경기도 외	8,723	5.39	20,851	16.82	654	5.92
경기도 내 타군	6,331	3.91	4,746	3.83	398	3.60
합계	161,734	100.0	123,971	100.0	11,041	100.0

거주지	임야		분묘지		합계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면적(평)	비율(%)
이목리	10,766	41.78	346	57.57	127,455	39.45
수원군	9,746	37.82			148,446	45.94
경기도 외	221	0.86			30,449	9.42
경기도 내 타군	5,035	19.54	255	42.43	16,765	5.19
합계	25,768	100.0	601	100.0	323,115	100.0



이목리 지목별 토지 소유자 거주지(단위 : 평)

지목별로 나누어 보면 특징이 더욱 분명해진다. 전(밭)은 이목리 주민이 7만 8,781평 (48.71%)을 소유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원군 주민도 6만 7,899평(41.98%)을 차지해 지역민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발농사가 자급 기반으로서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답(논)은 수원군 주민이 6만 7,897평(54.77%)으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이목리 주민은 3만 477평(24.58%)에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가 2만 851평(16.82%)을 차지해, 쌀 생산 기반인 논은 외부와의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밭은 마을 내부 생활과 직결되었지만, 논은 외부 세력과의 경제적 관계를 맺

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대(집터)는 이목리 주민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1만 1,041평 가운데 7,085평 (64.17%)을 이목리 주민이 소유하여 거주 공간이 지역 내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는 다소 분산적이다. 이목리 주민이 1만 766평(41.78%)을, 수원군 주민이 9,746평(37.82%)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군 주민도 5,035평(19.54%)을 소유해 산림 자원이 지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분묘지는 이목리 주민이 346평(57.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내 타군 거주자가 255평(42.43%)을 소유했다. 이는 선산의 성격을 반영하며, 생활과 의례 공간이 주로 지역 내부에서 관리되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목리의 토지 소유 구조는 지역적 기반과 외부 연계가 공존하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 준다. 전과 대, 분묘지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활과 자급적 농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답은 외부 거주자의 소유 비율이 높아 쌀 생산을 매개로 외부 경제와 연결되었다. 임야는 비교적 다양한 거주자 집단이 소유하여 산림 자원이 외부와 교류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목리는 단순히 내부 자급만을 추구하는 마을이 아니라, 내부 결속과 외부 경제적 연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농촌사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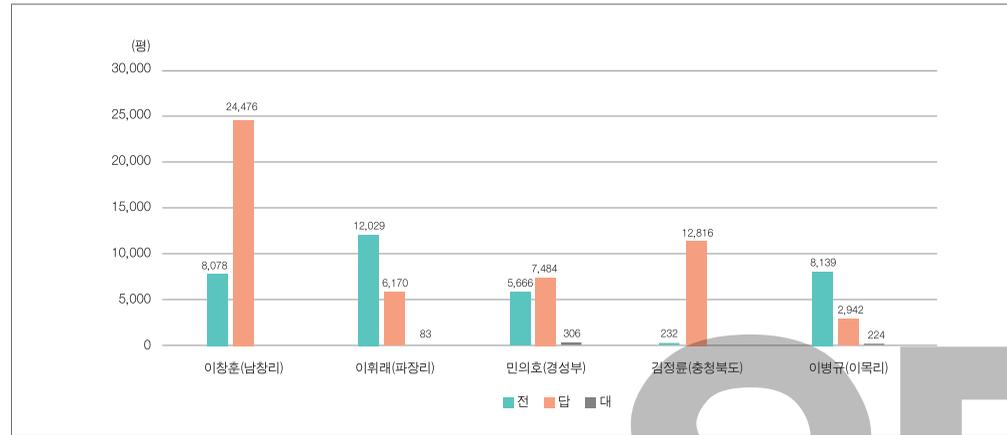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표 5> 이목리 대토지 소유자

소유자	전	답	대	합계
이창훈(남창리)	8,078	24,476		32,554
이휘래(파장리)	12,029	6,170	83	18,282
민의호(경성부)	5,666	7,484	306	13,456
김정륜(충청북도)	232	12,816		13,048
이병규(이목리)	8,139	2,942	224	11,305
합계	34,144	53,888	613	88,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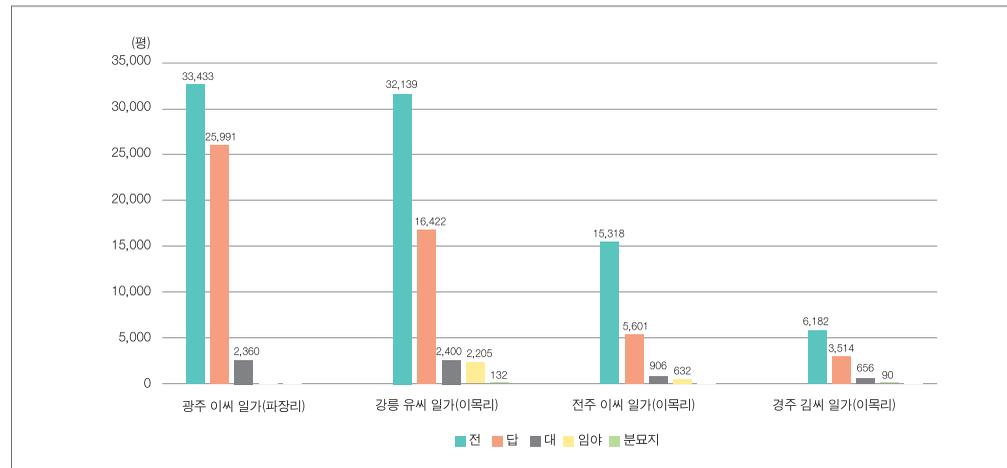
<표 5>에 나타난 이목리 대토지 소유 현황은 토지 소유의 집중과 외지 지주의 우세라는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8만 8,645평으로, 이목리 전체 토지 면적인 32만 3,115평의 27.4%를 5명이 소유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남창리 출신의 이창훈으로 3만 2,554평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파장리의 이휘래가 1만 8,282평, 경성부의 민의호가 1만 3,456평을, 충청북도 청안군 부내면 거주자인 김정륜이 1

만 3,048평을 소유하였다. 그다음으로 이목리의 이병규가 1만 1,305평을 차지하여, 이목리 거주자 중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목리는 마을 내부 지주보다 외부 출신의 대토지 소유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점유하였다. 토지 지목을 살펴보면, 전체 8만 8,645평 가운데 전이 3만 4,144평(38.5%), 답이 5만 3,888평(60.8%)으로 나타나 밭보다 논이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이목리 전체 토지 지목이 답보다 전이 더 우세하고, 이목리 거주 지주들이 전을 더 많이 소유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목리 대토지 소유자

〈표 6〉 이목리 토지를 소유한 유력 집단을 확인해 본 결과,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가 6만 1,784평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이목리의 강릉 유씨 일가가 5만 3,298평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 전주 이씨 일가는 2만 2,457평을, 경주 김씨 일가는 1만 442평을 각각 소유하였다.



이목리 토지 소유자(유력 집단)

〈표 6〉 이목리 토지 소유자(유력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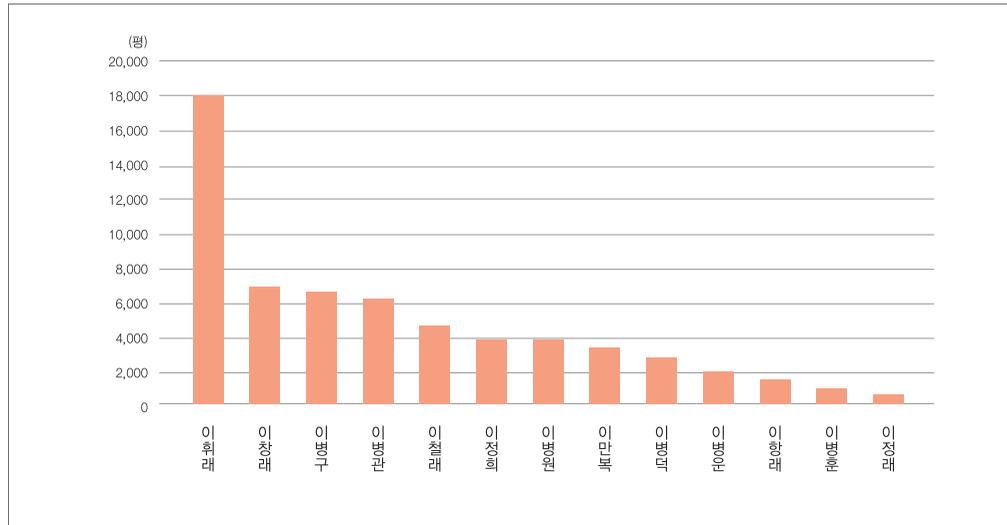
소유자						합계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	33,433	25,991	2,360	-	-	61,784
강릉 유씨 일가(이목리)	32,139	16,422	2,400	2,205	132	53,298
전주 이씨 일가(이목리)	15,318	5,601	906	632	-	22,457
경주 김씨 일가(이목리)	6,182	3,514	656	-	90	10,442
합계	71,754	45,927	5,416	2,205	222	125,524

〈표 7〉에 따르면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는 이목리 토지 총 6만 1,784평을 소유하였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는 이휘래로, 전 1만 2,029평, 답 6,170평, 대 83평을 합쳐 총 1만 8,282평을 소유하였다. 이는 광주 이씨 일가 전체 소유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광주 이씨 집안 내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대지주임을 보여 준다. 이어서 이창래가 전 2,628평, 답 4,103평, 대 1,034평 등 총 7,765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병규도 답 6,893평을 중심으로 총 7,453평을 소유하여 두 번째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이병관(6,952

〈표 7〉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의 이목리 토지 소유

소유자					합계
	전	답	대	임야	
이휘래	12,029	6,170	83	-	18,282
이창래	2,628	4,103	1,034	-	7,765
이병규	560	6,893	-	-	7,453
이병관	1,190	5,762	-	-	6,952
이철래	-	5,356	-	-	5,356
이정희	3,048	-	-	-	3,048
이병원	2,052	818	-	-	2,870
이만복	-	2,666	-	-	2,666
이병덕	2,625	-	-	-	2,625
이병운	1,331	-	683	-	2,014
이항래	1,114	-	-	-	1,114
이병훈	-	741	-	-	741
이봉래	523	-	-	-	523
이정래	-	375	-	-	375
합계	33,433	25,991	2,360	-	61,784

비고 : 『토지조사부』에서 이목리에 토지를 소유한 파장리 거주 이씨(14명)의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14명 중 이만복과 이정희의 본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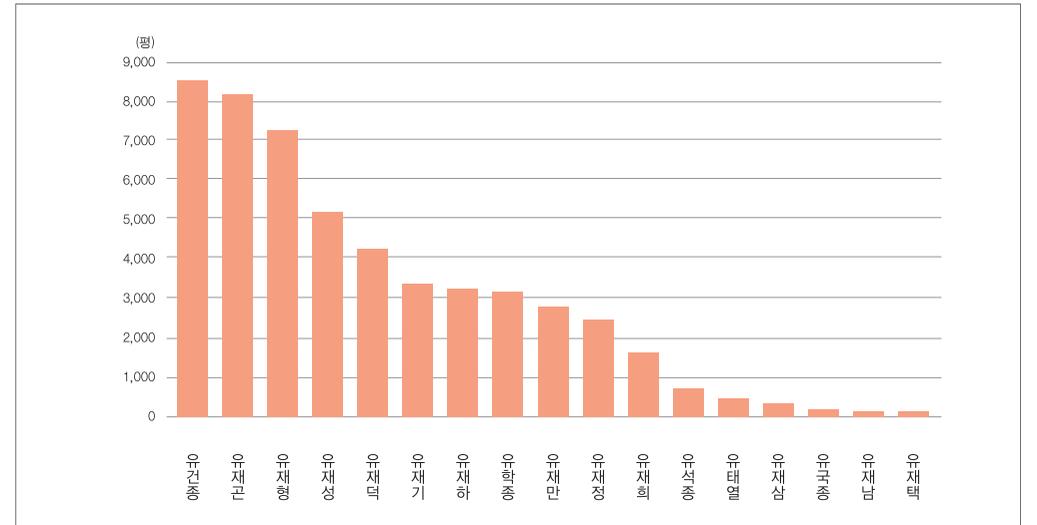
광주 이씨 일가(파장리)의 이목리 토지 소유

평), 이철래(5,356평)가 각각 5,000~7,000평 규모를 보유하면서 중견 지주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정회(3,048평), 이병원(2,870평), 이만복(2,666평), 이병덕(2,625평), 이병운(2,014평) 등은 2,000~3,00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였으며 중소 지주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씨 일가의 토지 소유가 단순히 몇몇 핵심 인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항래(1,114평), 이병훈(741평), 이봉래(523평), 이정래(375평) 등은 1,0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광주 이씨 일가 내부에서도 토지 소유 규모의 뚜렷한 위계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파장리 광주 이씨 일가는 이휘래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위층, 5,000~7,000평대의 중견층, 2,000~3,000평대의 중소 지주층, 그리고 1,000평 이하의 소규모 소유층으로 구분되는 다층적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동일 성씨 집단 내부에서도 경제적 위계와 토지 소유의 집중·분산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보여 주며, 이목리 토지구조에서 파장리 거주 광주 이씨 일가가 차지한 비중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시사한다.

〈표 8〉은 이목리 토지를 소유한 강릉 유씨 일가의 지목별 토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현황은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만 3,298평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전이 3만 2,139평으로 전체의 60%를 넘고, 답이 1만 6,422평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즉 전체 토지의 90% 이상이 농경지라는 점에서 강릉 유씨 일가는 이목리에서 전형적인 농업 기반 마을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대(집터)는 2,400평, 임야는 2,205평, 분묘지는 132평으로 농지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다.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표 8〉 강릉 유씨 일가의 이목리 토지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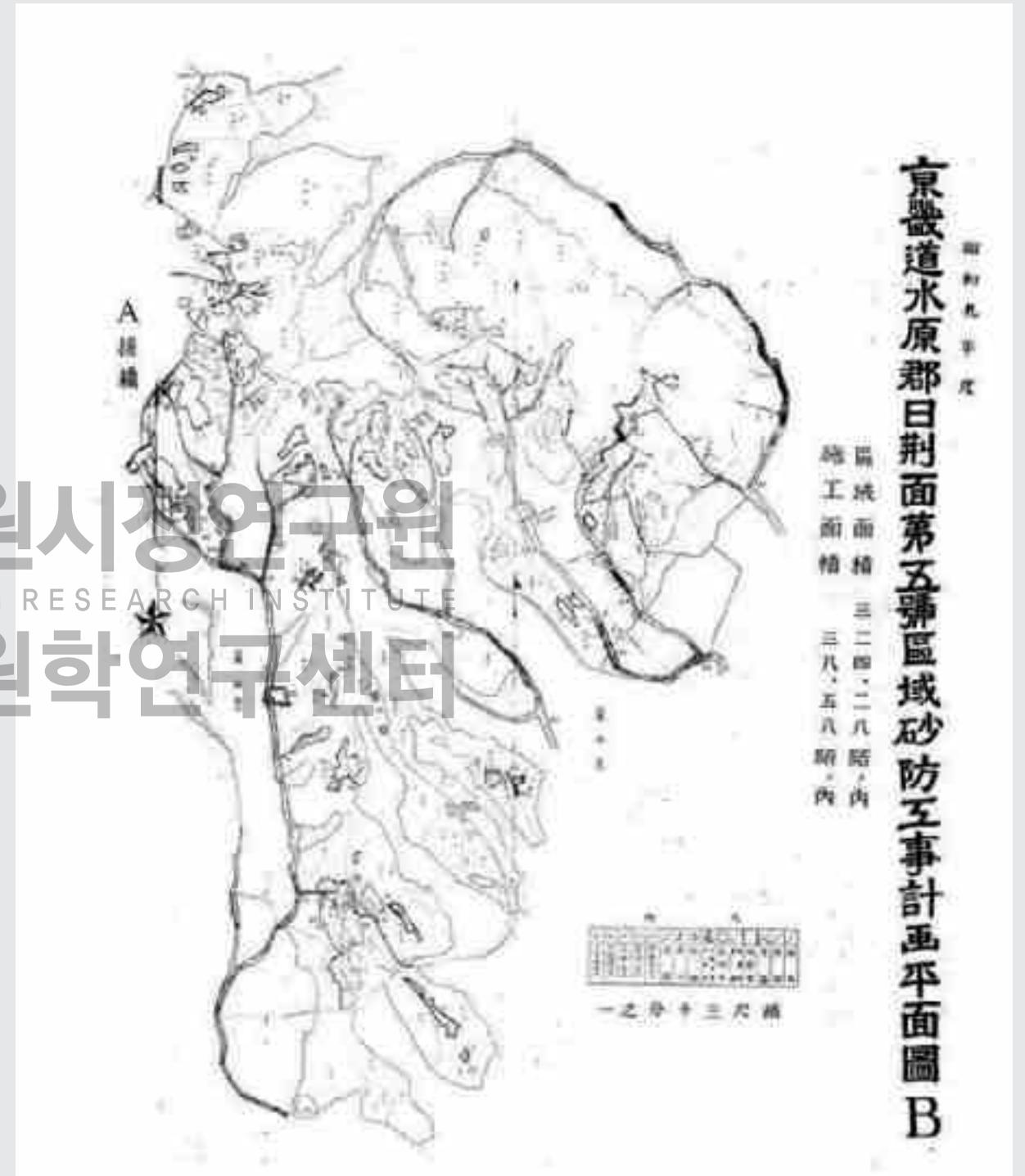
소유자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합계
유건종	3,809	4,864	141			8,814
유재근	5,238	2,847	298			8,383
유재형	3,207	1,621	272	2,145		7,245
유재성	3,693	1,149	345			5,187
유재덕	2,747	964	619			4,330
유재기	1,816	1,971				3,787
유재하	2,414	894				3,308
유재학	2,648	436	138			3,222
유재만	2,919					2,919
유재정	1,297	1,129	210			2,636
유재희	1,532		224			1,756
유재석	254	378				632
유태열	190	123			132	445
유재삼	131		153			284
유국종	154					154
유재남	39			60		99
유재택	51	46				97
합계	32,139	16,422	2,400	2,205	132	53,298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유건종, 유재곤, 유재형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유건종은 총 8,814평을 소유하여 일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특히 답(논) 4,864평으로 논 중심의 대지주적 성격이 강하다. 유재곤은 전 5,238평과 답 2,847평을 포함해 8,383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밭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재형은 전과 답 외에도 임야 2,145평을 소유하여 총 7,245평을 갖고 있었는데, 일가 중 임야 소유 규모가 가장 크다. 이처럼 세 사람이 합쳐 약 2만 4,000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일가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 소유가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 뒤를 이어 유재성(5,187평), 유재덕(4,330평), 유재기(3,787평), 유재하(3,308평), 유학중(3,222평), 유재만(2,919평) 등이 3,000~5,0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들은 전과 답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는 대지나 임야를 포함해 생활과 농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유재정, 유재희, 유석중, 유태열 등은 1,000~2,000평대 규모를 소유하며 상대적으로 중간 계층의 지위를 보여 준다. 이와 달리 유재삼(284평), 유국중(154평), 유재남(99평), 유재택(97평) 등은 300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데, 이는 같은 일가 내에서도 소유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재남은 전 39평과 분묘지 60평만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생계보다는 가문의 선산 관리 차원에서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밭은 유재곤, 논은 유건종, 임야는 유재형, 대지는 유재덕이 가장 많이 소유해 각기 다른 성격의 토지 중심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강릉 유씨 일가 내부에서도 토지 이용방식이나 생활 기반이 서로 다르게 자리 잡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3. 1930년대 광교산 산림 관리와 서호천 정비

이목리는 광교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광교산 삼림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훼손되었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연료 채취와 천재지변의 반복으로 광범위한 산림 황폐화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광교산은 민등산으로 전락하였고, 매년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로가 막히고 홍수가 발생함으로써 농지가 황무지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사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은 수원읍, 일왕면, 반월면 등 1읍 2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공사비 12만 4,451원이 투입되었다. 임야 2,095두령(陌)에서 사방공사가 이루어졌고, 325두령에서 구체적인 토목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약 141만 그루의 식수가 조림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유림은



1934년 일형면 제5호 사방공사계획 평면도(국가기록원 제공)



치산치수지비(수원박물관 제공)

보안림으로 편입되어 산림 관리체계에 편입되었다.³

이어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총공사비는 1만 2,000원이었고, 이 중 5,000원은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 공사 구간은 이목리에서 서호 입구에 이르는 지역이었으며, 연장 3,000m에 달하는 제방이 축조되고 13개소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1939년 3월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역 내 주요 하천은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⁴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수원 지역의 농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치산치수의 기초 작업이었다. 사업의 효과로 지역 주민들은 홍수와 토사 유출로부터 벗어나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의 황무지화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문은 동시에 사업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즉, 산림의 장기적 유지와 수자원 관리의 합리화가 병행되어야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1939년 6월 일왕사방임사업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산치수사업이 완료되자 이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1941년 10월 25일 수원군 일왕면장 이석래(李奭來)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를 건립하였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간자 요시쿠니(甘庶義邦)가 비석의 앞면에 '治山治水之碑'라는 글씨를 남겼고, 비문은 장두병(張斗柄)이 썼다. 이 비석이 처음 세워진 장소를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파장사거리 북동쪽 도로변(이목동 869번지)으로 옮겨졌다가 2021년 6월 수원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치산치수지비는 사방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고 성과의 의미를 기념하고자 건립되었으나, 이 비의 건립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사업은 지역 농업 기반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 근본적 목적은 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민지 경제를 강화하고 일제의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치산치수지비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1930년대 수원 농업이 직면한 환경적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여 주는 사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적 개발과 수탈구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4. 1950년대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전개와 성과

1950년대는 한국사회가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거대한 격동 속에 놓여 있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의 수탈구조에서 벗어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지만, 곧 이어진 6·25 전쟁은 전국의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농토는 유실되었고, 가

수원시정연구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옥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이목리 경지의 46.6%인 12만 4,685평이 분배되었으나, 이 중 46.1%인 5만 7,539평이 전매되었는데, 이는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포기하고 농지를 팔아 버릴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낸다.

<표 9> 이목리 분배농지 현황

총경지		분배농지		비율(%)	
필지수	면적(평)	필지수	면적(평)	필지수	면적
580	267,630	245	124,685	42.2	46.6

자료 : 『통합분배부』, 『토지대장』.

<표 10> 이목리 분배농지 중 전매농지 현황

필지수				면적(평)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불변	전매매	계	전매매율
138	107	245	43.7%	67,146	57,539	124,685	46.1%

자료 : 『통합분배부』.

이 시기 농업 기반이 취약한 농촌마을은 토지의 척박함과 자본의 부족, 교육 기회의 결핍, 사회적 연대의 와해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는 국가 재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간구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농촌에서는 국가정책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동과 실천을 통해 자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왕면 이목리에서 전개된 농촌계몽운동이다. 이목리는 해방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기반이 약하고 소작농이 대부분인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을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실천의 중심에는 농민 김수기와 같은 지역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1)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전개⁵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출발점은 농업 생산의 근간인 ‘종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



1950년대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을 이끈 김수기와 그의 형제들(김진영 제공)
왼쪽부터 김선기(넷째), 김인기(둘째), 김준기(셋째), 김수기(장남)이다.

다. 농민 김수기는 외부 기술이나 지식 없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마다 벼이삭 중 가장 알차고 좋은 이삭을 선별하여 다음 해 농사에 사용할 씨앗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우수한 이삭을 따로 모아 분리된 모판에서 키우고, 그 모를 다시 구분된 논에 심어 실험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반복한 과정에서 이목리에서는 기존의 정부 공급 종자보다도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종자가 개발되었고, 주민들은 그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 김수기의 종자 개량운동은 마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경제의 안정과 자산 축적을 위해 이목리는 유축농업에도 집중하였다. 마을 전체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소, 돼지, 닭, 오리, 토끼 등이 집집마다 일정 규모로 길러졌다. 각 가정에서는 별도의 닭장과 돼지우리를 마련하였고, 이는 위생과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원금융조합은 이목리를 특별지도부락으로 지정하고, 영농자금 100만 원을 융자함으로써 유축농업 확대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이목리는 1954년 기준으로 소 45두, 돼지 112두, 닭 911수 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자산 축적과 유기질 비료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소득 증대 활동은 식산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식산계는 종자 개량, 모판 운영, 퇴비 제작, 영농법 개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민 간의 기술 교류와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목리는 협동조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조합원들은 생활과 생산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공동이용을 실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은 중간 유통 상인에 의존하여 생활물품을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의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목리에서는 공동구매 체계를 도입하여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물자의 목록과 수량을 미리 조사한 후, 청년 대표를 선발해 수원 도매상 또는 생산공장에 직접 구매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의 자본 낭비를 줄이고 소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주민 간의 신뢰와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목리의 협동조합운동은 농기구의 공동 이용에서도 잘 나타났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비싼 농기구를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웠으나, 이목리는 마을 공동기금을 통해 최신식 농기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이를 순번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농기구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마을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었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력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산림 보호와 녹화 활동이었다. 해방 이후 전국 대부분의 산과 들이 벌거숭이로 변했던 시절, 이목리만큼은 비교적 울창한 숲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산림계의 지속적 활동 덕분이었다. 김수기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수기 차택에 설치된 이목동산림계(1990년대, 김진영 제공)

청년들은 '산이 푸르러야 농사가 잘된다.'는 소신 아래 겨울철에도 화롯불을 들고 다니며 산을 순찰했고, 산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흙독을 쌓아 외부인의 무단 벌목이나 가축 방목을 막았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산림 녹화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선도적 녹화운동 사례였다. 그 결과, 이목리 산림계는 1952년 농림부로부터 산림녹화 공로자로 선정되어 공식 표창을 받았다. 산림계는 산을 감시하고 벌목을 금지하는 감시기구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산림계의 활동은 마을 공동체가 협력과 책임을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목리 주민들은 마을의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다. 길이 없고 진흙으로 질척거렸던 마을 안길은 공동작업을 통해 정비되었으며, 논밭 사이의 도로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직접 닦았다.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굵은 통나무를 걸쳐 다리를 만들고, 마을 중심 도로를 마차, 지프차, 트럭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길가에는 버드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등이 줄지어 심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서 생활 자원의 확보와 농외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었다. 이런 조경적 요소와 결합된 마을의 외형은 농촌을 '지저분하고 가난한 공간'이 아닌, 정갈하고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



모범농촌방문기에 소개된 이목리(『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수기의 농촌계몽 활동이 신문에 실린 것을 기뻐하는 동생들의 글과 축하 편지(김인기, 『농은위업보도집』, 1955)



1950년대 이목리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이목리 일대 산림만 푸르고 울창하게 유지된 상태이다.

탄생시켰다.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은 매우 진보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당시 상황에서 김수기는 방과 부엌, 마루 사이에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 중앙에 촛불 하나로 세 공간을 동시에 밝힐 수 있도록 설계한 자작 조명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유리창 앞에는 철망을 씌워 파손을 방지하였고, 이는 자원 부족 상황 속에서의 창의적 대응의 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퇴비 확보를 위한 화장실 개량도 진행되어, 인분의 일실을 막는 구조로 재설계되었다. 이러한 세심한 생활 기반 정비는 마을 전체의 위생과 농업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이목리의 농촌계몽운동은 종자 개량에서 시작해 축산 진흥과 산림 보호, 마을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전개되었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은 정부 주도의 관료적 시책이 아니라, 농민과 주민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한 자립적 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집결체는 이목리를 단기간 내에 모범농촌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후 정부의 표창과 언론의 주목을 통해 전국 농촌에 귀감으로 전파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목리에는 70여 세대, 약 4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벌였다. 식산계, 산림계, 협동조합, 4H구락부, 강습소, 자치회 등으로 구성된 이목리의 공동체 조직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문화 진흥의 기반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목리는 강습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문맹 퇴치와 농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농한기에는 강습소에서 성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글을 깨친 농민들은 문서 작업, 간판 제작, 표어 작성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마을의 자치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1950년대 이목리에는 초등학교 졸업생 56명, 재학생 70명, 중고등학교 재학생 15명, 고등학교 졸업생 5명,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4명에 이를 정도로 향학열이 높았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교육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잘 보여 준다. 여러 신문 구독과 라디오 보급도 이러한 문화적 수준 향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신문 21부와 라디오 5대가 마을에 배달되고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보 접근성과 사회의식 수준이 평균 농촌을 훨씬 능가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목리 주민들은 당시 정부나 교육기관의 공식 지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4H운동을 수용하였다. 이목동 토박이인 이병일은 낙후된 농촌의 생활을 향상하고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4H운동의 발상지가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시기 경기도 군정관이었던 찰스 앤더슨은 한국에 4H운동을 도입하였다. 이병일에 따르면 그의 부친인 이동수는 대학 졸업 후 농촌계몽운동을 펼치던 중 앤더슨과 협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하여 4H운동의 확산을 주도하였다. 이동수의 노력으로 이목리의 4H활동은 매우 활성화되었고,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이목4H구락부의 이동수 외 17명은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이동수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중심인물이 되었다.

마을의 청소년들은 4H구락부를 조직하였는데, 4H구락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식의 확산'에 있었다. 당시 이목리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다수였으나, 4H구락부를 통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농업 지식, 위생 개념, 조직 운영 원리를 자연스럽게 성인 세대에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한글을 배운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거나, 영농 기술을 배운 청소년이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방식을 부모 세대에게 알려 주는 등의 지식 역전현상이 마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 이목리 농촌계몽운동의 성과와 의미⁶

1950년대 초중반 이목리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농촌 자립 모델로 평가받았다. 마을 내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은 여러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고, 이러한 성과는 농림부의 공식 표창과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전국 농촌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확산되었다. 이목리는 농업 생산성과 생활환경, 공동체 협력구조, 교육과 문화 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발전을 이룬 '전방위적 모범농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장 뚜렷한 성과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었다. 이목리는 한정된 토지 자원과 열악한 토양 조건 속에서도 종자 개량과 집약적 경작, 퇴비 증산, 유축농업의 결합을 통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끌어올렸다. 당시 한국 농업의 평균 벼 수확량은 1단보당 약 2.5석이었으나, 이목리는 3.5석이라는 목표치를 끌어올렸다. 김수기를 중심으로 한 종자 선별과 시험 재배, 그리고 정밀한 재배기술의 보급은 마을 전체의 영농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이는 국가적 맥류 다수확 경진대회에서 김수기가 1등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1956년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3만 5,000원을 수상하며, 지역 농민으로서는 드물게 전국적 표창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었다.

이목리의 산림 보호와 녹화운동도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952년 농림부는 이목리산림계가 수행한 산림 보전 활동과 자발적 녹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 산림 녹화 공로자와 단체 표창 명단에 이목리를 포함시켰다. 이는 당시 전국 대부분의 산과 들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목리가 울창한 수풀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산림의 식생 회복과 농업 기반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졌다.

생활환경 개선에서도 이목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을 내 도로가 정비되었고, 통나무 다



이목리 유축농업 육성(『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



이목리 4H구락부와 식산계 활동(『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맥류 다수확 1등상을 수상한 이목리 김수기(『조선일보』 1956년 6월 21일)

리, 감나무와 밤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닭장과 돼지우리, 콘크리트로 개량된 화장실 등은 당대 농촌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특히 생활공간의 위생화와 질서 정연한 마을 구조는 언론에 의해 “나치 독일의 국토계획을 연상시킨다.”고 표현될 만큼, 시각적으로도 체계적이고 청결한 마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생활 기반의 정비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이목리를 실제 현장 심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성과로 이목리는 1954년 농림부 주최 전국 모범농촌경진대회 심사 대상 마을로 선정되었다. 각 도에서 파견된 심사위원단은 이목리를 직접 방문하여 4H구락부, 산림계, 식산계, 협동조합, 독농가의 영농방식 등 전반적인 마을 운영구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이목리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1955년 5월 31일 제1회 전국모범부락경진대회에서 최종 수상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마을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이목리의 성과는 정부의 공식 표창 외에도,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이목리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며, 이 마을이 보여 준 농업, 산림, 축산, 교육, 문화 전반의 변화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1955년 1월 9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목리를 심층 취재한 장문의 탐방기가 실렸으며, 해당 기사에서는 이목리를 “자연을 극복하고 자활의 길을 열어 가는 모범농촌”으로 표현하며, 당시 전국 농촌의 현실에 비해 그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표어판, 사방으로 뚫린 도로, 철망으로 보호된 촛불 조명, 창의적으로 지어진 축사,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등은 ‘희망의 마을’이라는 언론의 수식어를 가능케 한 장면들이었다.

이처럼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은 생활 개선과 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가구당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영세 소농구조였던 한국 농촌은 낮은 농업 생산성 등으로 획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농촌계몽운동은 소득 증대의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농촌을 빈곤의 틀 속에 묶어 두었고, 농업보다 도시 산업 부문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젊은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향도를 촉발하였다.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된 산업화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농촌의 실패와 인력 유출을 토대로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은 경제 발전의 주변부로 고착되었고, 1950년대 농촌계몽운동은 자립적 농촌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산업화의 전사(前史)로 남게 되었다.

註

1. 『민적부』와 『토지조사부』 참조.
2. 『토지조사부』 참조.
3. 이동근, 「수원(水原)지역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수용수리조합기념비(水龍水利組合紀念碑)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 『수원문화사연구』 7, 2005, 220~225쪽.
4. 이동근, 「수원(水原)지역 금석문(金石文)을 통해 본 식민지의 초상-수용수리조합기념비(水龍水利組合紀念碑)와 치산치수지비(治山治水之碑)」, 『수원문화사연구』 7, 2005, 220~225쪽.
5. 「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기쁜한 부락이 강생, 이목리가 유족농촌으로」, 『조선일보』 1954년 10월 12일; 「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1등은 경기, 4H구락부경진대회 폐막」, 『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6. 「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모범농촌활동상황, 각 도대표들이 심사」, 『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모범부락에 시상」, 『조선일보』 1955년 5월 31일; 「맥류 등 다수확 입상자 표창」, 『조선일보』 1956년 6월 21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4H구락부에서 이목동애향회까지

: 이목동 마을 공동체 활동의 변화

SRI

수원시농업기술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업기술센터

이목동은 오랜 세월을 걸쳐 마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자치와 협동의 문화를 실천해 온 지역이다. 조선 말기, 흉작에 굶주린 이웃을 위해 사재를 털어 구휼에 나선 이병규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의 공덕을 기리는 ‘선심비’가 1913년에 세워지면서 이목동의 공동체 정신은 문헌과 기념물로도 확인된다. 이후 해방을 거쳐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은 농촌 계몽운동과 협동조합 활동에 앞장섰으며, 4H구락부를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자치적 실천을 도입하였다. 나무를 심고 산을 지키며, 청년회와 같은 자생적 모임을 만들어 마을의 혼사와 초상, 치수와 개발에까지 주도적으로 나선 이목동 사람들은 마을을 살아 있는 공동체로 일구어 나갔다. 이러한 자치의 흐름은 1971년 ‘이목동연합회’로 조직화되었고, 수십 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유대를 바탕으로 2019년 ‘이목동애향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날까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기억을 지켜 나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이목동 마을 공동체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연도	활동
이병일	1959년	이목동애향회 총무, 이목동회 부회장, 용두회 회원
김응기	1959년	이목동회 회장, 전 이목동연합회 회장, 용두회 회원
이성룡	1938년	노송회 회원
한건수	1952년	이목동애향회 부회장
하순덕	1950년	이목경로당 부회장, 이목동 통장
김춘자	1941년	이목경로당 회장

이목동 마을 공동체 활동

- **1890년대**
오위장 이병규, 사재를 풀어 구휼 활동
- **1913년**
이병규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선심비' 건립(수원박물관 소장)
- **1952년**
노승 보호 활동으로 농림부 애림공로 표창 수상
- **1954~1955년**
농촌계몽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전개, 이목리가 모범농촌으로 언론에 보도
- **1955~1956년**
마을 주민들이 서호천 뚝방 조성 등 치수사업 직접 수행
- **1959년**
이목4H구락부, 경진대회 1등 수상
- **1960년대**
청년회, 노승회 등 마을 소모임 활성화
- **1971년**
18개 소모임을 바탕으로 이목동연합회 창립
- **2010년대**
아랫마을 재개발 추진(장안힐스테이트·STX칸아파트 입주)
연합회 소속 단체 수 18개→6개로 감소

- **2019년 12월 26일**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 삼풍가든에서 개최
-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연합회 마지막 행사 및 이목동애향회 창립 모임
- **2013년**
마을재산 찾기 소송에서 승소
약 1,000평의 마을 토지를 되찾음
- **2010년~현재**
이목동 경로잔치, 한마을 잔치로 열림
장학금, 경품, 초청공연 등 풍성한 행사 진행
- **2011년**
원주민 모임 이목동회 창립, 마을재산 찾기 소송 제기

1. 4H운동이 활발했던 이목리

이목동애향회 총무인 이병일은 수원시 이목동(당시 이목리)이 낙후된 농촌의 생활을 향상하고 기술 개량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4H운동의 '발상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병일 : 4H 도입이 1940년대 후반(1947년 3월), 해방 후 농촌운동이 시작되었죠. 농사를 짓더라도 밭 전적으로 하자고, 새마을운동의 전신이지.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고, 4H는 민간 자치활동이고. 그 당시 미국에서 (4H운동을) 창시한 앤더슨(Charles Anderson, 미군정기 경기도 군정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희 아버님(고 이동수)이 그 당시 대학까지 나와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다 앤더슨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호로 시작했어요. 앤더슨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과 논의를 많이 하고, 저희 아버님은 먼저 그 전에 농촌 계몽 활동을 했으니까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리더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딜 가든 전국 유지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 대면 다 알 정도지. 책에는 경기도가 발상지라고만 나오지만, 수원시에서도 이목동이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4H운동이 이목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는 없었지만, 과거 신문기사는 이병일의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농림부 주최로 실시 중에 있는 모범농촌경진대회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도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 일행을 지난 21일 경기도 모범부락으로 지정된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의 4H구락부 산림계 식산계 협동조합 등의 활동 상황 및 독농가의 영농방법 등 전반에 걸쳐 심사를 시행하였다.『모범농촌활동 상황, 각 도대표들이 심사, 『조선일보』 1954년 11월 25일』

또한 이목리는 1955년 농림부가 개최한 제1회 전국모범부락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개 모범부락에 선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¹⁾ 이목리가 모범농촌 활동으로 수상했음을 알리는 기사 등을 통해 4H운동의 중심에 이목리가 있었음은 짐작해 볼 수 있다. 1955년 「모범농촌 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신문기사에는 당시 이목리와 마을 청년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그들은 창의와 노력과 협조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하고 자활의 길을 열었다! (중략)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경수가도를 10리 북으로 달린 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다. (중략) 적어도 몇 십 년 이상은 묵어 보이는 울창한 수풀이 아담스럽게 들어서 있는 남향밭이 아늑한 언덕 아래 수십 채 초가집이 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이목동산림계

마다 평화를 상징하는 듯 소담스럽게 들어앉았다. 이곳이 기자가 찾아간 이목리 모범농촌이다. (중략) 길가에는 어디를 가나 나무가 서 있는데 서울 태생인 기자에게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버드나무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또 복숭아나무 같은 것도 보인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소위 과일나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보면 포도원도 있고 또 (중략) 집집마다 꽤 큰 닭장이 따로 지어져 있고 (중략) 돼지우리 칸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것 같다. (중략) 돼지우리가 있는 대문 옆 사랑방 뒷마루 기둥에 일왕면 이목리산림계의 간판이 붙어 있다. 이 집이 김수기 씨 댁이다. (중략) 그는 제일 먼저 증자계량운동을 했다. (중략) 개천가 논뚜렁 밭 언덕에다 감이나 복숭아 앵두 밤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수입의 증가를 꾀하였다. (중략) 언젠가 모르게 동리 사람들도 김씨의 본을 따라하였다. (중략) 해방이 되자 밭 벗고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그 첫 공동작업으로 동리 안과 논밭 사이에 길을 닦고 뚝을 쌓고 다리를 놓고 우거진 뒷산 1백7십여 정보의 수풀을 지키는 것이었다. (중략) 김씨는 동리 청년들과 함께 번을 짜서 순산(巡山)을 시작했다. 추운 겨울에는 화롯불을 들고 다니면서까지 순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중략) 전국의 산과 들이 모두 다 헐벗어 벌거숭이가 되어도 이곳만은 홀로 우거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장날이면 수원까지 동리 젊은 청년을 대표로 보내서 공동구입을 하도록 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중간 상인에게 이윤을 주지 않기 위한 협동조합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략) 정부에서 권하기도 전에 한글 공부를 시작해서 문맹퇴치운동을 하고 청소년 지도를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성인 교육운동인 강습회와 4H클럽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목리는 정부에 한발 앞서 농군인 자기 자신들을 위해 농촌문화진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농가 66세대에 공무원, 교원 등 반농가 내지 비농가 5세대까지 넣어 71세대 455명의 부락민은 협심 협력해서 70정보의 논과 82정보의 밭과 170여 정보의 산을 가꾸고 36두의 소와 114두의 돼지와 911수의 닭과 오리 토끼까지 처가며 협동조합 4H클럽, 식산계, 산림계, 강습소 등 공동조직체를 가지고 부락회관까지 지어 단결된 공동생활로서 부락 전체의 자활의 길을 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10년 전의 빈촌 이목리에는 지금 대학 출신이 2명, 대학 재학생이 2명, 고등학교 출신이 5명, 중고 등재학생이 15명, 초등학교 출신이 56명, 초등학교 재학생이 70명이나 되는 향학열에 불타는 부유 모범촌이 되었다. 이 마을은 한국 농촌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모범농촌탐방기,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김수기 사랑방 뒷마루 기둥에 걸려 있는 '이목동산림계' 간판(1960년대, 김진영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용기는 이 기사에 등장하는 김수기를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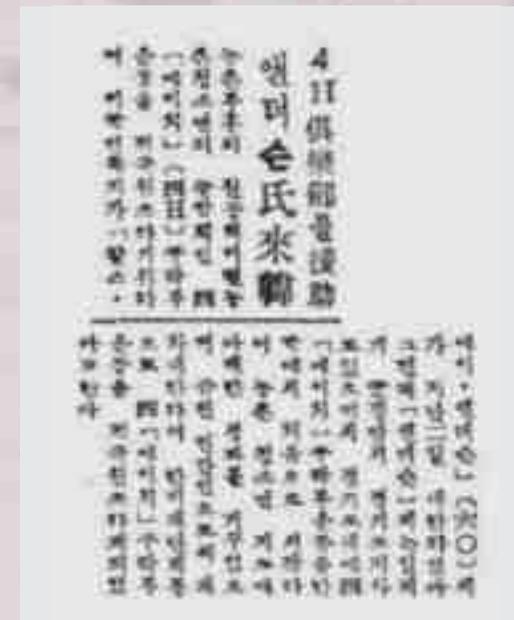
김용기: 지금 살아계시면 백설 살이 넘었죠. 이분이 이병규 할아버지 선심비 세운 김학원 씨 아들이죠. 이목동연합회 초대 회장 했던 김진선 씨의 아버지고.

신문기사와 마을 주민 이병일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4H운동이 들어오기 전 이미 이목리에서는 농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자체적으로 있었고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단합정신은 1950년대 4H운동을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이목리의 4H운동은 이동수의 노력과 주민들의 호응으로 매우 활성화되었고,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이목4H구락부의 이동수 외 17명은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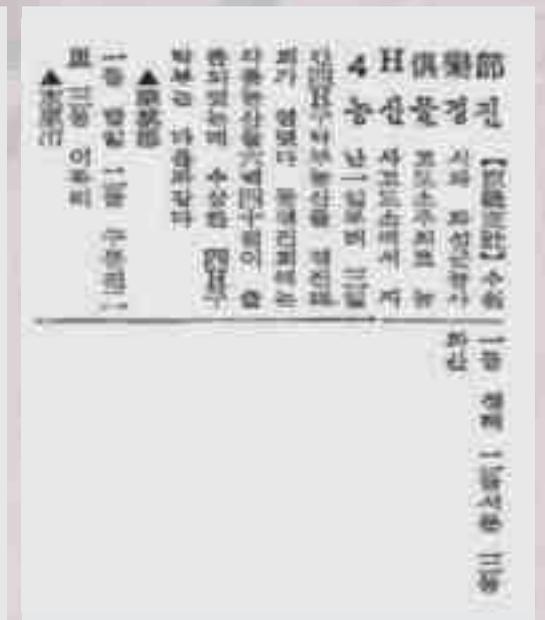
지난 10월 28일부터 개최되었던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는 닷새 동안의 다채로운 업적 다투기 행사를 마치고 2일 상모 그 막을 내렸다. 이날 상모 10시 30분부터 대회장인 삼일당에서는 폐회식과 아울러 시상식이 있었는데 경기도 이목4H구락부 이동수 씨 외 17명의 자원지도자에게 농림부장관의



모범농촌방문기에 소개된 이목리(『조선일보』 1955년 1월 9일)



한국에 4H운동을 도입한 앤더슨 대한 (『조선일보』 1954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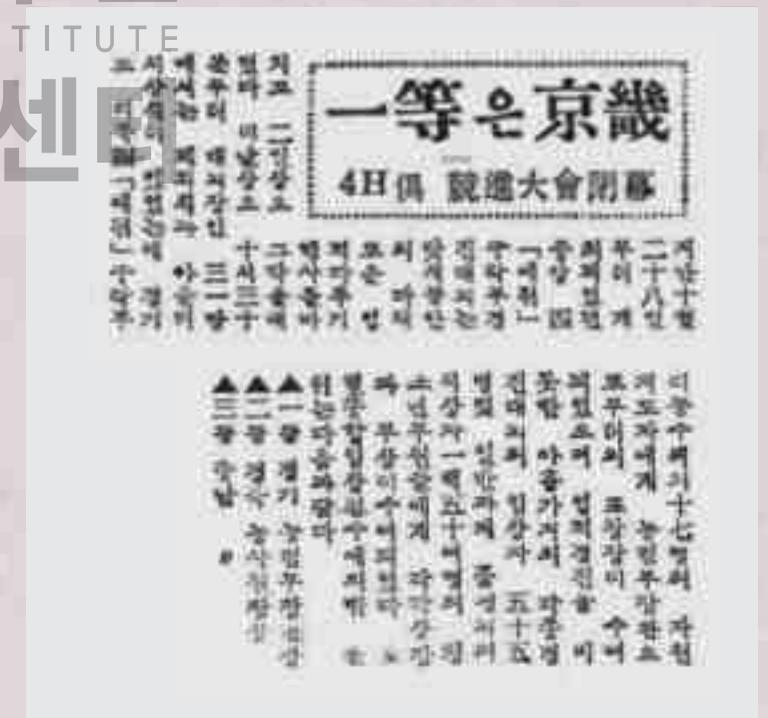
1961년 화성군4H구락부 농산물경진대회에서 3등을 수상한 이목4H구락부(『조선일보』 1961년 11월 4일)

SRI

 수원시농인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59년 중앙4H구락부경진대회에서 전국 1등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목4H구락부 (『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로부터의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업적경진을 비롯한 아홉 가지의 각종 경진대회의 입상자 55명 및 일반과제 품평회의 시상자 150여 명의 청소년부원들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었다.『조선일보』 1959년 12월 2일)

이목리 4H운동에 대한 소식은 1961년 “4H구락부 농산물 경진”²에 각종 농산물 640점을 출품했고 이목리가 여기서 “3등을 수상했다.”는 기사로 이어진다.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1960년대 이목리 마을 사람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기사는 찾을 수 없지만, 이병일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4H활동이 활발했음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병일 : (마을 사람들이) 돈 되는 거 심자고 권유하러 다녔어요. 그게 딸기, 포도예요. 보리고개 있을 땐 딸기, 포도 심자니 야단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먹을 것도 없는데 딸기, 포도라니. 하하하.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재배를 시작했어요. 이목동에서 딸기, 포도가 제일 먼저 난 곳이야. 그게 62~63년 정도 될 거야. 딸기, 포도 심어 놓고 퍼지기 시작했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65년부터 한 15년 동안은 엄청났어요. 돈이 엄청 됐어요. 딸기, 포도로 이목동이 최초로 유흥가가 된 거야. 수원시에.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 어르신들은 딸기, 포도 먹으려 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봄이면 딸기 한 상자 가지고 가서 먹고, 수원농촌지도소에서 가져갔지. (중략) 전국적으로 4H 하는 데 딸기, 포도 했어요. 자랑스럽지.

한편, 노송지대는 마을 주민들의 애향심과 단합심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노송지대는 정조가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러 다니는 길에 내탕금 1만 냥을 내려 소나무 500그루를 심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³ 현재 지지대비(遲遲臺碑)가 있는 지지대고개 정상(이목동 산72) 주변 경수대도를 따라 약 5km에 걸치는 구간에 지정노송 34주, 후계목 580주가 식재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건수 : 이목동이 (수원에서) 노송이 남아 있는 유일한 동네죠. 파장동은 노송을 다 떨감으로 썼는데 이목동은 팽과리 치며 야경 돌며 노송을 지켜냈죠.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애썼음을 보여



산림녹화공로자 표창을 받은 이목리산림계(『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주듯 과거 신문기사는 이목리가 애림(愛林) 공로로 농림부 표창을 받았다고 전한다.

농림부에서는 험벗은 강산에 나무를 심어 가다듬고 또 해방 후 악조건을 무릅쓰고 산림보호에 진력하며 혹은 현재 긴박하여진 연료문제를 타개하고자 분구를 경제적인 것으로 개량하는 등 직접 간접으로 산림녹화사업에 헌신한 애림 공로자 및 애림 단체에 대하여 28일 하오 3시 동부장관실에서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중략)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 이목리 산림계(『산림녹화공로자 농림부서 표창』, 『동아일보』 1952년 11월 1일)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경부선 건설로 “깡그리 뽑힐 뻔”했으나 수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지켰고, 한국전쟁 후에는 떨감으로 잘려 나갈 뻔했으나 이목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낸 것이다.

2. 18개 소모임에서 이목동연합회로 발전하다

1960년대 중반 이목동에는 청년회를 비롯한 소규모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 청년회가 가장 먼저 생기고, 이어 노송회가 만들어졌으며 “후배들이 많이 늘어나며 넝쿨회, 청우회가 이어 생겼다.”고 한다.

이원호 : (청년회 시작이) 60년대야. 66년도에 시집오니까 청년회 한다고 밥 하래잖아. 저녁. 그리고 부침개도 부쳐 주고 그랬죠.

소모임은 계속 증가하여 총 18개가 조직되었는데 청년회, 노송회, 넝쿨회, 청우회, 대우회, 협동회, 우정회, 배나무회, 진우회, 동우회, 선우회, 용두회, 34회, 동주회, 인우회, 청송회, 39회, 45진우 등이었다. 김웅기도 27살 무렵 마을의 동년배들과 함께 용두회를 만들었다.

김웅기 : 우리 버스 타고 내리는 데를 용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회원이 15명 정도 됐어요. 선배 형님들이 친목 단체하고 동네일 보고, 공 차고 하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모임들은 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다지면서 혼인, 초상, 환



1960년 대소사를 함께 치르는 이목동 주민들(김진영 제공)

갑 등과 같은 주민들의 대소사를 함께 치렀고 마을 일을 돌보는 데도 앞장섰다. 이병일은 이목동에 마을 모임이 활발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사랑하고 함께 돌보는 애향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병일 : 이목리는 대동회보다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아주 옛날부터 실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할아버지에게 듣기로 1890년대 조선 말기부터 주민자치 활동이 있었대요. 동네 모든 대소사 (함께)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진 거죠. ‘갑자기’가 아니고, 그전엔 동네 대소사 막론하고 동네 분들이 치러 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공사가 있다거나, 애경사가 있다거나, 어떤 수입 별이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동네 전체가 다 움직였다

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보지 못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이목동에 큰 개울이, 서호천의 양쪽 쪽방이 우리 주민들 손으로 그 전체 쪽방을 만든 거예요. 그게 1955~1956년 정도? 여기 동네 특성이 아주 옛날부터 물이 많아서 수해가 많고, 옛날에 민둥산이어서, 수재가 나면 다 쓸려가서. 동네가 엉망이 돼요. 치수사업 다 주민이 한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없어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접어들며 이목동 일대에는 농업진흥청 원예시험장(1967년), 대한식품회사 수원공장(1968년),⁵ SKC 수원공장(1978년) 등이 설립되고 마을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소모임도 18개로 늘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모임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다수의 모임이 되었던 것은 각 모임이 나이별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김용기 : 나중에 세대가 변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됐고, 또 후배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략) 형하고 동생하고 한 조직에서 친구 하게 할 수 없으니 기수가 차이가 나고 그 기수마다 조직이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회하고 노송회는 연배 차이가 안 나요. 그다음 기수부터 연배가 조금씩 짙어지죠. 그다음 기수가 넘출회, 넘출 밑에 청우. 청우 밑에 대우. 대우 밑에 협동, 협동 그다음에 우정.

다른 기수들은 모두 나이 차이가 나는 반면, 청년회와 노송회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청년회는 이목리 토박이 중심으로, 노송회는 추후 외지인이 늘며 외지인 중심으로 조직된 모임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회는 본동 사람(토박이)이 많고, 노송회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성룡의 말처럼 두 단체는 나이가 아닌 마을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후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차이에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0~1960년대 이목동의 청년들은 이미 마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외지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며 이들을 중심으로 노송회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노송회 회원 16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90% 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인들”이었다. 노송회를 만들자고 처음에 의기투합한 사람은 이성룡과 전범학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쌀장사와 세무서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노송이 좋아서 노송회라고 지었고, 우리도 뭔가 푸르르게 한 번 뭘 해 보자.”는 취지로 외지인이 중심이 된 이목동 마을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청년회의 텃세 같은 것은 없었다.

이성룡 : 그때 당시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느라고 그런 건 없었어. 텃세라는 건 없었어. 혼상갑(혼인, 초상, 환갑)들 이렇게 같이 하고.



1970년 10월 10일 이목동·파장동 점등식(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이목동 소교량 건설(수원박물관 제공)

SR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년회와 노송회는 각각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걷고 친목 모임을 가졌다. 청년회는 주로 회원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모였고, 노송회는 여러 군데 식당을 바꿔 가며 만났다. 그러던 중 두 단체가 “일 년에 한 번 파장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자.’ ‘공을 차자.’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것”(김용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목동연합회의 시작이었다.

김용기 : 1회, 2회 내가 듣기로는 이 두 팀(청년회와 노송회)이 공차기를 하셨고, 3회 4회 때는 4팀이 같이 했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들었어. 남송회가 들어오고, 청우회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우회에 들어오고 5회부터는 그랬을 거예요.

이성룡 : 연합회 구성할 때는 각 친목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동네 분들 전체를 모셔서 마을 잔치처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또 운동하고, 상품도 준비해서 주고 그랬어요.

1971년 조직된 이목동연합회는 마을잔치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갔다. 또한 마을 일을 도와 가면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용기 : 이제 옛날에 사람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는 여기 연화장처럼 이런 화장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매장을 하려면 산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산에 가면은 터를 닦고, 그때는 지금처럼 포크레인, 굴착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작업을 다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마을 청년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일을 전부 다 맡김하게 하니까 장례 치르는 데서 수고비를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씩 내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김용기는 용두회 활동을 하면서 이목동연합회 총무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15개 연합회 소속 단체가 함께 개최한 체육대회였다. 연합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주민들 간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김용기 : 당시 700명이 참가했죠. 아마 90년대쯤 될 거예요. 노인들은 공 굴리기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특히 노인네들은 낚싯줄로 선물 낚는 것 같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셨죠. 왜 그러냐면 노인 양반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넘어질 확률이 많아. 잔디밭도 아니고 그래서. 축구는 젊은 사람들만 하고, 30대 40대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고령화되어 돌아가시면서 회원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동년배끼리의 모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회원 충원이 안 되어 해산하는 모임이 생겨났다. 10여 년간 연합회 활동을 했던 김용기도 1990년대 중반에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이목동을 떠났었던 경험이 있다.

이성룡 : 결혼했을 적에 부조도 하고, 기부금도 만들고, 사고 없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올림픽 지나고 회원이 점점 줄어들었지. 이사가 가고, 나이 들고. 1990년도인가, 92년도에 해산돼 버렸어요. 한 10명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분을 전부 노파 줬어요.

또한 아랫마을의 경우 2010년 무렵부터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2012년 입주, 927세대)와 장안STX칸아파트(2013년 입주, 947세대)가 건설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연합회 소속 모임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2년 이목동 아랫마을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2013년 '제39회 이목동 경로잔치' 및 '이목동 한마을축제'에 참석한 주민들



2013년 제39회 이목동 경로잔치 및 한마음축제

김웅기 :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개발돼 가지고 연합회에 실질적으로 가입된 단체가 6개 단체밖에 안 되었어요. /8개에서.

연합회는 ‘이목동 경로잔치’ 또는 ‘이목동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가입 단체와 회원 수가 줄어들면서 연합회 행사는 격년에 한 번 개최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연합회 행사에 오히려 “돈을 많이 들여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2014년 경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경품으로 고급 자전거 10대, 햅쌀 20kg 20포, 신라면 20박스 등이 마련되었고 초청공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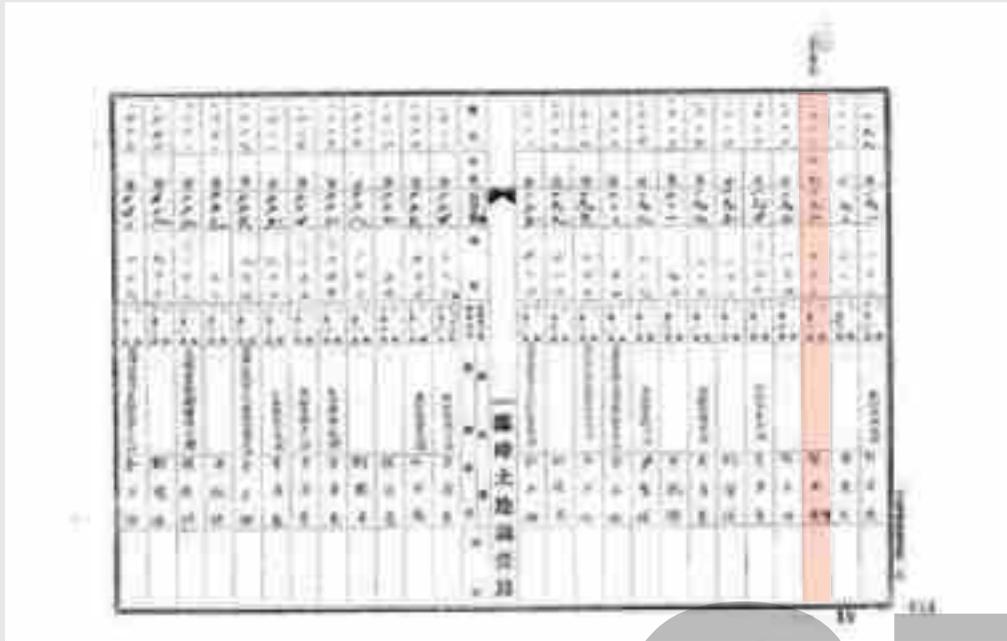
3. 이목동회의의 마을재산 찾기

이목동 주민들은 경로잔치와 마을잔치를 매우 풍성하게 개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풍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이목동회의의 마을재산 찾기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목동회의는 마을 소유였다가 사유지로 흡수된 토지를 찾기 위해 2011년 조직된 단체로, 회원 자격은 이목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마을 주민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목동 주민들이 되찾으려고 한 마을재산은 1911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목리’ 소유로 기재된 임야 4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한다.

<표 2> 1911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목리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지적(평)	소유자	비고
이목리 201	임야	650	이목리	소송
이목리 310	임야	320	이목리	소송
이목리 313	임야	1,146	이목리	
이목리 369	임야	536	이목리	소송

1911년 당시 이목리 소유였던 임야는 1969년 사유지로 변경되어, 이 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이에 김웅기 등은 이목동회를 조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목리 소유 입야 201번지와 310번지, 313번지(『토지조사부』, 1911)



이목리 소유 입야 369번지(『토지조사부』, 1911)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김용기: 이게 토지조사부인데, 여기 보면 이목리 땅이에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념 싸움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이리다 보니까, 지식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땅 찾기에 대한 협동심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고속도로 만들기 전에 땅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 이름으로 된 땅도 많았었고, 주인 없는 땅도 있었고, 그때 이목리 땅도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국가에서 가져갔어요. 동네에다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시 소유 토지로) 1969년도에 등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목동회를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어디 어디에 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살았거든요.

이목동회는 마을 소유 토지를 되찾기 위해 2011년 소송을 벌였고 고등법원에서 조정합의로 승소하였다. 수원시 소유로 변경되었던 토지 중 약 1,000평을 되찾았다.

이병일: 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옛날부터 청년회 같은 단체 활동을 했던 증거가 다 있어서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런 예가 없지. 우리가 자료 다 찾아서 제출했고 어르신들 증언을 토대로 해서 승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려받은 땅에 대해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기보다는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16년 이목동회에서 주관한 척사대회

이병일 : 작은 땅 거리가 고조부 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땅도 있었지만. 그런데 내 땅 찾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도) 소유권을 포기한 거지요 사실. 그만큼 단합이 잘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예가 없어요.

이렇게 이목동회의 마을재산 찾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마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이 2011년 이후 연합회 소속 단체와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재정적으로 풍족한 연합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고, 아랫마을⁶ 이목경로당(장안로 398번길 13) 앞으로 1억 원을, 윗마을 이화경로당(장안로478번길 55)에도 1억 원을 기부하여 두 경로당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짬질방까지 설치한” 노인정이 되었다.

4. 이목동연합회에서 이목동애향회로

1971년 조직된 이목동연합회는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애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8년 동안 45회 연합회 행사를 치르며 마을 주민의 친목과 단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합회가 애향회로 탈바꿈한 데에는 이목동을 떠난 주민까지 “보듬어” 이목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김웅기 : 2010년대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약 200가구가 다 이주를 했어요. 그분들은 고향은 이목동인데 여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원이나 인근으로 이사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목동이 고향인데 돌아올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보듬어야겠다고 1971년도부터 이어지던 연합회를 다시 만든 것이 애향회죠. “200여 가구 그분들을 모두 감싸고 이목동 전체 원주민들이 같이 고향에 대한 정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형제간,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친목 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애향회라는 단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2019년 5월 19일 이목동연합회의 마지막 행사이자 이목동애향회 창립 모임이 이목중학교에서 열렸다. 김웅기에 따르면 “300명 정도 예상하고 뷔페를 맞췄는데 약 400~5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가 삼풍농원 내 삼풍가든에서 열렸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적극적인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경로당 행사를 후원하거나 수재민 돕기에 기부하거나 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목동애향회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수원시정원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23년 이목동애향회 정기총회



2019년 이목동애향회 창립총회



2024년 이목동애향회가 개최한 백수 축하잔치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연구센터

김춘자 : 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 계획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애향회에서 보조들을 해 주셨어요. 식사로 해 주셨어요. 애향회에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분들 식사를 했어요.

또한 경로당 어르신 백수 축하연과 경로당 척사대회도 후원하였다. 2019년 창단 이후 애향회는 수재민이나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수재민에게 현금 300만 원 기부”,⁷ 2021년에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전달”⁸하였다. 2022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 100만 원을 행복복지센터에 전달”⁹하였고, 2023년에는 “사랑의 온정나눔 성금 300만 원을 기부”¹⁰ 하였다. 신문기사를 통해 애향회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150여 명의 이목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목동애향회’는 지역 내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단체로 (중략)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피크』, 2021년 9월 16일)

마을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목동의 발전을 위해 단합해 오던 오래전의 소규모 18개 모임은 1971년 이목동연합회가 되고, 2019년 이목동을 떠난 주민까지 보듬은 단체로 거듭난 애향회는 이제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애향의 마음을 오래도록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애향회 소속 회원만의 노력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보탠 회원들의 가족, 특히 음식을 하던 여성분들의 노고도 컸을 것이다. 현재 이목경로당 부회장이자 통장 일을 맡고 있는 하순덕(1950년생)은

연합회가 열리던 과거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순덕 : 그때 파장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렀거든요. 행사를 치를 때 그때는 다 돌아가면서 맡은 단체에서 내빈 음식을 준비했죠. 내가 그때는 감자탕 끓였어요. 그때는 연탄불이었죠. 근로(석유풍로) 끌고 가고, 집에서는 연탄불에 밤새 끓였죠. 각각 단체는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하고 내빈 것만 그 행사 주관했던 단체가 준비했어요.

이목경로당 회장 김춘자(1941년생)는 이 모든 일이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설비가 열악하고 출장 뷔페 같은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음식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애향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에는 주민들의 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던 회원 가족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50여 명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이목동애향회는 친목, 봉사, 기부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회장은 홍재윤(1950년생), 부회장은 한건수(1952년생), 총무는 이병일(1959년생)이다. 점점 인원이 줄어들지만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참석을 독려하고”(김웅기) 있다. 그리고 외지로 나간 주민들과 청장년층이 계속 참여해 준다면 “앞으로 10년 이상 애향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상회나 지역 주민의 모임과 활동은 물론 지역마저 소멸해 가는 이 시대에 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고 마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기에 이목동애향회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註

1. 「모범부락에 시상, 31일 경기도청에서」, 『조선일보』 1955년 5월 31일.
2. 『조선일보』 1961년 11월 4일.
3. 「역사기행 16: 철도사」, 『한겨레』, 1993년 12월 24일.
4. 「역사기행 16: 철도사」, 『한겨레』, 1993년 12월 24일.
5. 대한식품공사는 1960년대 초 네덜란드 메디락 우유 회사와 기술제휴 및 원료공급을 받아 ‘비만우유’를 생산했는데, 1968년 이목동에 ‘연간 분유 1천 3백 14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우유 처리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변모하는 재벌등기(70), 대한식품」, 『매일경제』 1969년 8월 23일).
6. 이목동에 소재한 동원고등학교(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26-1) 근처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북쪽은 윗마을, 남쪽은 아랫마을이라고 부른다.
7.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한 기부 릴레이」, 『경기중앙신문』 2020년 8월 18일.
8. 「이목동 애향회, 수원시 파장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뉴스피크』 2021년 9월 16일.
9. 「이목동 애향회, 장안구 파장동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나눔성금 전달」, 『새수원신문』 2022년 9월 13일.
10. 「이목동 애향회,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추석맞이 ‘사랑의 온정나눔’ 성금」, 『뉴스Q』 2023년 9월 22일.





자매애로 집안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여성들

: 배나무골 며느리회 여성들의 이야기

SRI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78번길 55 벽돌로 지어진 단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의 입구에는 하나의 간판과 하나의 명패가 달려 있다. 입구 위에는 큼지막한 문자들로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입구 왼편에 내걸린 나무 명패에는 고즈넉한 글자체로 '이화경로당'이라 쓰여 있다. 입구를 등지고 뒤로 돌아서면 별안간 어둡고 험한 굴다리가 보인다. 굴다리 위로는 1990년대에 개설된 영동고속도로가 뻗어 있다. 굴다리는 고속도로를 떠받치는 축대를 뚫어 통로로 만든 것이다. 어두운 굴다리가 불러일으키는 건조한 인상과 다르게, 이화경로당을 지나 윗마을로 들어서면 단층 주택들과 갖은 채소들이 자라나는 밭, 나무, 들꽃, 야트막한 산의 정경이 펼쳐진다. 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까지 굴다리가 있던 일대는 농경지로 들어차 있었다. 경로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동원고등학교(1985년 설립)도 농지가 있던 자리이다. 듣고 보니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 이목동으로 거처를 옮긴 그들의 기억 속 농경지가 겹쳐 보이는 듯하였다.

1. 이화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짝지어 점심을 준비하는 여성 어르신들이 인사로 반겼다. 이화경로당은 여성 회원들이 돌아가며 평일 5일간 점심을 책임진다. 이야기를 청해 들으러 방문한 2023년 10월 13일, 식사를 하던 여성들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며 방문객의 끼니를 챙겨 주었다. 보양계 우러난 미역국, 새콤한 무생채와 열무김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 지척의 땅에서 직접 기르고 뽑은 채소들과 숙련된 조리 실력이 신선하고 정겨운 맛에 담겨 있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짝지어 점심을 준비하는 여성 어르신들이 인사로 반겼다. 이화경로당은 여성 회원들이 돌아가며 평일 5일간 점심을 책임진다. 이야기를 청해 들으러 방문한 2023년 10월 13일, 식사를 하던 여성들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며 방문객의 끼니를 챙겨 주었다. 보양계 우러난 미역국, 새콤한 무생채와 열무김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 지척의 땅에서 직접 기르고 뽑은 채소들과 숙련된 조리 실력이 신선하고 정겨운 맛에 담겨 있었다.

김기순



유병숙



김계순



홍효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된 농사일의 고충은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단골 소재이다. 후루룩 짹짹 맛있고 빠른 소리 사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10월은 깨와 고구마를 비롯하여 제철 채소들을 밭에서 거둬들이느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안부를 나눈다. 고구마를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서로의 상황을 확인한다. 오늘 오지 못한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없는 사람을 챙긴다. 서로를 향한 이 돈독한 말들은 오랜 시간 마주본 사이에 다져진 것일 터이다.

이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글쓴이가 만난 여성들은 결혼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이목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목동 집안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과의 인맥으로 남성을 소개받아 20대에 혼인하였다. 그렇게 낯선 동네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홀로 와 휘말리게 된 낯섦과 생경함, 그리고 고투는 여성들이 함께함으로써 든든한 기억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끈끈한 관계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글은 네 명의 여성들이 기억하는 경험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는 선명한 일화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과거는 말할 수 없는 시간으로도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은 장면보다 먼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감정은 때로 기억하고 말하기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기억하기가 말하는 과정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말하는 이가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표시다. 이 짧은 기록에는 그러한 심표를 지나친 경험뿐만 아니라 기쁨과 희열의 얼룩도 그려져 있다.

2. 친정의 기둥, 딸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아버지, 서너 명이 넘는 형제들 사이에서 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거들며 형제들을 챙겼다. 부모의 농사일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공장 제조업 종사 등의 업종이 이들의 선택지로 있었다.

1940년대에 화성의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기순은 10살 연상인 큰언니가 시집을 가자 집안의 만팔 노릇을 해야 했다. 연상의 남자 형제도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돌보아야 할 일들은 그의 몫이었다. “쫓그맷을 때부터” 외양간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먹이는 데 필요한 풀을 베러 다녔다. 동생들도 집의 ‘막일’을 함께하곤 했지만, 부모는 조금 더 크고 힘이 센 그에게 일을 더 시켰다. 청소년 시절에 하던 집안일을 떠올리던 그는, 생각하면 힘들어서 말을 더 잇기 어려워하였다.

그에게 학교에 간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로 기억되었다.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이후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시기	출생지역	혼인 및 이주시기	비고
김기순	1940년대	화성시	196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유병숙	1950년대	군포시	1970년대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이주
홍효숙	1950년대	의왕시	197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김계순	1950년대	고양시	1970년대	배나무골 며느리회 회원



1960년대 김기순의 친정집(김기순 제공)



김기순의 친정 식구들(김기순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처녀 시절 김기순(앞줄 왼쪽)과 친구들의 용주사 아유회(김기순 제공)

진학을 멈춘 것은 집 밖에서 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도와 가게에 보탬이 될 오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부모가 5남매의 교육을 책임지는 건 힘든 일이었다. 그에게도 학교란 물리적인 힘과 시간을 요했고 쉽지 않은 상대였다. “국민학교가 얼마나 먼지, 그냥 산 너머로 걸 어다녔”다는 말에 큰 강조가 따라붙었다. 어린 김기순은 아침 7시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1시간 거리를 걸어 등교하였다. 그럴 땐 ‘용랑굴 꼭대기’를 꼭 지나야 했다. “문둥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 곳을 아이 혼자서는 무서우니 할아버지가 데려다줬다. 손녀를 유독 예뻐한 할아버지는 그가 어찌다 크레파스나 도시락을 빠뜨리고 갈 적이면 먼 길을 헤쳐 손녀에게 가져다주었다.

1950년대 군포시에서 태어난 유병숙은 위에 두 오빠를 둔, 일곱 남매의 첫째 딸이었다. 중학교를 마친 그는 고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많다 보니 예전에는 딸들을 많이 공부시키지 않고 중학교까지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유병숙은 고등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막 굴뚝을 붙들고 울었”다고 한다.

유병숙 : 그냥 막 굴뚝 붙들고 울었어요. 저렇게 애들 교복 입고 나가는 거 보면 속이 상해서 맨날 굴뚝 붙들고 울어서 엄마가 불쌍해 가지고 나오면 굴뚝 붙들고 울더라.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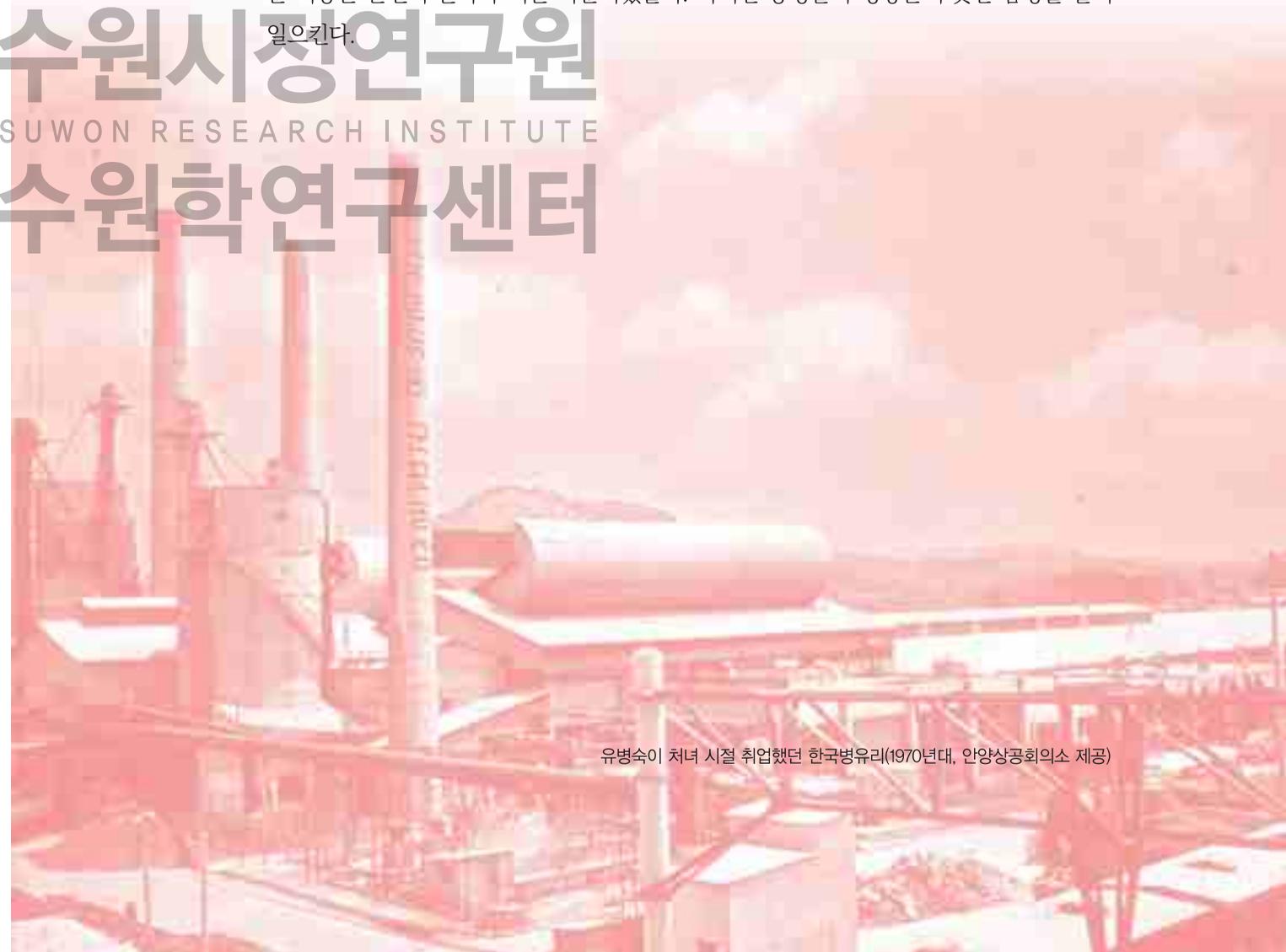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남자 형제들을 대신해 집안에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아버지의 친구가 소개해 준 군포역 부근의 제조업 공장에 열일곱 살에 취업했고, 20대 중반까지 9년간 일을 했다. 이 공장은 유리병 제작을 맡는 곳이었다. 유병숙은 유리병에 기업의 로고를 프린팅하는 발주처들을 다니며 검수하였다. 불량품을 숙아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받기 위해서였다. 만약 유리병에 로고를 잘못 찍었다면 그가 닦아 지워야 했다. 공식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잔업을 하는 날엔 밤 10시까지 매여 있어야 했다. 잔업과 검사 모든 걸 책임졌다. 하지만 그 일들이 “재밌었다.” 그 재미의 장면에는 직장 동료들과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집안의 아들들을 책임지는 그에게 자유로운 이동은 온전히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동생들의 성장은 뿌듯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유병숙이 처녀 시절 취업했던 한국병유리(1970년대, 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유병숙 : 이제 오티 하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검사 [책상 두드리면서] 이런 것도 책임져야 돼요.
(중략) 오티는 이제 6시까지 다 끝나면 또다시 10시까지 하는 거. 잔업을 하는 거지.

면담자 : 잔업은 어떤 거 해요?

유병숙 : 저기 왜 불량 나온 거 그걸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 병을 또 또 찍어요.

면담자 : 또 써야 되니까 지우는 거구나. 그러면은 생활력이 엄청 강하셨겠어요.

유병숙 : 그래서 (중략) 잘만 벌어들여서 동생들 가르쳤다니까. 보람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밑 동생
고등학교 때 전체 반장이라 잘 이렇게 졸업할 때 가 보니까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
무사 동생도 반장만 계속했어.

면담자 : 어머니가 다 키우셨네요.

유병숙 : 그래서 그게 너무 보람 있었어요

1950년대 의왕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홍효숙은 부모가 혼인 후 8년 만에 낳은 첫째 딸이었다. 바로 아래 여동생과 그 아래 여동생, 그리고 13년 터울인 남동생까지 4남매,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일가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아버지는 큰형의 아들을 뒷바라지해 대학에 입학시켰지만, 딸의 교육은 마다하였다. 홍효숙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설득한 건 작은아버지였다.

부모는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나가 작물을 팔아 자녀들 학업을 뒷바라지하였다. 홍효숙은 엄마가 지계를 이고 안양과 영등포 등지의 시장으로 나가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학했다고 한다. 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 3학년 무렵에 취업을 시도하였다. 면사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수원시 매산동에 있던 공기업에 지원해 이직하였다. 그곳에서 8년을 근무하다 20대 중반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1950년대 고양시에서 태어난 김계순은 증조할아버지부터 자신의 5남매인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다



1970년대 직장 재직 당시 홍효숙과 여동생 (홍효숙 제공)

닐 때부터 집에서 밥을 짓고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밭일을 도왔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고, 동네의 단짝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곤 했다. '동생들이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은 더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그 뜻이 곧 내가 동생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 아버지가 할" 테고, 내가 할 일은 원가족으로부터 내뿜은 생계를 떼어내어 내가 운용해 가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사로 생계를 꾸리는 건 힘든 일이라 반대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다른 일을 권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 친구의 지인을 통해 서울 어린이대공원 부근의 봉제공장에 취업하였다. 니트에 구멍이 났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17살 무렵, 철야 작업으로 공장의 한켠에서 잠들어야 하는 서먹한 느낌을 지금도 몸이 기억한다. 1970년대였다.



중학생 시절 김계순(김계순 제공)

김계순 : 우리 가니까 나이도 어린데, 나하고 또 같이 또래가 같이 간 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언니들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밥 먹었는데 가서 그냥 막 저기 철야 작업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처음에 잠이 안 오더라.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지지.

김계순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아주머니 집에서 살다가, 공장이 있던 구의동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고향에 있던 여동생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취집에 와서 함께 살며 일하였다. 음식은 본가에서 갖다 먹기도 하고 해먹기도 하고, 어머니가 김치 하는 것을 본 기억으로 김장도 해먹었다. 친정과는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손맛이 참고서가 되어 준 셈이다.

공장이 구파발로 이전하자 김계순도 동생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 2~3년 정도 일하였다. 그 후 공장이 남가좌동 모래내 부근으로 이사하여 그곳으로 출퇴근하다 그만두고 작은아버지 내외가 운영하던 식료품·건어물 가게에서 1년 정도 일을 도왔다. 그러다 다시 시골(고양시)로 가 부모의 농사일에 돕다가 20대 중반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처녀 시절 김계순(김계순 제공)



친구와 함께(김계순 제공)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김기순의 결혼



유영수의 결혼



SRI 수원시청연구원
SUI 수원학연구센터
SUI 수원시청연구원
SUI 수원학연구센터

신부 신부의 결혼



김계순의 결혼



수원 SUWON RES 수원

3. 시가의 기동, 며느리

당시 혼인 상대는 일반적으로 고향 지역의 이웃 관계를 통해 소개받는 식이었다. 김기순은 고향에서 남편의 고모로부터 중매 소개를 받았다. 남편은 8남매(5녀, 3남) 중 위로 누이가 있는 장남이다. 남편은 9년간 인근 선경합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시부모의 농사를 도왔고, 김기순도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주로 농사를 지었다. 친정에서 갈고 닦아 온 농사일을 연장해서 하게 된 셈이다. 농사일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계속 “찾아서” 해야 하는 일이다.

면담자 : 그럼 어머님 여기 와서도 농사일을 주로 많이 지으셨어요?

김기순 : 계속 농사일이지.

면담자 : 주로 어떤 농사일 많이 하세요?

김기순 : 아니, 배농사 발농사 다.

면담자 : 아까 댁 앞에 있는 밭도 어머님께 쪼고요?

김기순 : 응 그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저 산에.

“돈 나올 데가 없는” 시골에서 밭은 환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로 여겨졌는데, 김기순은 “애들 공부를 마쳐야 하”기에 산에서 나무들을 캐고 다 갈아엎어 밭을 만들었다(“따비를 낸다”고 한다). 모낼 때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지만 밭을 일구는 것은 가가호호의 일로 다루었다. 남편의 형제들을 “결혼 다 시켜” 출가시켰기에 밭을 일구는 건 김기순과 남편이 도맡았다.

김기순이 시집와 가사를 하던 때는 수도도,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시댁 가옥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타레박질’) 집안일을 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끈 매서 김치를 우물 안에 채워두 먹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섯 시누이를 포함한 대가족의 음식을 챙겨야 했다. 하루걸러 김치를 담갔다. 식구들이 결혼해 나가도 김기순이 아이를 출산하면 아홉 식구, 열 식구를 못 면하면서 대가족의 규모는 유지되었다.

김기순 : 아휴, 어려웠지. 시누가 여섯이여. 하나 출가하고 나머지 다 시누야.

면담자 : 그럼 다 같은 집에 사셨어요?

김기순 : 같은 집에 살았지.

면담자 : 그때는 다 대가족으로 하셨구나. 그럼 시누 밭도 다 직접?

김기순 : 당연히 하지. 식군데.



SR 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기순의 시댁 식구(김기순 제공)

유병숙의 경우 시아버님의 6촌 여동생이 고향의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4대 독자인 아버지와는 의형제 격으로 지내던 이였다. 유병숙에게도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다. 작은어머니처럼 엄청 따름 이였다. 이렇게 서로 막역한 사이에서 “며느리감 하나 아주 좋은 애가 있다.”고 앞으로 시부모가 될 이에게 중매를 했다.

이목동의 아랫마을로 시집은 유병숙은 외며느리였다. 아랫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장수마을’이라 불릴 만큼 오래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고 기억한다. 유병숙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을 50년간 모셨다. 90세 넘어서까지 무병장수한 시부모님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병숙이 부양해야 했던 사람은 비단 시부모만은 아니었다. 결혼하자마자 그는 시가 식구 11명과 함께 살았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을 무렵 가게를 이끌어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6~7년 되었을 즈음, 자전거를 타고 전자제품을 나르다가 정자동 선경합섬 앞에서 큰 사고를 당하였다. 자동차 밑에 깔린 그를 발견한 건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었다. 그 이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전자회사 공장을 운영하던 오빠에게 전자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유병숙의 시부모님과 가족(유병숙 제공)

공장을 인수받아 23년간 운영하였다. 시가 부근 70평 밭에 3층 집을 짓고 지하는 공장으로 만들어 5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이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였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납품하는 일을 맡았다.

유병숙은 공장 운영을 지속하면서 시누이들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시누이들이 살던 화성의 궁평리보다는 이목동이 교육여건이 나았기 때문이다. 시누이들이 직장 다니며 일하느라 자녀 교육을 올케언니에게 위탁한 셈이 되었다. 이목동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진학시키고 싶은 시누이들의 부탁 때문에 유병숙은 6살과 9살 된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다. 당시 유병숙은 공장 운영을 책임지면서도 “어른들 밥 차려 드리랴, (조카들 때문에) 도시락 그냥 6개 짝 싸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하는 목소리에 애처로운 기색이 담겼다.

그는 아랫마을에서 효부상을 일곱 개나 탈 만큼 효심 있는 며느리로 이름난데다가 11년간 통장 일을 했다. 통장 임기가 2년인 걸 감안하면, ‘11년’이란 세월은 마을에 ‘책임을 지고’ 서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남편도 그렇지만 함께 산 시아버님도 마을 사람들과 술잔을



효부상을 수상하는 유병숙(유병숙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나누길 좋아하는 애주가였다. 그래서 통장인 그의 집에는 동장들, 사무장들이 자주 방문했고 시아버님은 그들에게 꼭 “며느리 칭찬을 하고 싶어” 했다. 유병숙은 손님치레를 마다하지 않았다.

유병숙 : 11년을 이제 통장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장님 놀러 오시면 밤새고 가고. 그러면 아버님이 칭찬을 이렇게 하세요. 그제 이제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효부상을) 7개 탄 거지(웃음). 시장님한테 막 누구한테 누구한테 추천장님한테. (중략) 그래서 흐뭇했어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홍효숙은 이목동이 친정인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남편의 고향이 이목동이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홍효숙은 다니던 회사가 질려서 그만 다니고 싶었고, 중매로 우연히 남편을 만나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다. 남편의 회사가 자리한 영등포 소재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와 함께 이목동의 시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때는 19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자면 이 주변에



1979년 홍효숙의 시어머니(왼쪽에서 두 번째),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홍효숙 제공)

는 “아무것도 없을 때”였다. 남편은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이목동의 집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홍효숙 :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 내가 뭐 황당한 거야. 와 보니까 또 집도 뭐라 그럴까, 오막살이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어.

넓은 터에 단출하게 들어선 슬레이트 지붕 집에서 그는 혼자서 살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난처한 상황일 땐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하였다. 시어머니의 관대함도 때로는 격려가 되었다.

홍효숙 : 막막하긴 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 한 번 안 해보고 왔는데, 직장 다니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상하고, 이렇게 뭐 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딱 나한테 말기는 거야 그냥. (...) 그래서 내가 웬만함 다 내가 응용해서 하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거야. 하다못해 깨소금 볶은 것도 그냥 볶은 거야 씻지도 않고.

홍효숙 :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어. 왜 그러냐면 내가 반찬을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야유 이거 짜다 그러면 짜면 적게 먹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지 뭐 그러냐 그래.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착하셨어. 잘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알려 주지 않는 살림을 새댁 홍효숙은 친정어머니와의 통화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도움을 청할 곳조차도 혼자서 알아 봐야 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했다. 그렇기에 “좌우간에 힘들었다.”는 말이 유독 강조되어 들렸다.

김계순은 안양에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던 남편과 결혼해 기거하다 남편이 이목동 부근의 기업인 해태유업(현 동원F&B)에 취업하면서 아랫마을로 이사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



김계순 시어머니의 생신날(김계순 제공)

수원시정리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리다 윗마을에 땅을 가진 시누이에게서 땅을 받아 집을 지어 봄 무렵에 이주하였다. 그 또한 1970년대 후반에 아랫마을에 들어와 보았던 풍경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서호천이 흘러내려 가는 곳에서 여자들이 빨래를 했다.

대부분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이 동네에서 김계순은 1980년대, 농사 대신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친정엄마가 보기에 사위는 밤까지 일하고 사돈어른(김계순의 시어머니)은 애들을 봐줄 수 있는데, 딸애도 가게에 보탬이 될 뉘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친정 돼지를 물려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고향 일산에서 암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 길러 “새끼를 내가지고 늘리고 늘리고” 했다. 처음에는 집 앞에서 몇 마리 정도로만 기르다, 본래 다른 사람이 돼지 사육장으로 운영하던 곳을 인수해 거기서 100여 마리까지 사육하였다. 그곳이 지금은 이화경로당이 지어진 자리이다. 농장 규모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에서 몇 마리 키워도 목돈이 되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와서 돼지를 직접 구매해 도축했다고 한다.

회사에서 3교대로 일하던 남편은 퇴근 후 농장 일을 겸하였다. 그러나 ‘상품’으로서 돼지를 관리한 건 김계순이었다. 그는 ‘돈계부’를 쓰고 돼지의 출산을 모두 관리하였다. 돈계부는 일종의 돼지 장부인데, 돼지를 수정시킨 날, 출산일, 새끼 출하 날짜를 기록하는 수첩이

다. 새끼 관리는 친정에서 엄마가 하는 것을 보기만 했지 손수 하기는 처음이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를 수건으로 닦고 땃줄에 실을 때어 끊는 방법은 친정엄마가 하던 것을 보아 두었던 기술이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자녀들이 중학교 진학 전까지 돌보며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분노들은 농사짓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지만, 벌레들이 생기고 냄새도 심해 나중에는 신고도 당하였다. 그렇게 1980년대에 사육장을 접었다. 나름의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들도, 대가족을 부양하던 여성들도 가족의 먹을 입을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4. 혼자가 아닌 며느리들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낯선 풍경의 동네에서 시댁 식구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이런 여성들에게 서로 안면을 트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바로 며느리회의 조직이었다. 홍효숙은 그때를 1984년으로 기억한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다. 배나무골(윗마을)에는 5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홍효숙 : 애들이 크고 나가지고 좀 커서 유치원 같이 생길 때 서 동네 사람들이 저기를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들 친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며느리 친목회를 만든 거야. 시어머니를 모신 사람이 열세 명인가 네 명이 친목회를 했어요.

그 시작은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민선 1~2기 수원시장)의 아내인 고(古) 백정자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였다. 홍효숙은 그를 인심 좋고 후덕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홍효숙 : 잘해 주셨어. 거기서 막 정월보름날이 생신이서, 그 할머니(백정자의 시어머니)랑 심 시장님이랑 생일이 똑같은데. 그럼 거기서 해우재에서 옛날 먼저 있던 집도 좋았어요. 거기서 막 웃놀이하고 그랬어, 상품 걸어 주고 그 시장님이. 동네 위해서. 그래서 재밌었어, 우리. 며느리들 초대해가지고 신랑들하고 다. (중략) 보름날 당신 생일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애쓰셨지.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이사 온 김계순은 김기순과 백정자가 함께 다니면서 며느리들과 시부모님들을 만난 장면을 떠올린다. 며느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며느리 대 며느



배나무골 며느리회를 소개하는 기사(『경향신문』 1987년 3월 16일)



1989년 며느리회 회원들(김계순 제공)

리가 아니라 며느리가 모시는 시부모님과 협의할 거야 했다.

김계순 : (며느리회 같이 하자는 며느리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님께)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미는 아직 어리다.”고 아직 응 어렵다고 저기 했는데 (며느리들 측에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어머님이) 다니라고. (하락)

이처럼 새댁인 며느리들은 시부모의 허락을 말아야 했다. 그렇지 못한 며느리 여성들은 여전히 집의 생계 활동을 중심으로 살았고 집 밖의 여성들과의 연결을 피하기 어려웠다.

김계순 : 00 씨는 안 했어.

면담자 :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계순 : △△는 나이가 어렸고.

김계순 : 나이도 어렸지만 어른들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나부러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미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면담자 : 아! 허락을 말아야 해요?

김계순 : 근데 어 그렇지. 내 마음대로 그게 저기 안 됐었잖아. 어른들 다 집에 있으니까. 근데 “아 괜찮다고 그냥 같이 나오게 하지 뭐 저기냐.”고 이제 며느리 친목회니까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낸 거지 내보내려고 안 하잖아 어른들이.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설령 다른 며느리들을 만나 “보고 듣는 게” 있어 집안의 사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집안을 시끄럽게 할까 봐, 시가 살이에 대한 ‘나쁜 소리’가 막 나올까 봐 새댁일수록 더 단속에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 새댁 등은 시부모의 단속으로 참여가 어려웠다. 이를 갖 시 집은 어린 여성들의 취약한 지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희귀하고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어른들이 다 함께 집에 계셨고 그 돌봄을 며느리가 전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며느리에 대한 가사 의존도가 높았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김계순의 경우,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은 시어머님의 지갑 속에 있었지만,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살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결정하는 것은 며느리의 역할이었다.

면담자 : 그러면 시어머님께서 주로 그 통장 관리를 하신 거예요, 돈 관리? 가게 운영 돈 관리?

김계순 : 그렇지.

면담자 : 그러면 어머님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드려야지 사 주시는 건가요?

김계순 : 응응.

면담자 :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살림은 어머님이 하시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물건이 필요해요라고는 말씀 드려야지 사 주시는 거.

김계순은 남편만 보고 타지에 온 새댁은 친정 부모가 보고 싶어도 바로 갈 수가 없었고 기껏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었다.

면담자 : 그러면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 여기 혼자 오셨다고 했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김계순 : 보고 싶어도 못 가잖아.

면담자 : 실패야 되니까요?

김계순 : 아니 여기서 이제 보내면 다 돈도 들고 그러니까는. 친정에 가면 빈손으로 가? 다 돈도 들고 그러니



며느리회 회원들(김계순 제공)

까는 친절에 잘 안 가지 친절에 잘 안 갔어.

면담자 : 그럼 진짜 여기 가족들(시가 식구들)하고만 거의 관계를 맺고 사셔야 하는...

김계순 : 응, 애들 기르느라고, 애들 애 챙기느라고, 그전에 또 저기잖아 애기 낳고 기저귀 일회용 안 쓰고 [강조]다 빨고 그냥, 그거 다 해야잖아요. 삶고 그냥, 그 할 일이 많지. 옛날에 비누도 하얀 비누가 없어서 벗 썩면, 겨비누라고 있어 검은 비누. 쌀겨에다가 양젓물 넣고 만들어.

면담자 : 그거 직접 다 만드셨어요?

김계순 : 응응.

그의 집을 자주 찾는 이가 백정자였다. 백정자의 남편인 심재덕 시장은 김계순의 남편과 선후배 간이어서 친분이 있었다. 백정자에게는 아마도 외지에서 와 낯선 동네에서 그나마 안면을 트고 친밀한 집이 김계순네였을 것이다. 백정자는 자주 김계순네를 찾았다. 그러다 며느리들이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었다.



200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심재덕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며느리회(김계순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김계순 : 그래서 우리 모여서 차나 한잔 먹자 그랬어. 우리 모여서 차나 한잔 먹자. 그래서 몇 번 모이다가 이제 모임을 만들어.

모임은 백정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새댁이 아니고 애들도 크니까' 시부모님의 단속도 누그러졌다. 백정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시부모님은 집안의 며느리들이 서로 모이는 것에는 열려 있었다.

김계순 : 그때는 조금 저기 어른들이 조금 완화됐었어. 세월이 완화가 된 거야. 조금 이렇게 됐었어,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들도 죄 먹었잖아.

면담자 : 한 40~50대니까?

김계순 : 애들도 크고 점점 완화가 된 거지.

면담자 : 그러면 새댁 때가 가장 힘들었겠네요.

김계순 : 그렇지. 그때는 이제 못 만났지.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 모였지. 처음 왔을 때는 안 되지.



2000년대 며느리회 어버이날 행사(홍효숙 제공)

며느리회의 공통된 가입조건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였다. 시부모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연을 맺어 참석하였다. 모실 시부모가 없는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그 대신에 둘이 함께 사는 노인들을 어머니로 대신해 모임에 같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여성들은 8~10년 차이가 났고,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며 아니기도 했다. 상관없이 “형님”, “동생(동서)” 하며 서로를 불렀다. 김기순과 백정자가 형님 라인, 홍효숙과 김계순 또래는 막내 라인이었다. 형님들이 주로 장을 볼 땐 그 아래 동생뻘들은 형님들을 돕거나 총무 등을 분담하였다. 김기순은 2대 총무, 홍효숙은 며느리회의 마지막 총무를 맡아 했다.

친목회로 만나는 시간은 동네에서, 각자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서로를 알아차리게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해먹고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가사도 함께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거나 경조사를 챙겨 가족 행사를 같이 치렀다.

홍효숙 : 우연히 만나가지고 시어머니 모신 사람들만, 왜 큰일이 많잖아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큰 행사가 있잖아, 뭐 칠순 잔치든가 환갑잔치든가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는 걸로 했어. (중략) 초상나시고 할 적에 그 다 했어요. 왜냐면 친목회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한 집에 프라이팬을 사주거나 들통을 하나씩 사줬어. 그럼 큰일 때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 그리고 놀러도 가고 막. 시어머니 모시고 온천 가서, 수안보 온천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막 그랬어. (중략) 막 춤추고 놀고 그랬어. 밥 해 가져가서 다 해고 그랬어.

며느리회는 며느리들이 중심적인 연결망이 되어 펼쳐진 활동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천 여행을 가고, 큰 방에 빙 둘러앉아서 아들이 시부모님을 업는 광경을 같이 웃으며 즐길 수 있었다. 여행 가는 버스에서는 시어머니끼리, 남편끼리, 며느리끼리 옹기종기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1980년대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수안보 온천에 갔을 때도 며느리회에서 음식을 마련해 갔다. 얼마나 푸짐했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감탄을 내보일 정도였다.

김계순 : 매운탕을 이만한 냄비에다 다 하나씩 해가지고 갔는데 수안보 온천 갔는데 사람들이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좋아 보인다고.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백정자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모임의 며느리들은 그의 집에 모여 “밥 하고 찌개 하고 음식 하고 전 부치고 그런 거 다” 함께 하였다. 1986년 김계순의 시어머니 회갑잔치 때에는 유행하던 해파리무침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댁 친지가 얼마 없어 조출해질 것을 걱정하여, 며느리회 여성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과방을 준비해 왔다. 6·25전쟁 당시 남편을 잃고 피난 내려와 홀로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울에서 낙지와 아나고까지 공수해 와 한껏 대접하였다.

김계순 : 과방이라는 게 음식을 준비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 가져온 음식 있잖아요. (회갑잔치를 위해 예약한 식당에서) 기본으로 갈비탕 나오잖아요. 갈비탕 김치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낙지도 준비하고 또 저기 썰러드나 해파리나 그런 거 추가로 준비했잖아요. 그걸 음식을 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담아서 주는 거야. 그릇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 따로 일회용 그릇 준비해가지고.

그 덕분에 한껏 성대한 잔치를 치렀다. 시어머니는 김계순에게 “니네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너무나 좋아하셨다. 김계순의 시아버님 장례도 집에서 치렀는데 며느리회의 회원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와 초상을



1987년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며느리회 수안보온천 여행(김계순 제공)



1989년 시어머님을 모시고 간 며느리회 수안보온천 여행(홍효숙 제공)

치렀다. 친목회 회비로 나눠 가진 프라이팬, 그릇 등을 장비로 챙겨 와 잔치나 장례처럼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서로 품앗이를 하는 관계도 물론 마을에 있었지만, 며느리들의 모임은 달랐던 점이 있었다. 며느리들은 가사의 힘듦과 짊어져야 했던 고단함을 며느리회의 '관계 맺기'로 풀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전히 가사와 가족 돌봄을 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갇히지 않고 집 밖으로 확장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 관계가 준 새로움은 '소통'의 기쁨이었다. "여자들끼리 모이니까" 재미있었다는 말의 속뜻에는 아마 그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홍효숙 : 처음엔 시집와서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물리니까 좋지. 좋았어. 그래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서 밥 차려서 먹고 막 그랬어. 돌아가면서 계속.

시집은 직후에는 가족 구성원을 떠받치는 돌봄의 일이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처나가야 하는지 몰라 난처했을 테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겪고 있을 이들과 어울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무척 든든하고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아직 서로 속도 잘 몰라서 완전히 미더울 수는 없었지만, 함께 만나는 시간이 거듭되면서 점차 '우리들끼리'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생겼다.

김계순 : 그래도 조심스럽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뭐 홍보거나 그런 건 안 했어. 사람이 똑같잖아. 서로 조심스럽지. 만날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속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서먹서먹했지.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만나고 이제 차 먹고 이제 맥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맥주도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 [화색을 띄우며] 거기(며느리회)는 조금 그런 게 소통이 됐잖아. [웃음] 그래서 먹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하략)

또한 가족의 큰일을 모여서 치르고 여럿이 함께하는 게 당연함이 되니 그야말로 힘이 되었다.

김계순 : 누구나 일 있으면 다 같이 하죠.

김계순 : 무조건 내가 너네 집에 큰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다 하는 거야. 무조건.

수원시정연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세월의 기동, 자매애

며느리회 모임은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남자들이 주관하는 부부 모임에 흡수되었다. 이들은 그때를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무렵으로 기억한다. 며느리회 모임에 부부가 동반하기도 했지만, 활동의 주목적이던 시부모님의 돌봄 의무에서 여성들은 벗어났고, 며느리회 여성들이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이다음 세대의 며느리들은 시가와 떨어진 지역에서 독립된 생활을 살아가고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돈독한 관계는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경로당이 생기고 나서도 이어지고 있다. 며느리가 시댁으로 거처를 옮겨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야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새댁 시절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위상도 달라진 시대에, 그들은 그저 늘 해 온 것처럼 함께 경로당에서 밥을 나누고 고스톱을 치며 여가 생활을 즐긴다.

이곳이 그리운 장소가 된 까닭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세월이 온전히 남아 있기에 그렇다. 홍효숙은 몇 해 전 윗마을에 살던 집을 팔고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럼에도 매일 이곳 경로당에 나와 윗마을 사람들을 만난다. 이 동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홍효숙은 이 분위기를 '자매애'라고 표현하였다.

홍효숙 : 다 형님이고 동서고 언니고 동생이고 그러는 거 같은 자매애 같은 분위기가 나가지고 좋다고.

약 15년 전에 아랫마을에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받고 윗마을로 이주한 유병숙도 친인척 관계없이 '윗사람들한테는 다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가 형님, 동생으로 부르는 이들에게 느끼는 마음 또한 자매애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랫마을은 흥씨, 이씨 집안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지만 윗마을과 가리지 않고 며느리들과 남편들이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이때는 이목동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았다. 그의 기억 속 이목동은 아랫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유병숙은 이 좋은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멀리 가지 않고 윗마을로 이사하였다.

홍효숙 : 좋아요. 살기 좋아. 살기 좋은 동네야 여기. 그래서 떠나기가 싫지. 그리워.

이들이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은 꾸밈과 과장 없이 이들이 서로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 부부 모임으로 변화된 며느리회(2011년, 김진홍 제공)



함께 여행을 떠난 머느리회 회원들(2003년, 김진홍 제공)



해우재 척사대회에 참석한 머느리회 회원들(2008년, 김진홍 제공)



며느리회 윷놀이(2011년, 김진홍 제공)



며느리회 윷놀이(2011년, 김진홍 제공)



SRI

수원시청이주여성 수원학업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웃음이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화경로당

함께 엮은 경험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얼굴도 모르는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흉흉한 갈등을 겪는 도심에서 살다 보니 이처럼 당연한 이웃 사이가 존재하는가 싶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 여성들의 오묘한 식탁에서 마주앉아 정성스레 차려 주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여운이 남는다.

이 여성들은 시가로 이주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이들이 펼친 일은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 농사와 매일의 끼니를 궁리하고 지어내야 하는 노동뿐만 아니라 가계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친절으로부터 자원을 받아 기초부터 일구는, 말 그대로 건설적인 일까지를 망라한다. 그들이 집안의 경제에 기여한 과정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농사일, 공장 경영을 하면서 친족들이 함께 먹는 밥까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서로에게 기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집안의 경사에 필요한 가사와 시부모님을 돌보는 활동을 협력의 방식으로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자매애'는 시부모와 시댁 성원들에게 종속될 수 있었던 여성들이 새롭게 만든 관계 맺기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적인 일상의 시간에서 함께 키워낸 새로운 틈들이 이 세월에 녹아 있다.



변화하는 마을, 남겨진 논과 밭을 일구다

: 이목동의 농업 지속성과 농민들의 생활

SRI

수원시정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1. 이목동 농업의 변화

이목동의 농업 상황을 알려 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수원문화원에서 2008년 출간된 『수원 사람들의 의식주(衣食住)』에서 과거 농업에 대한 정보를 일부 신고 있다. 이 책은 파장동 주민의 구술을 통해 파장동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쟁기와 소를 이용해서 4월 말에 보통 두 번 정도 논을 갈았다. 논을 갈고 난 뒤에는 씨래질을 하고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는 보통 하지를 전후로 3일 안에, 논 한쪽 모퉁에 볍씨를 뿌려 물모를 심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내기는 품앗이로 이루어졌는데 부유한 농가에서는 농사에 돈을 주고 품을 사기도 했다.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에서는 소를 빌리고 품으로 갈았다. 모내고 보름 후에는 호미를 사용하여 김을 매고 약 열흘 정도 후에 손으로 흠쳤다. 논을 맨 뒤에는 피사리, 피 뽑기를 하다가, 추석이 지난 보름쯤 후에 벼를 베었다.

일제강점기 파장동에서는 팔달과 풍옥 등의 벼를 재배하였다. 추수한 벼는 논두렁에 넣어 놓고 말려서 우마차에 싣고 집으로 왔다. 벼 타작은 손으로 하고 절구에다 여러 번 찧어서 먹었다. 가을에는 보리를 심었는데, 골을 다듬어서 보리 씨앗을 넣고 검은 대로 흙을 덮었다. 보리논은 음력 3월이 가기 전 2월 말경에 한두 번 매었고 파장동에서는 음력 5월 중순까지 보리를 베었다. 보리를 타작할 때는 나무 혹은 평평한 곳이나 바닥에 자리개질로 했다. 보릿고개 시기에는 덜 익은 보리를 솥에다 찌고, 그것을 절구에 찧어 먹었다. 이후 통일벼나 안남미 등이 출시되면서 식생활이 바뀌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소리를 했다. 논을 맬 때나 흠칠 때 소리꾼이 먼저 소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이 따라서 하는 방식이었다. 소리는 선소리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경기민



일제시기 이목리 농경지

요인 양산도(陽山道)나 방아타령을 주로 했다.

『수원시 통계연보』에서도 농업 상황을 일부 알 수 있다. 1964년 이목동의 농지 면적 조사가 실시되었고 1965년부터는 파장동을 기준으로 작물의 종류와 생산량 조사가 있었다. 1965년 이목동의 인구는 726명(113가구)이었다. 이 중 농업에 종사한 인구는 남자 90명, 여성 81명이었다. 농작물 생산에 대해선 파장동, 이목동, 천천동, 정자동, 울전동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쌀, 보리, 콩뿐만 아니라 무, 배추, 고추, 마늘, 양배추, 오이 등도 재배되었다. 주민들은 과일 중에서 복숭아, 포도, 감을, 특용작물로 들깨, 참깨, 피마자를 재배하였다.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다.

1974년 이목동의 인구는 2,197명(남성 1,140명, 여성, 1,057명)이고 전체 521가구 중 7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목동이 속한 파장동은 수원에서 평동(639호) 다음으로 가장 많은 571농가가 있었으며 평동·서둔동과 함께 전답, 과수, 채소, 특용작물, 고등원에,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파장동(이목동 포함)에서는 무, 배추, 양배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고추, 가지, 토마토, 마늘 등이 재배되었고, 이 중 호박, 참외, 수

박, 가지, 토마토, 파, 마늘은 수원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

1980년 이목동의 밭은 52만 6,089㎡, 논은 32만 3,745㎡로, 이목동은 밭농사 위주의 농업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목동에서는 무, 배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고추, 가지, 토마토, 파, 마늘, 당근, 시금치, 딸기, 상추가 재배되었다.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자두 등이 특용작물로 참깨와 들깨가 재배되었다.

1982년부터 『수원시 통계연보』는 동별 원예작물 생산량만 알 수 있게 되었는데, 파장동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업 생산 현황은 1983년부터 수원시 전체(1990년대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단위의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농산물의 수매 및 유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통계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목동의 논은 23만 7,978.0㎡, 밭은 42만 1,323.7㎡이다.

임야가 180만 3,364.2㎡이며 대지가 182만 2,788.1㎡이다. 밭은 장안구에서 상광교동(43만 2,200㎡) 다음으로 가장 넓으며 논은 장안구에서 가장 넓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이목동의 농업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다.

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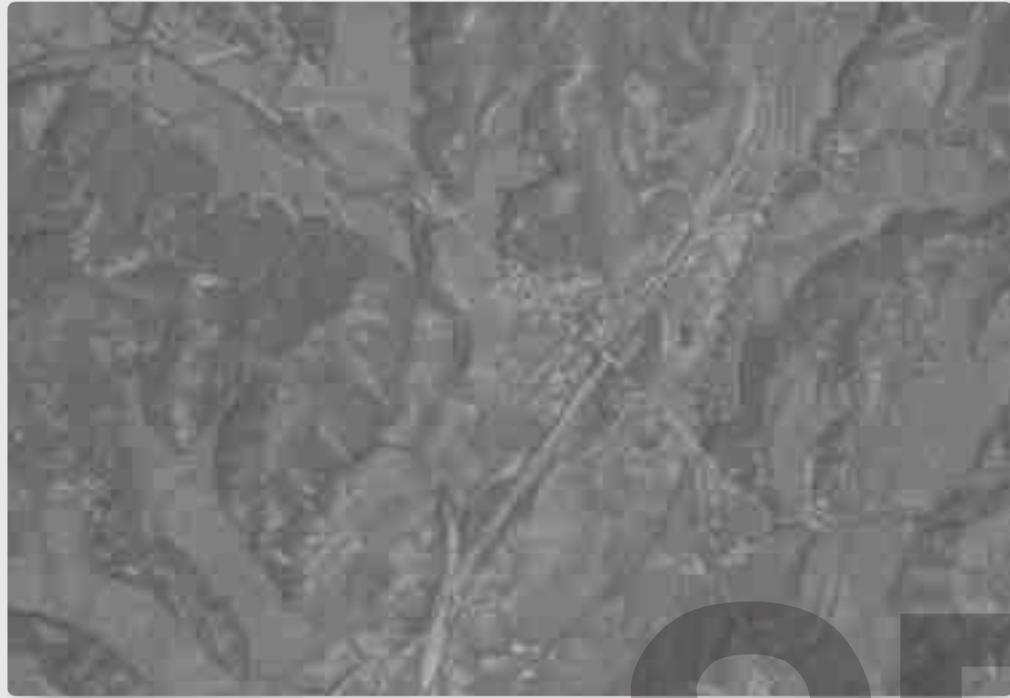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2년 이목동 괴목정교 부근 농경지(수원박물관 제공)





1966년 밭과 논으로 이용되는 농경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85년 소규모 공장과 주택의 증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근교 농업(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7년 농원과 주택 증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93년 도로와 학교용지의 증가와 농경지의 감소(국토지리정보원 제공)

SRI 수원시지리정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도 노령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이목동의 현재 농업을 살펴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목동에는 토박이 인구가 많고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도시에서 한평생 한 지역에서 살며 농사를 짓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목동에서 태어나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두 농부, 장덕근과 유예식의 구술을 통해 이목동의 농업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랫마을 농부 장덕근의 농사 이야기

2023년 10월 필자가 이목동 토박이 농부 장덕근과 인터뷰 약속을 잡던 날에도 그는 벼베기 일정 때문에 인터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행히 인터뷰 전에 미리 추수가 끝난 덕분에 비가 오는 날 이목동 자택에서 장덕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밭에서 만나야 하는데, 비가 내려 그럴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장덕근은 1940년 이목동에서 태어났다. 장덕근의 조상은 조선 중종 때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목동으로 이주하였다. 장덕근의 부모는 이목동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가 어린 시절 이목동에는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 여느 이목동 사람들처럼 장덕근의 가족도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 농사로만 살기가 어려워서 이것저것을 등에 지고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도 했다.

장덕근의 윗세대는 모여서 하우스 농사를 같이 짓기도 했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목동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촌지도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소수가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농촌지도소에 함께 다니며 농업 발전을 함께 꿈꿨다. 딸기 재배도 농촌지도소에서 권유하였다. 부인인 이윤희는 농촌지도소에서 EM용액을 보급하고 사용법을 알려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에 EM용액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목동에는 1960~1970년대 딸기 재배농가가 많았는데, 당시 이목동 사람들은 딸기 모종을 사서 노지에 심었다. 장덕근은 이목동에서 비교적 늦게 딸기를 심은 축에 속하였다. 딸기는 처음 심어 본 작물이었지만 그의 이웃이었던 가시돌농장에서 딸기 재배법을 알려 주고 도와준 덕분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었다. 현재 가시돌농장이 있던 곳은 절이 되었지만, 한때 농장은 지역에서 제법 큰 포도와 딸기 과수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인적이 없는 노송지대에 매대를 차리고 딸기를 파는 바람에 잘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딸기를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

논농사는 윗마을에서 주로 많이 했다. 윗마을에서 논을 가는 날에는 아랫마을 인력도 동

원되었다. 장덕근도 논을 갈러 윗마을로 갔었다. “그땐 딸밭이(농운기)로 갈아 줬었지. 그때만 해도 딸밭이로 갈아 주니까 윗마을이고 뭐고 안 간 데가 없지.” 장덕근은 경운기로 논을 갈아 주느라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는 이 지역에서 논에 바로 심는 ‘물벼’를 가장 먼저 재배한 사람이기도 하다.

장덕근 : 1년에 한 번 쓰는데 큰 농기구 이게 뭐야? 논 갈구 모내 주고 그러는 건 다 남이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야 반은 우리 농사지은 거, 반은 가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다면, 50만 원은 사람들 거야. 그 기껏값이 비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일 안 하면 농약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은 사람 싸서 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기야 남는 것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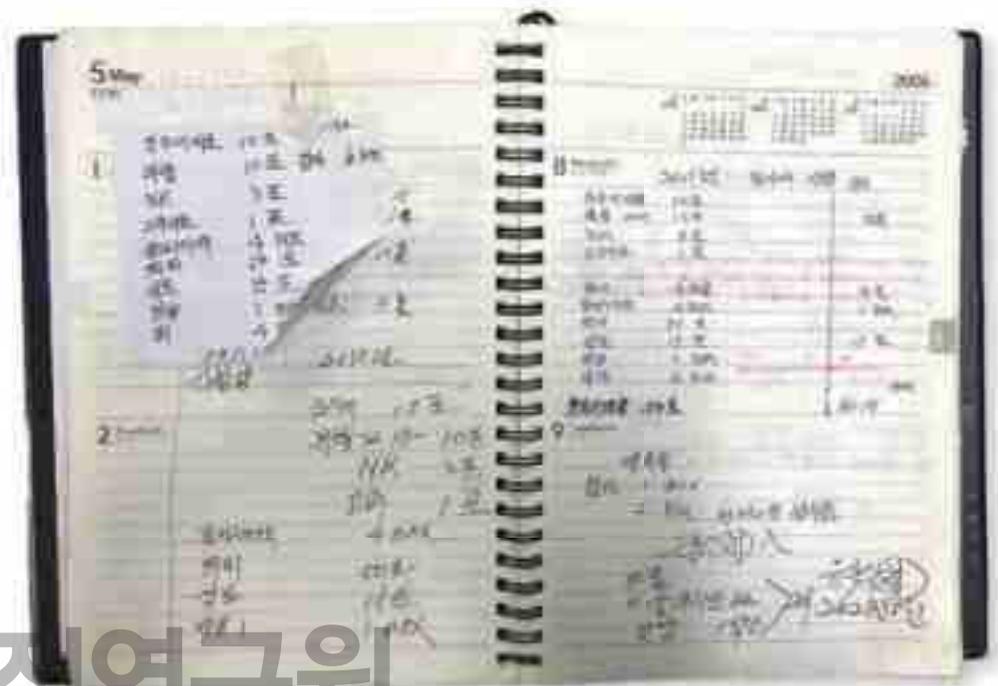
이목동에서는 지금까지도 소수에 의해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2004년부터 농협에서 직접 수매 중이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 올해는 수원농협이 총 세 가구가 추수한 쌀을 수매하였다.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농사에 앞장섰던 장덕근도 농사 규모가 많이 줄어서 농기구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은 농기구를 가진 사람이 와서 장덕근의 논농사를 돕는데, 그렇다 보

수원시정연무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71년 산골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장덕근(장덕근 제공)





2006년 농자재 구입부(장덕근 제공)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를 몰고 있는 장덕근(장덕근 제공)

니 농사를 지어도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요즘엔 인건비가 비싸서 일당으로 최소 8만 원은 줘야 한다. 하지만 구한 인력이 8만 원 가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장덕근의 농사는 가족 농사로 남았다. 장덕근 부부가 연로해지면서 자주 눈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잡초를 잡는 일도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장덕근의 농사는 주말에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는 편이다. 장덕근의 부인 이윤호는 그저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국토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덕근 부부는 밭에서 키운 야채를 주로 시장에 가서 팔아 왔다. 다른 작물과 달리 감자는 동네에서 팔았다. 수원에 있던 선경직물 공장에서 감자를 많이 사 갔다. 감자가 인기가 많다 보니 별이가 좋았다. 장덕근은 감자를 판 돈으로 껌종시계를 샀고 딸기를 팔아서 손수레를 샀었다. 언젠가는 산에서 토끼를 잡아서 닭을 사고 닭이 난 달걀을 병아리에서 닭으로 만들어 다시 팔아 돼지를 산 적도 있다. 지금은 자식들과 나눠 먹고 남은 야채를 팔기는 하지만, 시장에다 내다 팔지 않고 인맥을 동원해서 비공식적으로 팔고 있다.

장덕근은 평생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지만 자식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잠시 직장 생활

을 했던 적도 있다. 농사만 지어서는 자식을 가르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고려합섬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 벽돌공장에도 4~5년 다녔다. 장덕근의 아내 이윤호는 농약공장 등에도 다녔다.

장덕근 부부의 1년은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바쁘다. 2월에 마늘, 양파 견고 3월에 모종 심는다. 못자리를 만든다. 5월에 모내기하고 초에는 봄 채소를 심는다. 이웃들과 나눠 먹을 고구마와 옥수수도 심는다. 콩도 시기에 따라 달리 심는다. 완두콩은 3월, 강낭콩은 5월 다르다. 노란 콩과 울타리콩은 그 뒤에 심는다. 콩도 제철이 있다고 철에 맞는 콩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8~9월에 김장 채소를 심는다. 10월에 양파, 마늘을 심는다. 보리를 심어서 보리 엇기름과 보리굴비를 해 먹는다.

장덕근 :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고 우리 조상님들이 절기는 진짜 잘해 봤어. 옥수수를 심어도 절기에서 딱 맞춰서 따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편 『조선일보』 2006년 10월 19일자 '리포터가 뵈다' 코너에 "장씨네 벼 베던 날"이라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장덕근 이윤후 부부

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주인공인 장덕근은 2006년 10월 13일 논에서 벼를 타작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추석 전부터 벼를 베는 날을 미리 잡고 주변에 '통고'하여 품삯을 안 받고 일 할 '일꾼'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돈을 안 받고 일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과거 딸 기밭, 포도밭 시절부터 함께 놀며 성장한 장덕근의 60년지기 동네 친구들이 품삯을 받지 않고 추수를 돕는다. 이들 모두 여든이 넘는 이들로 현업에서 손을 뗐 만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장덕근의 가장 큰 농사 일손이 되어 주었다.

황금빛 들판에서는 장덕근의 가족과 친구가 탄 콤바인이 논 가장자리부터 돌며 벼를 탈곡 하였다. 장덕근의 아들은 벼 베는 날을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다. 당시 평균 연령 67세인 1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콤바인에서 논둑으로 벧단을 날랐다. 이날 오후에 정미소로 직행한 장덕근 부부가 재배한 쌀은 수원농협이 최고 등급으로 인증하는 '특다'를 받았다. 장덕근은 바쁜 농사철마다 도와준 동네 친구들 덕이라고 친구들에게 추수의 영광을 돌린다. 이날 장덕근의 친구 김진영은 "덕근이네 벼 베는 날은, 우리들이 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했다. 농사일에 빠질 수 없는 새참도 함께 했다. 이날 새참 메뉴는 콩을 넣은 찹쌀밥, 아욱국 등 푸짐한 상이었다.



장씨네 벼 베던 날(『조선일보』 2006년 10월 19일)



장덕근의 밭일을 돕고 있는 친구 김진영

3. 윗마을 농부 유예식의 농사 이야기

이목동 윗마을에는 과수원이 많았는데, 유예식(1950년생)의 부모도 과수원을 했었다. 포도를 주로 키웠고 후에 딸기도 재배하였다. 물론 마을 사람들처럼 밭농사도 했다. 유예식의 집에는 도라지밭도 있었는데, 윗마을 도라지는 마을에서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좋았다. 유예식은 학교에 다녀오면 책가방 놓고 앉아서 어른들의 농사에 풀 뽑는 일을 도왔다. 딸기 농사를 지을 때는 상자에 포장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유예식 :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딸기 농사, 포도 농사 같이 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그때는 상자에다가 하나 둘씩 하나씩 재 가지고 남문, 안양상회로 팔러 가고 그랬는데, 다음 날 버스로 가든 뭐 이렇게 도와 드리고 그런 정도죠 뭐. (중략) 이제 포도 농사는 그 몇 년도인지 영하 한 20도 이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나무가 얼어 죽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포도를 안 했죠. (중략) 워낙 기온이 낮다 보니까,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살아있어야 이름의 싹이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열매가 만든 건데 그게 모르니까 이제 지하로.

1970년대 몹시 추웠던 어느 겨울 이목동 포도나무가 모두 죽게 되면서 더 이상 포도 농사는 짓지 않았다. 현재 이목동에는 사단법인 한국포도회가 있어 이곳이 포도 재배가 성행했던 곳임을 알려 준다. 한국포도회는 1980년에 창립된 조직으로, 2002년 사무국을 이목동 475번지로 이전하였고, 2004년에는 한국포도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였다.

유예식 : 딸기는 안 해요. 딸기는 해야 수지가 안 맞으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딸기 과수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일을 벌이기보다, 있는 농작물이든지 하셔튼 있는 논밭 이걸 논지 않는 거 지금 일 벌이면 힘들어서 못 해요.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현재 이목동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1950년생인 유예식이 현재 이목동 농부 중 막내이다시피 하니, 오늘날 이목동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농사라는 일이 모두 체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논밭 농사와 달리 과수원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노년의 농부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유예식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이목동의 대여섯 가구와 함께 모여 버섯을 재배하였다. 현재 해우재 아래쪽이 모두 버섯단지였다. 이목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와서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 경작을 크게 했었다. 유예식에게는 버섯재배에 능통한 친구가

SR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1970년대 노송지대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유예식의 부모(유예식 제공)



1972년 이목동 노송지대 밭(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청의
SUWON CITY HISTORY CENTER



1972년 이목동 벼 수확을 마친 논(수원박물관 제공)



2023년 이목동 모내기를 마친 논

있었는데, 울전동에 살던 그 친구의 권유로 느타리버섯을 키웠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붕에 단열재를 넣어 보온력을 높였다. 원목재배가 대신 버섯을 이용해서 재배했다. 작목반을 조직해서 같이 재배하고 공동 출하하였다. 농사일은 품앗이로 함께 했다.

유예식 : 느타리버섯 버섯으로 했었고 버섯을 묶어서 적셔서 쌓아 놓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은 걸 또 잘라서 일단 이단 삼단 재배사예다가 쪽 압해서 아까 살균을 한다고 그랬지요, 살균해서 버섯 종균을 그 안에 다 넣어요. 그리고 한 달이고 40일 정도 되면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섯 농사는 하우스 단지에 큰불이 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대지라고 그래 가지고, 버섯 종균 섞은 슴. 이거를 쪽 얹혀 놓고 살균한다고 그래요. 살균. 통로에다가 화전 세 개짜리 화덕을 쪽 늘어놓고 불을 피워요. 그러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열기로 살균하다가 과열이 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버섯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가 보니 화재 피해가 컸다. 당시 입은 금전적 손해도 제법 컸을 텐데, 유예식은 그저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다고 한다.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불난 것도 그때 또 구조적으로 그런 상태니까 지금 같으면 다르죠. 또 기계화 뭐 다른 기계를 때서 이렇게 열을 올리던가 뭐 좀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줄 몰랐으니까.” 같이 버섯을 키우던 사람들 중 외지에 나가서 버섯 농사를 계속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버섯 재배를 중단하였다. 유예식도 화재 사고 이후로 더 이상 버섯 농사를 짓지 않았다.

유예식은 한우를 키웠던 적도 있었다. 많을 때는 20여 마리까지 키웠지만 사료가 비싸서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근데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소 키운 사람들이 재미를 못 봤다.”고 한다.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나서 버섯도 재배하고 소도 키우며 한평생 농사와 같이 지내 온 유예식은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 이제는 잠시 쉴 때도 되었건만 논과 밭에서 보내는 그의 일상 은 여전히 분주하다.

유예식 : 밭은 항상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바빠요. 밭은 일이 많아. 그리고 팔 수 있을 만한 작물이 그전에는 옛날에는 뭐 콩도 심고, 참깨, 들깨, 마늘, 양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고추밖에 수입이 난 게 없어요. 그래서 고추농사 주로 하고. 또 감자 좀 심고. 또 한쪽에 고구마 좀 심고. 또 그 안에 자리가 나면 옥수수도 심고.

고추는 단골 관계의 아주머니들에게 판매한다. 해마다 고추를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 유예식은 매년 팔 수 있는 양만큼만 고추를 재배하였다. 과거에는 재배한 농작물을 시내 상회에 납품했지만, 현재는 상회에 위탁판매를 하면 농사짓느라 고생만 하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직거래로 팔 수 있는 만큼만 재배한다. 짙은 농협이 전량 구매한다. 가족과 친지들 나눠 먹고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유예식은 농사지을 때는 인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예식은 자신이 추수한 벼를 직접 방아로 찧는다. 이목동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방아를 갖고 있었다. 집에 방아가 있으면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다. 방아가 없는 사람은 해우재 옆에 있던 방앗간을 이용하였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요즘엔 집에 방아를 없앤 사람도 많다. 오늘날에는 용주사 가는 길목의 방앗간을 이용한다.

농사에는 여전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인력이 없다 보니 품앗이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품앗이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저씨와 동생뻘 되는 일가친지들이다. 동네 친구들도 많이 와서 도와준다. 필자와 만나기 며칠 전에도 들깨를 추수했는데 동네 친구들 덕분에 한 시간 만에 끝냈다고 한다.

유예식은 이목동 농부 중 가장 바쁘다. 그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목동 동네 농사에는 모두 유예식의 농기계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필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서 연락이 잘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유예식 : 이 동네 처음에 경운기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 이 3년 후배가 그거를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모레 개울에서 잠마치고 나면 계속 모레 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가는 농사는 농사를 계속 농사하는 데 조금 지었고 나는 후로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경기를 못 살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철탑이 보이죠. 철탑이 하나 들어섰는데 저 위 그거를 내가 운반하는 걸 말았어요. 그러면은 경운기로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서 돈 한 200여만 원 빌려서 사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경운기 끌게 된 거야. 그



유예식

SR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후로 트랙터 샀고 또 콤팩트 샀고, 벼 심는 이앙기 샀고 동네 농사를 지어 줘야 되니까. 옛날엔 다 손으로 심었지만 차츰차츰 발전을 해서 기계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계를 산 거죠. (중략)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경운기 샀다고 그랬죠. 경운기 사게 되면은 거기에 물론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 가는 쟁기 있어야 되고, 로타리 땅 부시는 로타리 기계도 있어야 되고, 부품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붙여서 갈기도 하고, 다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둘씩 농기구를 모았기 때문에, 마을 농사엔 유예식이 갈 수밖에 없다. 유예식은 자신이 갖고 있던 농기계로 이목동 사람들의 농사를 돕고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다. 정당한 비용을 받지만, 이웃이 간단한 일을 부탁할 때에는 그냥 해 줄 때도 많다. “양이 많으면 액수가 좀 크고, 적으면 아주 조그마한 거는 가서 그냥 다 해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이지 뭐.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니까” 마을에서 오래 알아 온 사람들과 달리 외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받기도 한다.

농기계 사용법은 농촌지도소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웠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 활용 교육 프로그램은 각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와서 배웠다. 농기계 사용자에게는 정부에서 면세유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눠 주는 티켓으로 구입한다. 각 농기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배당량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정해져 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농촌지도소, 수원농협에서 기사를 보내 주었다. 유예식은 친구에게 농기계 수리를 맡긴다.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야. 농기구 수리. 이게 수리하고 중개 해서 팔기도 하고, 그 친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이제 그는 유예식에게 친형제나 다름없다. 맛있는 거 있으면 불러서 나눠 먹기도 하고 농사지은 것을 나눠 주며 가깝게 지낸다.

현재 그는 이목동 영농회 회장이다. 영농회 회원은 20~30명 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20여 명이다. 외지 사람이 이목동에 땅을 사서 조합원이 된 사람도 있다. 농협에서 행사가 있으면 조합원을 소집해서 함께 가서 교육을 받는다. 식사를 같이할 때도 있다.

유예식의 한 해 농사는 4월부터 시작된다. 가을에 심었던 마늘밭을 걷고 비료를 준 후 못 자리를 준비한다. 못자리는 비닐하우스에 한다. 5월 중순에는 모를 심고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을 심는다. 오이 모종, 배추 모종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쓰기도 한다. 가을에는 추수한 후 고구마를 캐고 월동할 마늘을 심는다.

SRI 수원시정연구재단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모내기할 하는 유예식(이정재 제공)



이목동 감자밭(이정재 제공)

4. 이목동 농업의 미래

이목동의 농경지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원래는 윗마을 가는 길 공장도 다 논이었고 아랫마을 아파트 단지는 밭이었다. 장덕근은 “다 줄었죠. 동네 농사꾼이 없는 게 그래서 없는 거예요. 농지가 없으니까. 그냥 놀게 돼”라며 과거에 비해 10% 이하도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장덕근의 밭도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대를 이어 살던 집도 두 차례에 걸쳐 도로로 수용되어서 2016년 지금의 집을 지었다. 현재 이목동에서 땅을 지키고 있던 농부들은 언젠가 농업에서 은퇴할 것이다.

외지에서 살면서 이목동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 같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반갑지만 섭섭할 때도 많다. 올해 유난히 비가 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논밭에 나갔지만 외지 사람들은 밭에 오지 않았다. 긴 세월 세상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땅과 환경도 바뀌었다. 특히 기후 변화로 농사력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덕근 : 지금 농사철이라, 지금 말이지만 한로, 상강. 지금 한로 때잖아요. 한로가 뭐냐면 24절기에 한로 때면 뭐를 심어야 되는데 그만큼 추위가 있을 텐데 없어. 그러면 아직도 여름 기온이 있을 때가 있잖아. 여름 기온이 있을 때가 있고. 맞아. 그래서 언제 즈음이면 뭐 심어야 되는데, 늦춰도 좀 늦춰도 괜찮은가 봐.

유예식 : ‘자연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걸 느껴요. 물론 일기예보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거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거 뭐 1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 자연환경.

그뿐만이 아니다. 해충과 농약도 변하였다. 유예식은 1년에 사용하는 농약이 10가지 정도 된다고 했다. 농약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던 이윤호는 해충마다 여러 농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이윤호 : 옛날에는 내가 한국농약, 천진산업 농약회사 몇 번 다녔는데 한 번만 주면은 죽었는데, 이제는 안 죽어. 아니 약을 가지각색을 해 가지고 아유. 애한테는 요거, 재한테는 저거. 안 되지. 한 번에 주는 거로 해야지. 아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무슨 벌레는 무슨 뭐 그 맛들이 틀리잖아. 약마다 틀려 가지고. 맞아 이거 주면 이거 죽이고 나면, 또 다른 벌레가 생기잖아. 또 약을 사야 되고. 팔아먹을라고.

장덕근은 밭에서 재배하는 씨앗을 대부분 직접 받아서 심는다. 배추만 씨앗을 사서 심고 있다. 오랫동안 직접 받아서 심어온 오이는 특히 더 맛있다고 자랑했다. 장덕근과 이윤호를 만난 날 실제 오이를 먹어 보니 엄청 아삭하다. 오이김치가 시간이 지나도 물컹거리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다. 호박도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재래종을 재배한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품종이 아니어서 판매는 하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 심고 있다.

유예식 : 야채 값뿐만 아니라 농산물 값이 다 싸요. 아니 커피 한 잔에 뭐 4,500원 밥 쌀값하고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야. 너무 비싼 거야.

세월이 흘러 2023년 10월도 장덕근의 추수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 이 글을 위해서 필자와 인터뷰 약속을 잡았던 날에도, 벼 베는 일정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추수를 끝냈다면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인터뷰 도중에 장덕근은 수원농협 조합장으로부터 추수 인사 전화를 받았다. 이윤호는 장덕근이 전화를 받는 틈에 “우리 조합장님



이목동 산골짜기 밭(김승일 제공)



이목동 산골짜기 밭(김승일 제공)



수확물 말리기

되게 좋아.”라며 과거 부부와 4H클럽에 함께 다녔던 사이라고 했다.

인터뷰 날에도 원래는 깨를 털어야 했는데 비가 와서 작업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친구들이 연로해져서 지금은 수원에 사는 자녀들이 농사일을 돕고 있다. 필자와 인터뷰했던 그날도 장덕근의 집에는 그의 자식들이 모였다. 장덕근은 비가 오지 않았으면 밭도 구경하고 밭에 가서 함께 점심식사를 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마치고 장덕근 부부는 못내 아쉬운지 손수 농사지은 쌀과 갖은 채소 반찬으로 한 상 가득 차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필자를 밭에 데려갔다. 밭에는 장덕근의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유예식 :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힘이 좀 부친다.’ 요거고. 목심을 좀 앞으론 부리고 싶어도 이젠 좀 목심은 부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대인관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인심 잃지 말고 있는 거 좀 베풀고 나눠 주고. 요번에도 모두 밤아 쌀 밤아를 찌지만, 와서 도와주는 친구들 아저씨들 한 자루씩 두 자루씩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요거 끝나면 나눠 줘야지. (중략) 나는 아직까지 이해심을 잃지 않아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한테 뭐 아저씨뿐, 동생뿐 아까 왔던 친구도 도와주고. 동



수확한 고추 말리고 손질하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네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줘요. 엇그제도 들깨를 베었지만 혼자 하면 하루 종일 할 걸, 한 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그 덕분에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지.

유예식은 이목동의 자랑거리로 동네 인심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목동 토박이들이 지금까지 동네를 지키고 있어서 마을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농지 면적도 줄고 농사지을 때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지만, 농사를 함께 짓던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서 이목동을 지킨다. 장덕근의 딸이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심었다는 밭둑의 꽃처럼, 꽃 같은 마음이 이목동에 남아 있다.